AUG 20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No. 595 1981년8월1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August 18,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한인체전 빗속에도 성대히 펼쳐

종합1위 벧엘교회 마라톤우승 장광휘

제1회 캐나다한국인체육대회를 시샘하는 비가 줄기차게 퍼붓는 가운데 남녀노소들은 웃고, 울고, 뛰었다.예정보다 2시간 늦은 15일상오11시 램포트경기장에서열린 대회는 밤8시30분 나이터 조명 아래 역사적인 막을 닫고 2부 연예인의 쇼 순서로 들어갔다. 짓궂은 빗속 에서도 질서정연한 입장식을 한 이 대회에는 42개 단체가 참가, 하루종일 체육행사와 오락게임을 벌인 결과 종합성적은 우승 벧엘교회, 2위 천주교회, 3위 박주삼태권도장이 차지했다.

교민체육행사 사상 처음 시도된 이날의 하이라이트 10㎞단축마라톤, 장로교회소속 장광휘선수가 32분29초(본사기록)로 1위로 영광의 테이프를 끊었다. 입장식에서 권순근악단의 주악 속에 6명의 아릿다운 소녀들이 받쳐든 대형태극기, 캐나다국기, 체육회기를 선두로 3백여명 선수와 각단체 임원들이 보무당당하게 입장했다. 이들은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광복절 기념식을 겸한 식순이 끝날때까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 7백여 관중들을 감격케했다. 정복차림의 캐나다참전용사 10여명도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식은 이병권 캐나다체육회장의 인사말, 이규현 주캐나다한국대사가 낭독한 전두환대통령 8·15메시지, 박학수옹의 만세3창으로 끝 맺았다. 다른 모든 순서는 비때문에 생략됐다. 만세소리가 2만여명 수용의 램포트경기장을 쩡쩡울린 순간 1천개의 오색풍선이 하늘을 장식했다.

입장식후 6개 도장서 온 100여명의 태권도선수들의 시범 30여명 김용순무용단의 강강수월래에 이어 동우회와 벧엘교회의 일반부 축구 리그 1차전이 빗속에서 시작됐다

축구가 끝나자 어린이들의 바구니에 공넣기 과자따먹기 유치원생의 세발자전거 중학생들의 200m 경주 400m릴레이 노년부의 눈 가리고 투치기 일반부의 2인3각 줄다리기 부녀들의 바늘에 실 꿰기 공나르기등이 진행됐다

3개팀이 참가한 일반부 축구에서는 각종한인대회에 처음 출전한다는 벧엘교회가 동우회 불루어 번영회를 각각 2: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소년부축구서는 천주교한맘팀이 미시사가(P.K.A.) 소년연합팀을 3:0으로 물리쳤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시작된 마라톤경기에는 7세의 꼬마서부터 44세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의 선수가 참가 예상외의 성황을 이루었다

운동장 25바퀴를 도는 경기에서 1등한 장광휘 선수(25),약 5바퀴를 돈 후부터 끝까지 선두를 지키며 완주했다

장씨는 축구선수 이기도 하다 4명의 여자들도 참가한 이 마라톤에서 피터보로(온타리오)에서 온 36세의 주부 손신자씨는 이혜옥양과 같이 끝까지 뛰어 여자부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손씨의 기록은 38분7초였다

11년전 이민온 손씨는 화가로서 작년도 오타와에서 열린 정식 마라톤대회(42.1㎞)에서는 3시간52분의 기록을 세웠다 최연소 7살짜리 저스틴(정번헌씨 장남)군은 4바퀴를 돈후 기권했으나 끝내 아쉬운 표정

최고령의 선수로서 전코스를 완주한 44세의 이도화씨는 "정말 기쁘다 이런 대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라톤경기에서 어느 선수는 "나는 27바퀴나 뛰었는데도 아무도 체크를 안했다"고 불평,대회 진행상의 미스를 나무랐다 마라톤을 끝으로 시상식과 폐회식이 거행됐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벧엘교회는 약 100세대의 신자들이 모인 중간규의 한인계교회이지만 교인들이 일치단결 첫 대회의 우승자가 됐다 벧엘교회는 일반부 축구우승 줄다리기 2등 트로피를 4개나 차지했다

폐회식에서는 대회를 치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한 강준남 사무총장등의 임원소개가 있었고 이어 초대 최성대회장등 역대 캐나다지부체육회장들에 대한 공로패 증정등이 있었다

폐회식후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재미교포가수·배우들로 구성된 교민 위안회가 같은 자리에서 나이터 조명 아래 벌어졌다

10시40분 스탠드에 끝까지 남은 5백여명의 교민들이 가수들과 같이 "고향의 봄"을 합창하는 가운데 제1차 캐나다한국인체육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국체육대회라고 하면서도 토론토의 타지역팀의 참가가 없었고 마라톤등일부 진행에 무리가 있었으나 사상최초 대규모 토론토교포의 체육·오락 제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앞으로 알차게 발전할 기틀을 마련했다.

시상내용과 전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종합
우승 : 벧엘교회(77점)
2위 : 천주교회(69점)
3위 : 박주삼태권도(50)
4위 : 한인장로교회(30)
5위 : 노년회(25)
6위 : 아이스하키협(25)
7위 : 손명수태권도(20)
8위 : 번영회(20)
9위 : 한인교회(15점)
10위 : 해병전우회(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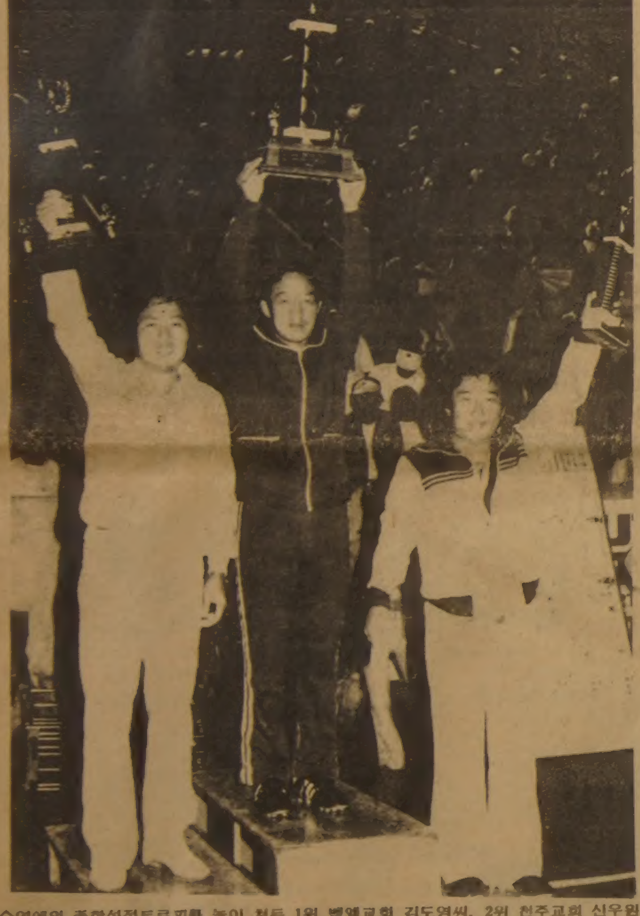
◇입장상 : 블루어번영회
응원상 : 중앙교회
특별상 : 김용순무용단 태권도시범단
장려상 : 대한교회

◇축구(일반부)
동우회1 : 2벧엘교회(1)
번영회0 : 2동우회(2)
벧엘교회2 : 1번영회(3)

◇축구(소년부)
천주한맘3 : 0미시사가

◇마라톤
1위 : 장광휘 32분29초
2위 : 정일용(본사추정)
3위 : 강희정
4위 : 이상호
5위 : 강인희
6위 : 이상태
여성
1위 : 손신자 38분07초
2위 : 이혜옥(본사추정)

◇줄다리기
1위 : 한인교회
2위 : 벧엘교회
3위 : 한인장로교회


◇영예의 종합성적트로피를 높이 쳐든 1위 벧엘교회 김도영씨, 2위 천주교회 신우원씨(왼쪽), 3위 박주삼태권도장의 박주삼 사범.

사할린 한국인 송환소송

일본변호인단 증인확보차 내한

(대구15일=연합)소련땅 사할린에 36년간 억류돼있는 한국교포 송환을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일본변호인단이 15일 대구를 방문,사할린교포 친척들을 만난다.

변호인단장인 제니치·다까기변호사는 사할린한국인의 친척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됐는가 하는점을 파악하러 왔다고 말했다.

다까기 단장은 이들 친척들의 증언이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그는 2명의 사할린교포 친척이 오는 11월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두하게 된다고밝혔다.

일본정부가 이 재판에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까기 변호사는 언론기관을 동원,일본인들에게 이 재판의 중요성을 재 인식 시키겠다고 했다.

다까기변호사는 모두 16명의 일본인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사할린동포의 조국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17명 재일교포 변호사들도이 사건에 적극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소련정부는 일본정부의 보증만 있으면사할린주민의 국외이주를 허락,많은 일본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한국출신 사할린 주민들은 일본정부의 무성의로 귀향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사할린은 2차대전때까지 일본영토였다가 종전후 소련에 합치됐다.

한국인들의 대부분은일제시대하에 노무자로 강제징용당했었다.

대학생합창단

첫공연은 9월5일

토론토 한인대학생회(KUSA)는 총영사관의 후원아래 한인대학생합창단(Korean University Student Singer's)를 조직, 해마다 9월 공연키로 했다.

음악을 즐기는 대학생들이 모여 여름방학을 이용 노래를 배우면서 한인사회에 선율로 이바지하는 한편 서너명의 음대생· 고교생을 무대에 진출시킬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이 합창단은 토론토대학을 비롯, 웨스턴, 워털루, 퀸스대학 및 온타리오미대등의 재학생 25명이 멤버로 돼있으며, 지휘는 로열·콘서바토리에서 피아노와 성악을 배운 여성합창단 콘설아미 멤버이며 토론토대학 4년생인 김인안(낸시·킴) 양이 맡고, 반주자는 웨스턴대학 음대3년생인 피아니스트 김현옥양. 독창은 신성하(토론토대. 음대 4년. 성악)·신수명(토론토대 음대4년. 피아노)의 2명이한다.

이들은 지난 5월말부터 매주 한번씩(화요. 하오6. 30~9) 토론토대학 구내 하트·하우스 음악실에 모여 연습을 거듭해 왔다.

대학생합창단의 첫 발표회는 9월5일(토) 하오8 시 토론토대학내 문화·오락센터인 하트·하우스에서 아래와 같은 곡목을 가지고 선보인다.

고전음악(16~17세기) 한국가곡(홍난파. 나운영 김동진곡). 흑인연가. 바흐곡. 미국폭송. 20세기명곡(Alan Copland곡). 모짜르트곡(피가로의 결혼. 대미사곡)등의 성악과. 슈만가곡의 피아노 연주.

입장권은 $4. 학생·노인은 $2. (예매처 : 종교서관. 모짜르트음악학교. 단원들.

경축식후 각종게임 런던한인회 주최

(런던 강상권지국장) 런던한인회(회장 하광용) 가 마련한 8·15기념식이 15일 낮12시 기본스공원에서 열렸다

기념식후 참석했던 약 2백명 교포는 거주지별로 4개 그룹으로 나뉘어 배구 줄다리기 노인및 어린이 경기등을 밤8시까지 가졌다

"무궁화작품집" 원고마감 연기

한인연합회는 지난 [illegible]월 18일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 한글학교 어린이 글모음<무궁화작품집>을 제1회"한인의 날"인 10월3일자로 발행키 위해 전국 교포어린이들의 작품을 공모중에 있는데,우편파업 관계로 접수마감일을 8월 15일에서 10월3일로 연기 했다.

동 작품집에는 해마다토론토한인회와 문인협회 공동주최의 「개천절, 한글날 기념백일장」제4회 입상작품들도 이<무궁화작품집>에 실을 예정이다.

많은 응모를 바라고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여름철 SEAT SALE!
서울왕복 $1,180
KAL뉴욕경유 : 자유귀환
●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 저렴한 국내선 특별요금(SKYBUS · SKY SAVER · · CHARTER)
● 관광휴양
● 월부 · 크레딧 카드 환영
IATA
KAL
NEW WORLD TRAVEL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EST, TORONTO
김 창 범
Tel. (416) 536-2155/6
(RES) 492-7525

SGW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미국 우승 한국 4위
한국, 쿠바 준결승 대패9 : 1

(에드몬톤)「대륙간 컵」쟁탈 세계야구대회 결승토나먼트에 진출한 한국야구팀은 쿠바에 9:1, 도미니카에 4:3으로 져 4위에머물렀다.

대회결승전에서는 미국이 쿠바를 10회 연장끝에 6:5로 눌러 우승컵을 차지했다.

15일 쿠바와의 준결승에서 한국의 김시진, 이선희 최동원이 계투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쿠바의 강타선에 굴복하고 말았다.

쿠바팀은 에이스 비렐이 등판, 한국팀의 타봉을 1점으로 막았다.

미국은 도미니카를 5:3으로 눌러 결승에 진출 했었다.

16일 진행된 3, 4위전에서 한국팀은 예선에서 격파했던 도미니카와 땀흘리는 시소, 15회 연장끝에 4:3으로 패배, 4위에 주저 앉았다.

17일 아침 본지와 긴급 전화한 어우홍 대표팀 감독은 "죄송하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목표는 2위였지만 대진운이 없고 또 부상선수가 너무 많아 타력에서 열세였다"고 말했다.

7월21일 한국을 떠난 선수들은 미국 싼타클라라에서 월드게임에 참석한후 뱅쿠버등지에서 친선게임을 비롯, 거의 휴식없이 경기를 벌여 심재원, 이해창 김용희등 부상선수가 많았다고 어감독은 말했다.

이번대회후 세계아마야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세계아마야구 베스트 일레븐(11명 : 각 포지션 8명과 우완투수, 좌완투수및 지명타자)을 선발, 한국팀의 최동원선수(오른손 투수) 김재박선수(유격수)를 선발했다. 미국프로야구의 스카웃터들은 최선수에게 접촉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선수의 투구속도는 에드몬톤에서 다시 재어본 결과 시속 91마일(146km)로 밝혀졌다 이 속도는 미국1급 프로투수들의 속도와 맞먹는다 전에는 88마일(140km) 로 알려졌었다

베스트 유격수로 선발된 김선수는 가장 뛰어난 수비와 타력을 보여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쿠바와의 준결승 두미니카와의 3.4위전 때에는 천여명 에드몬톤교민이 나와 열렬히 응원했다

"이곳 교민들에게 감사하다. 교민들은 차례로 선수들을 저녁식사에 초청 음식에 불편은 없었다" 고 어감독은 감사를 표했다

(해설) 본지는 15일에이어 17일 아침 어우홍감독과 재통화, 세계야구대회 소식을 좀더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다

한국팀은 비록 4위를 차지했지만 세계아마계 상위그룹으로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어감독은 어느정도 위로를 찾았다 우승한 미국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대학야구선수권대회 출전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고 4명을 보강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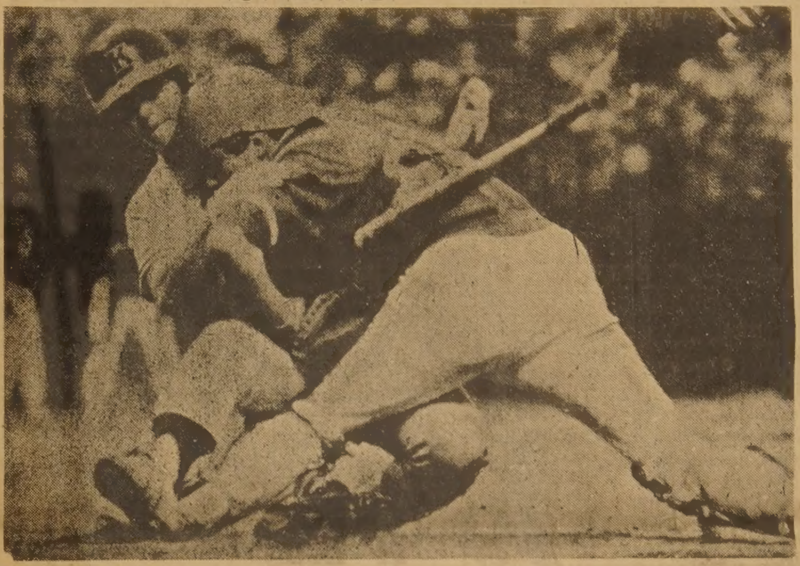
물론 한국팀이 미국팀에는 졌지만 실력의 수준은 거의 같다고 보겠다

미국팀은 한국대학야구팀에게 4승2패로 시리즈를 져 한·미대학야구 선주권을 한국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쿠바는 전력 면에서는 아마츄어 야구계 정상임은 틀림없다 이번대회 예선에서 캐나다 일본등에 지고 결승에서 미국에 5:4로졌으나 쿠바는 한국과의 경기에 신경을 써 에이스 버렐을 한국과의 준결승에 등판시켰다 쿠바가 캐나다에 진것은 주최국을 위한 대접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쿠바는 예선에서 미국을 13:3으로 대파, 그 진가를 발휘했었다

이번 3, 4위전에서 한국을 4:3으로 누른 도미니카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도미니카, 멕시코, 파나마, 베네즈웰라, 니카라과, 푸에토리코(미국령두) 등의 중남미국가들은 비록 세계야구의 상위입상은 못하지만 미국프로야구시장에 많은 선수들을 보내고 있다'

한국야구도 이제 프로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아마츄어야구는 대학및 군인선수들까지만 해도 과히 지장 없을 수준이 됐다



◇홈으로 대쉬하던 한국팀의 선수가 우승팀 미국 캐처에게 아웃당하는 순간。한국팀은 미국과의 예선1차전에서 9회말 4점을 내줘 6:4로 역전패했다。

최동원 스카웃교섭 토론토 블루제이스

최동원 선수와 접촉했던 구단은 토론토·블루제이스로 밝혀졌다. 본지는 블루제이스와 접촉한 결과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주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같다

중국인 백만장자 출국명령을 받아

이민성은 76년 이래 사실상 토론토에서 거주한 중국인 백만장자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스파다이너·애비뉴에 수백만달러의 중국인회관을 건설하려던 텀성만씨는 오는 20일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만씨를 변호한 멘델·그린 이민담당 변호사는 "이민성은 방문자 신분인 만씨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추방명령을 내렸다" 고 말했다.

그린 변호사는 로이드·액스워디 이민장관이 연방경찰보고서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경찰 자신도 보고서의 내용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민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유를 밝힐 필요없이 체류자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테러리스트나 마약범죄단등 국제범죄단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의 출국명령은 76년 8월 한 홍콩의 주간지가 만씨의 국제마약단 관련설을 보도한데서 비롯됐으나 이 잡지는 그후 정정기사를 냈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㊶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왜냐하면 그 근방에서 잡지않은 카리브의 머리는 집으로 갖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세개의 텐트는 언덕 끝에 위치해서 호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받게되었다. 이렇게하는것이 파리떼들을 쫓는 유일한 방법인것 같았다. 각텐트옆마다 투박한 돌로 솥걸이를 만들어 놓고 많은 나무가지를 옆에 주워모아놨다. 물론 땔 나무가지는 새파랗게 싱싱해서 불을조금만 지펴도 많은 연기가 근처를 메웠다. 그중 가까운 부뚜막엔 큰 솥이 걸려있는데 마치 우리가 만화잡지에서 보는 사람을 삶는 솥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텐트를 관찰해 보니 직경은 15피트정도이고 높이는 아마 10피트가 되는 원추형이었다. 가죽이 아직 마르기전에 서로 꿰매놔서 팽팽하게 말라가면서 이은 자리는 크게벌어져 있었으며 한개의 나무통에 엮혀졌다. 텐트밑은 동그랗게 돌을 모아 올려 놓았다. 그곳에서는 쐐기를 쓸 수 없다. 있다해도 몇인치만 들어가면 녹지않는 얼음이 있어 쐐기가 부서져버린다 문은 북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사슴이 내려오는 이유 때문이며 나무판처럼 딱딱하게 말라버린 한개의 가죽이었다. 이 할미우트 캠프만이 황량하고 텅비어 있는 북극 평원에서 눈에 띄 며 바렌에서 이들 캠프주위 밖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듯했다. 나는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받아줄까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이젠 전혀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내 걱정이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곧 판명이되었다. 헥과우와 오호토가

먼저 뛰어 가긴했어도 남녀노소 할 것없이 모두 화덕 주위에 미리 나와 낫선사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야단 법석이 났다. 한 늙은 여인은 땅에 납짝하게 엎디어 미친듯이 불을 불어 대고 그 위에 젖은 나무가지를 올려 놓으며 숨을 억제하지 못했다. 오―텍의 아내 하우믹은 저녁식사로 차거운 호수에 저장해 두었던 사슴 뒷다리를 막 꺼내어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자르고 있었다. 고기를 자르는 울루라는 칼을 들고 고기를 썰며 우리를 힐끔 힐끔쳐다 보느라고 여인은 손가락을 벨것 같았다. 여인이 서두를 때마다 머리에 단 나무로된 장식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뒤켜서 여인의 파카 뒤에 업고 있는 어린 칼락이 그걸 잡느라고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 개들까지 흥분해서 강아지 세마리는 꼬리를 물고 뱅글 뱅글 돌고 어미 개들도 덩달아 합세했다. 우리가 가까이 오자 어린 아이들은 개들 사이에 섞여 뛰어 다니고 불룩한 개의 배를 차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해볼려고 하는 눈치였다. 프란쯔와 내가 가까운 텐트에서 백여 야드까지 왔을 때 오―텍 헥과우 오호토 세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정식으로 자기들 집으로 맞아 주었다. 헥카우와 오호토는 처음으로 우리와 만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빳빳한 자세와 대단히 엄숙한 태도로 우리들의 손끝을 정중하게 잡았다. 그러자 정식 인사가 끝나고 오―텍은 돌 파이프를 꺼내서 담배 대신으로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 말린 야타모작을 채워 피우라고 나에게 내밀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갑짜기 닥친 일을 대강 끝내고 우리가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동안 오―텍의 텐트로 함께 걸어갔다. 우리는 정식으로 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상관없는 일이 었지만 방문객이 접대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않되는 일이었다. 왜나하면 손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결혼축하

신랑 : 유한종군
신부 : 조광영양
때 : 8월28일(금) 하오6시
곳 : 토론토 던다스성당 (941 Dundas St.W.)
주례 : 고종옥 신부

신랑 : 김창곤군
신부 : 윤순옥양
때 : 8월29일(토)하오1시
곳 : 쌩폴성당 (83 Power St. Tor.)
주례 : 고마태오 신부

신랑 : 공일성군
신부 : 오진숙양
때 : 8월29일(토)하오3시
곳 : 쌩폴성당 (83 Power St. Tor.)
주례 : 고마태오 신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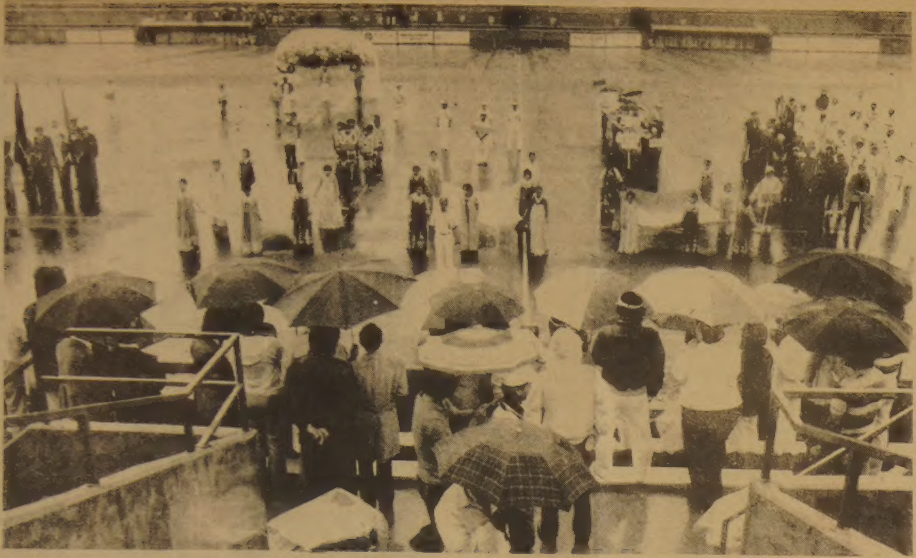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개회식의 선수선서(장광휘 선수)



◇빗속에서 강행된 8·15경축및 체육대회 개회식

◇1만m 단축마라톤의 승자 장광휘 선수의 골인광경

화보

역사적 첫 한인체육대회 (1)

8·15기념, 다양한 경기광경

캐나다 한인사회 초유의 맘모스체육대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겸해 8월15일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주최, 전국규모로 토론토 램포트·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그 생생한 모습! 썩썩한 역사적·순간 순간을 여기 재현한다. ※관계기사 1면

사진 : 이 을 윤(사진작가)

◇보무도 당당! 입장식 광경(입장상의 블루어번영회)

◇마라톤에 참가, 4바퀴나 주파한 7세꼬마 저스틴·정군

◇입장식에서 이채를 띤 중앙교회(응원상)

◇소년축구 정상 판가름-미시사가팀의 공격을 태클로 마크하는 한맘수비(2주전 소년축구 결승서 이 팀에게 4:1로 졌던 한맘은 이날 3:0, 일방적 경기로 이겼다.)

◇마라톤 여자부 1등의 여장부 손신자씨의 역주

◇일반부 줄다리기 예선-천주교팀과의 대전에서 밧줄이 끊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폭소를 터뜨리는 동우회팀

◇"용용 죽겠지"하고 도망가는 과자를 쫓아 조그만 혀들이 날름거린다(국교생 과자 따 먹기).

◇"자칫하면 떨어질라!" "노인부"공 나르기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펀치-프레스 기술자
시간당 $4·50 헬퍼 시간당 $4·00
B & S ELECTRICAL MANUFACTORY
37 DRUMMOND ST. ☎ : 259-7691

가게헬퍼 구함 유경험자 (풀, 파타임)
DON MILLS & SHEPPARD 지역
☎ : 491-9701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쥬스바에서 파트타임 여자 헬퍼구함 :
☎ : 368-9206(2시이후)
미세스 유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청소하실분 구함
주중 아침9시~저녁8시
☎ : 782-0316

〈사람찾음〉
성명 : 김명식(COOK) : 칼가리 서울식당에서
상기 본인을 찾읍니다. ☎ : (403) 255-4773

버라이어티 소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웨이트레스 구함 (Choi's 레스트랑)
☎ : 759-8512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스토아 헬퍼구함 :
무경험자도 가능(훈련시킬 것임)
☎ : 884-8342

주방헬퍼구함 :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 536-0290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주말에 맥스 밀크에서 일할분
CASHER할분
☎ : 266-3644 미스타 김

도나스 샾에서 주중에는 오후 또는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스카보로지역)
☎ : 284-9325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 : 535-0708 미스타 박

스토아 매니저 구함
보증금 $15.000(스탁의 ½)
☎ : 781-8968 미스타 정

매매및 양도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쥐 있음.
문의전화 : 422-0816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권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UPRIGHT 피아노 세일
TUNE 되어있는 우수한 상태
$680 ☎ : 451-6751

OPENWINDOW BAKERY & GROCERY
1550 Bloor St. W.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MILTON에 있음
HWY25 + HWY401. 주매상 : 5000. 아스킹 : 39.000
+인벤토리. ☎ : (416) 878 3610

DELI 레스트랑 & 타번 매매
다운페이먼트 $50.000. 이상적 가족 비즈네스
SHEPPARD AVE. W.
☎ : 224-2800 MEL POLON
MR. REALESTATE INC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 0869

현 전면허증을 가진 레스트랑과 라운지 매매
120개좌석, 긴 리스, 한국, 중국레스트랑 하기에
적합한 위치. 캐쉬 $295,000 또는
$165,000 다운페이먼트와 나머지는 몰게지로 가능.
연락 : 피터 ☎ : 368-9557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좋은위치에 자리잡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1801 LAWRENCE AVE. E SCARB.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T. T.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맥스밀크 권리양도
연매상 34만달러, 연간경비 4만5천달러, 연수입 4만달러
스탁 2만5천달러, 권리금 3만5천달러, 리스 84년8월10일
까지 옵션 10년
주소 : 600 THE EAST MALL RD.
☎ : 622-6155, 762-1264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5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각종부품 소지
24Hour S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5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하반기 就職門 활짝

大企業 景氣회복對備 작년3倍모집

취업지망생들을 위한 대기업의 취직문이 올하반기에는 활짝 열릴것 같다.

주요대기업들은 명년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하기위해 신규인력모집규모를 작년보다 최고 3배이상으로 늘리고 모집시기도 오는 9~10월중에 서둘러 확보할 계획이다.

14일 韓國능률협회가 주요 대기업및 금융기관등 30개업체를 대상으로조사한 올하반기 신규사원채용계획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따른 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유학자유화로 고급인력의 직장기피현상을 사전에 막기위해 올하반기 신규인력채용을 早期·大規模로 계획하고있어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신규사원채용계획을 기업별로 보면 現代그룹은 지난 상반기에 1천3백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3배이상인 2천명을 뽑을 예정이며 三星그룹은 9월말에 작년보다 15%늘어난 5백명이며 大宇는 大卒者를 작년비 60%많은 1천명과 경력및 해외파견계약사원 5백명을 충원시킬 계획이다.

럭키도 5백여명을 하반기에 충원하며 이밖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역·전자·건설부문에 50~2백명의 대졸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商銀·朝興銀·國民銀이 각각 1백명, 韓一銀50명, 外換銀 1백80명, 第一銀 1백20명등이다.

또한 大卒신입사원의 초임수준은 대기업들이 25만~28만원선이어서 대기업이 금융기관은 20만~25만원선보다 4만원정도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30大企業 하반기 충원계획

기 업	모집시기	모 집 인 원		전형방법
현 대 그 룹	9 월 말	대졸1,030	고졸900	A, C
삼 성 그 룹	9 월 말	대졸 500		A, C
대 우 그 룹	9 월 말	대졸1,000	고졸200	C
선 경 그 룹	9 월 말	대졸 100		B, C
코 오 롱그룹	10~11월	대졸 80	고졸150	A, C
롯 데 그 룹	10 월 말	대졸 100		A, C
두 산 그 룹	10 월 말	대졸 200	고졸200	C
효 성 물 산	10월중순	대졸 30	고졸 40	A, C
국 제 상 사	10월중순	대졸 53		A, C
종 근 당	11 월 초	대졸 50		A, C
한 국 화이자	10월중순	대졸 50		A, C
국 제 전광사	11 월 중	대졸 8	고졸 2	A, C
유 한 양 행	9월중순	대졸 20		A, C
삼 환 기 업	8 월 중	대졸 100		A, C
대 한 항 공	9 월 중	대졸 200	고졸150	A, C
동 아 제 약	10 월 중	대졸 100		A, C
대 림 산 업	10 월 초	대졸·고졸300~400		A, C
일 동 제 약	10 월 중	대졸 30		A, C
태 평 양화학	9월중순	대졸 140	고졸100	A, C
한 양 주 택	11 월 중	대졸 200		A, C
한 일 개 발	9 월 중	경력 200	고졸100	—
한 국 은 행	9 월 중	대졸 50		B, C
상 업 은 행	11 월 중	대졸 100	고졸100	B, C
조 흥 은 행	〃	대졸 100		A, C
외 환 은 행	9~10월	대졸 180		A, C
국 민 은 행	11 월 중	대졸 100	고졸150	A, C
제 일 은 행	〃	대졸 120		A, C
산 업 은 행	10 월 중	대졸 50		A, C
중소기업은행	11 월 중	대졸 100		A, C
수 출 입은행	10 월 중	대졸 15		B, C

※전형방법 A=필답·B=추천·C=면접

兵役特惠범위 擴大

技士등 3週훈련후 義務근무 5年

정부는 우수한 교수요원, 고급기술인력, 예술및 체육인의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과 기간산업체의 연구원, 예·체능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범위를 확대키로하고 병역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하며 대학원생병역특례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3일 병무청에따르면 병역특례확대범위는▲건설 기계 전차 항공 화공 일반판금등 5개업종의 기사▲발전기 비파검사등2종의기능사▲윤종2등항해사및 기관사(해경 경비정 승무원도 포함)▲전자업 발전보수업체 종사자등에 대해서 추가로 병역혜택을 부여, 3주간의 군사훈련만을 받게한후 5년간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면 실역을 마친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이개정법안은 예·체능 기자중 병역특례의 범위를 국제규모의 음악대회에서 2위이상 입상자▲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이상 국제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체육인▲한국체육대졸업자중 성적순으로 10%이내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병역특혜를 주기로 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 (416)533·2361

생명의 말씀
CITY. T. 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한국일보 詩壇

平詩人

柳光烈

平詩人이면 됐지
무슨 詩人이 또 詩人인가。
詩人이면 그대로 詩人이지
무슨 詩人이 더 詩人인가。
詩人은
詩人이라서
詩人이다。
어차피, 詩를 써
家率을 거느리고
三時 죽도 못먹이는 것。
기껏 써보여도
趣味없는 사람에겐
봐도 봐도 그게 그것
죽도록 시시하기만 한 것。
가쓰고 써봤자
小說처럼, 그것 써
自動車 한대 바꿔라도 굴릴성 싶은가。
가락이 찢어지도록 뛰어봐도
自體가 지닌 意味가 머없는 目的인데
나어려 뭘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벗겨봐도 平詩人인데
어디서 詩人 이상 가는 詩人을 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詩人으로서 가락이다
平詩人으로서 흠이 넘친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당신 헌 구두속에서 10달러를 주웠어요。" "50대 50으로 나눠서 1달러 여기있어요。" "50대 50이라면서 어떻게 계산한거지?" "50더하기 50은 1달러가 되잖아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illegible]

모둔좋이 와 生 <175>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⑦

[illegible]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 창 세

1,061명 特赦

光州事態관련자 8명
金大中사건 3명포함
民青學聯사건 3명·기타 布告令위반 55명도

政府"光復節맞아 福祉건설 參與기회"
無期囚 1명·外國人2명등 一般모범수 8백34명도

정부는 36주년 光復節을 맞아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키위해 光州사태관련자8명과 金大中사건관련자3명, 民青學聯사건관련자3명, 기타계엄포고령위반자55명등이 포함된 1천61명에 대해 特別赦免, 刑執行停止, 가석방, 가퇴원시키기로 했다고 정부대변인 金恩榮문공부차관이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조치로 光州사태 관련자 朴桂錫등 7명을비롯 한62명이 특별사면으로, 또 光州사태 관련자인 金成鏞신부와 金大中사건관련자인 咸允植 金玉과 韓和甲등4명과 대통령긴급조치 1·4호위반(民靑學聯사건) 등으로 복역중이던 李康哲 張永達 鄭華永등 3명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각각 석방됐다.

이와함께 무기수1명과 中長期囚44명, 외국인2명등 일반모범수 8백34명이 가석방 되고 모범소년원생 1백58명도 假退院됐다.

이번의 光復節 特赦조치는 제5공화국 출범이후▲제12대 대통령취임식(3월3일)을 계기로 이뤄진 5천2백21명에게 대한 대사면▲지난 4월3일의 光州사태 관련자 83명에 대한 사면조치▲釋誕日(5월11일)특사에이은 네번째 조치이다.

金문공부차관은 이날특사 조치를 발표하면서『이번에실시되는 光復節特赦조치는 改悛의情이 뚜렷한 受刑者들에게 정의복지국가건설에 참여할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정부는앞으로도 受刑者들이 과거의잘못을 뉘우치고 새시대에참여할수 있다고 판단될때에는이들도 과감히 석방, 가정과사회에 복귀시키는 기회를줄방침』이라고밝혔다.

特赦,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가퇴원된 受刑者들은 다음과같다.

◇光州사태관련자(8명)▲特赦=朴桂錫(목공)、崔訓(목공)、李東啓(농업)、尹多鉉(상업)、許春燮(목공)、金江浩(무직)、黃仁甲(무직)▲형집행정지=金成鏞(光州南洞성당신부·징역6년확정)

◇金大中사건관련자(3명)▲형집행정지=韓和甲(金大中前秘書·징역3년)、金玉와(同·징역3년)、咸允植(金大中前경호원·同)

◇기타 계엄포고령 위반자(55명)▲特赦=全聖(高大3년)崔鳳榮(高大3년)朴敏緖(高大2년)李敎援(全南大2년)李在儀(全南大3년)朴東錫(全南大3년)崔景煥(成大3년)金賢燮(弘大4년)등 55명

◇民青學聯사건관련자(3명)▲형집행정지=張永達(國民大)李康哲(慶北大)鄭華永(무직)

◇일반모범수▲無期囚(가석방)=張鳳萬(41·전기용접기능사보)▲中長期囚(가석방)=李正河(44·양복1급기능사보)林亨根(26·타일2급기사)등 44명

◇외국인(가석방)=湯家越(中國人)張守義(同)

日、對韓經協2倍로
5년간 8億弗정도
日政府消息通 밝혀

【東京13日=聯】일본정부는 가능한 한국에대한 경제협력의 범위를 현재 일본이 매년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연간 1백90억엔(약 8천만달러)의 약 배의 수준으로 잡고 5년간에 8억달러정도에서 한국의 협력요구에 응한다는방침을 굳히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소식통은 13일하오 현재 일본의 對개발도상국원조의 기준이『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미만의 나라에 연1백억엔선의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돼있는 만큼 1인당 국민소득 1천5백달러를 넘고있는 한국에 이기준의 4배가되는 5년간 8억달러를 고려하고 있는것은 파격적이라고전하면서 이 이상의 수준은 현재의 일본의 실정으로보아 무리라고말했다.

"北傀 單獨전쟁도발 能力"
日防衛白書
自由수호 愛國心강조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오오무라(大村) 방위청장관은 14일 오는 81년도 방위백서를 발표『북한이 70년대군사력을 대폭증가하여 외국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일정기간 한국에 전쟁도발을 할수있는 능력을 갖고있다』고 경고했다.

이 방위백서는『북괴가 보병의 장비현대화와 기계화를 추진했으며 渡江능력 향상과 10만명에 이르는 제8특수군단의 비정규부대를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현정세로보아『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의하나』라고 강조했다.

오오무라장관은『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미국이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폐기하고 한국에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의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오무라장관은 소련이 최근 극동군의 군사력을증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침공등으로 일본에대한 잠재적인위협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자위력의증강과 자유주의 국가체제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요청된다고강조했다.

日公明黨 代表團
來25日 韓國방문

【東京13日=聯】일본의 제2野黨인 公明黨은 13일 다케이리·요시카스(竹入義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黨대표단을 오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한국에파견하기로정식결정했다고발표했다.

公明黨은 이제까지 한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온 다케이리 위원장이 지난72년北韓을 방문한적은 있으나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창당17년만에 처음이다.

다케이리위원장은 訪韓기간중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3부요인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강화문제에관해 논의할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公明黨이 親韓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본 야당들의 對韓자세에 커다란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在日同胞 15명叙勳

정부는 제36주년 光復節을 맞아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 고문 丁贊鎭씨에게 국민훈장 牡丹章, 在日대한체육회이사 朴鍾大씨에게 국민훈장 冬栢章을 수여하는등 15명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牡丹章▲丁贊鎭(民團중앙본부고문)▲金坪珍(民團″東京본부고문)▲李鍾浩(民團東京본부단장) ◇冬栢章▲朴鍾大(在日대한체육회이사)▲孫道洲(民團東京본부감찰위원장)▲盧敦赫(民團산다마지부단장)▲張斗會(民團大阪본부단장)▲邊基柱(民團大阪본부감찰위원장)▲李圭性(民團京都본부고문)▲趙連湜(民團長崎縣본부고문)▲李根馥(民團가나가와縣본부고문)▲姜文準(民團廣島縣본부의장)▲金又粉(民團大阪부인회고문) ◇木蓮章▲金亨順(신용조합大阪興銀이사)▲趙仁石(民團長野縣본부감찰위원장)

社会漫評

많이 자랐구나…

税務員피살、請負殺人이었다
商人이 附價稅추징에 앙심
친구·下手人등 5명 檢擧

서울北部세무서 부가세과 주사 裵貞根씨(40·서울西大門區北加佐洞335의33)피살사건은 부가세추징에 앙심을품은 상인이 연출한 청부살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東大門경찰서는 사건발생 14일만인 13일하오 裵씨살해를 청부한 鍾路4街 광장시장 지상가 A동 동우직물 주인 金光源(35)과 청부를 맡은 金의 친구 李岩(36·서울中區乙支路2街195의12·진양부동산)、살인의 하수인 金明煥(22·주거부정) 崔春燮(26·″)李文榮(26·″)등 5명을 검거하는데 성공,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살인·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부터 숨진裵씨에 대한 주변수사에서 세금징수업무에얽힌 원한관계의 범행이라는데 심증을굳히고 裵씨가 맡았던 광장시장 일대의상인을 중심으로 집중수사, 사건을 해결해낸 것이다.

경찰은 범행현장의 목격자로부터 하수인들이 범인과동일인임을확인했고 범행때 입었던 베이지색 바지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租稅抵抗 아니다"
金국세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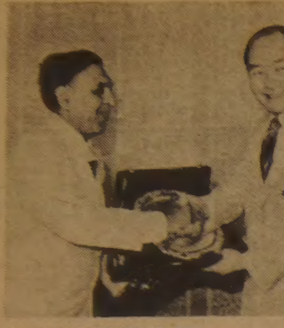
金壽鶴국세청장은 지난 7월30일 중부지방국세청 북부세무서 裵貞根씨 피살사건이 세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해 앙심을품은 납세자의청부살인이라는 점에 유감을표하고 그러나 이 사건이 정신파탄적이고 지각없는 범행일뿐 租稅抵抗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金청장은 14일 故裵貞根세무주사의 순직에대하여 모든 세무공무원과 더불어 조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고인에대해서는 1계급특진追敍를 올릴 방침이며 세무공무원 공제단체인 稅友會를통해 유자녀교육및 유가족생계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얼굴들이 請負殺人犯

◇경찰에 검거된 세무서원 청부살인범들. 왼쪽으로부터 살인을 부탁한 상인 金光源, 해결사 두목 李岩, 裵씨를 칼로찌른 하수인 金明煥, 崔春燮, 李文榮.

「國際團合賞」 전달받아
全대통령、印심사위원등 3명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4일하오 청와대에서 발데브·라즈印度 國家團合會이사장및 上下院 의원인 이단체의 심사위원 2명의 예방을받고 이단체가80년도중 국제사회에 현저히공헌한 세계적 인물에게주는賞의하나인 國際團合賞을 전달받았다.〈사진〉

발데브·라즈이사장은 이자리에서 최근실시한 여론조사결과 全대통령이 80년9월 이후 한국의 국내안정과 평화구축에 공헌하고 경제성장을 이룩, 東北亞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것이 확인돼 주로 印度上下院의원으로 구성된 이 단체의 심사위원회가 東北亞지역 국제단합상 수상자로 全대통령을 선정하게됐다고 수상경위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全대통령이 카터前美대통령과 슈미트西獨수상등 8명의 세계지도자와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한 세계적인물로 선정된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및 번영을 위한 全대통령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았기때문이며、특히 1·12및 6·5제의등 한국정부의 평화통일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은평가를 받고있는데 비해 北傀의 허위평화선전책동이 전적으로 외면당하고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루前수상의 평화및 국제이해에 관한 이념을 구체화시키기위해 국회의원및 언론인으로 구성돼 설립된 이국가단합회는 국제단합부문수상자로 全대통령을 비롯 슈미트西獨수상등, 세계평화부문에 차우세스쿠 루마니아대통령, 국제이해부문에 카터前美대통령과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등을 각각수상자로 결정, 이같은 사실을 지난7월27일 駐印度 한국대사관에 알려왔었다.

鳳凰大旗 高校野구

오늘의 対陣 (15일)

▲2회전
▲仁川高—浦鐵工(10시)
▲慶北高—中央高(12시반)
▲全州高—冲岩高(3시)

어제의 戰績 (14日)

▲2회전

팀	1	2	3	4	5	6	7	8	9	計
培文高	0	0	0	0	1	0	0	…	0	1
釜山商	0	0	1	0	0	0	0	…	1	2

〈계속경기·연장15회〉

팀	1	2	3	4	5	6	7	計
春川高	0	0	0	1	1	0	0	2
普成高	2	0	1	0	0	4	2	9

〈7회콜드게임〉

팀	1	2	3	4	5	6	7	8	9	計
世光高	1	0	0	0	0	0	0	1	2	4
馬山商	0	0	0	0	0	0	2	1	0	3
公州高	0	0	1	1	1	0	0	0	0	3
聖光高	2	1	0	0	3	0	0	0	X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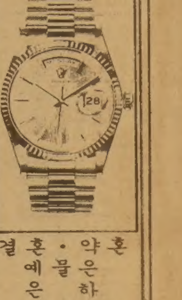
地平線

남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사춘기 때부터라고한다。각각 다른 성호르몬의 마술때문이다。남자는 근육이 붙어나고, 여자는 지방이 붙어나 어른이 됐을때 남자는 근육 40%에 지방 15%, 여자는 근육 23%에 지방 25%가 된다。남자처럼 근육을 키우기위해 일부 여자 운동선수들이 남성 호르몬을 먹는 일이 있다고 말썽이 되는것도 알만한 일이다。▼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여자선수라도 남자선수보다 한발 뒤지게 마련이다。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여장부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역사가 그래서 생겼다고 주장하고있다。그러나 최근에는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난다는 이론이 관심을 모으고있다。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과 지방의 양이 다르듯이 머리의 구조도 다르다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남자의 뇌는 시각적으로 공간을 보는데 뛰어나게 돼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수학을 잘한다는 이론이다。이에 대해 여자의 뇌는 언어능력에 뛰어나게 돼있다한다。이런이론도 남성지배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못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있기는하지만 이젠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이론이 지금 한창 관심거리가 되고있다。▼남녀의 차이가 불평등과는 다른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家父長사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다。여성천국이라는 미국을 보더라도 직장을갖고있는 여자들의 살림을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23분이다。이에 비해 남편들은 평균25분을 집안 일에 소비하고있다。가정주부의 절반인 2천5백만명이 이런 2중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지금 16세 이상의 여자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터에 나가 일하고 있다。하지만 살림과 직장이라는 고된 일도『남편이 알아주기만하면 된다』고는 말하고있다。근육으로 뭉친 남자가 공격과 경쟁과 모험을 상징한다면 보드라운 지방으로 아기를 감싸는 여자는 사랑과 평화와 보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여자경찰관이 되겠다는 아가씨들이 몰려들고있다한다。80명을 뽑을예정인 서울시경에 지원자가 자그마치 6천14명、75대1의 경쟁률이 됐다는 소식이다。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여성들이 제복을 입고나서면 같은「지팡이」라도 한결 부드러울게 틀림없다。경찰의 이미지를 좀더 시민에 친근감이 가도록 하기위해서도 반가운 일이다。경찰병력이 1백% 여자로 될수있다면 더욱 좋을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1
은 : 온스당 US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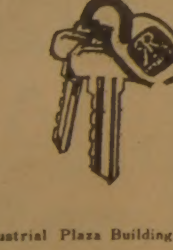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청록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363－6077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어린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제1회
대학생음악회

Notes of Autumn

한인대학생합창단
지휘 : 김인안(Nancy Kim)
반주 : 김현옥(Maureen Kim)

신성하 : MEZZO SOPRANO독창
반주 : Suzanne Azar

신수명 : 피아노 독주

1981년 9월5일 토요일 8시

GREAT HALL, HART HOUSE
UNIVERSITY OF TORONTO

"美·蘇 頂上회담 열자"

레이건、브레즈네프에 親書

"武器감축방안등 論議"

西歐의 中性子彈항의에 非難도

◇레이건

◇브레즈네프

【샌터바버러(캘리포니아州)13日聯合·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소련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 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에게 친서를 보내고 세계평화유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美·蘇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고 13일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샌터바버러목장에서 감세안및 연방지출삭감안에 서명한후 가진 즉석기자회견을통해 소련이 『인류역사상 최대의 군사력증강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브레즈네프에게 양국정상회담을 개최, 무기감축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정부가 분명한 제안들을 마련할 때까지는 정상회담을 갖지않을것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합법적인 무기감축안을 마련할경우 기꺼이 브레즈네프와 만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친서의 전달시기나 美·蘇정상회담개최시기 그리고 친서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응답여부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지난주 미국의 中性子彈생산결정에 대한 소련의강한 반발을 예상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은 『현재세계역사상 최대의 군사력증강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공격적」인 성격을 띤 무력증강』이라고비난했다。

그는 또 자신의 중성자탄생산결정에 항의, 각종 데모를 벌이고 있는 서구의 각단체들을 비난하고 이들중 일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군사력강화계획을 공격하는 소련의 선전을 듣고있다면서 소련은 지난78년 카터前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계획을 막기위해 서구에서 1억달러의 선전비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美관제사 支援보류

국제聯 레이건에 協商촉구

【워싱턴·암스테르담13日UPI·聯合=聯合】국제항공관제사연맹(IFATC)은 13일 진행중인 미국관제사들의 파업에 동조하기위한 조치를 일단 보류하고 레이건 美대통령에게 관제사들과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라고촉구했다。

렌츨러회장은 집행이사회의가 IFATC산하 세계61개국 관제사협회에대해 미국항공기에 대한 관제거부를 하지말도록 요청했다고말하고 이와관련 포르투갈 항공관제사들이 다음주부터 7일간 실시하려던 미국행항공기관제거부위협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미국관제사들의 파업에 동조하여 관제업무를 거부했던 캐나다및 일부국가관제사들의 태업중지로 대서양항로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취해진 이날의 IFATC조치는 對美관제사지원을 보류함으로써 그들에대한 일대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連行되는 中性子彈 반대데모 청년 美國과 소련의 中性子彈生産결정에 반대하여 13일 뉴욕중심가에서 데모를벌이던 한청년이 경찰에 이끌려 연행되고있다。【뉴욕13日AP電送=聯合】

美·蘇정상회담 早期개최 難望

【샌터바버러(캘리포니아)14日聯合=聯合】미백악관관리들은 14일 미·소정상회담의조기개최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관리들은 세계평화유지방안을 둘러싼 소련과미국간의 견해차가 현재로서는 너무 벌어져있어 미·소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레이건행정부 출범(1월20일)직후 제의한 미·소정상회담을 거부했었다。

中共최대 海底油田 南支那海서 발견

【홍콩13日聯合=聯合】南支那海의 珠江입구에서 중공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해저유전중 가장 매장량이 많은 해저유전이 발견됐다고 13일 홍콩의 文匯報와 新晩報가보도했다。

이들 신문들은 이같은 사실이 중공의 지질조사단의 수년에 걸친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하고 廣州시에서 약2백㎞ 떨어진 珠江입구의 江床은 泰嶺산맥이남의 제일 큰 분지라고 설명했다。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년에 보는 「逆調」의 實相 <9>

文化

言語·도서·歌謠등 倭色범람

文化의 解放은 아직 못이뤄

植民史觀탈피 傳統바탕한 대등한 交流이뤄야

『마치 고향에 돌아온듯한 기분입니다』-이것은 지난7월 여름방학을 이용, 우리나라 역사유적지를 두루탐방하고 돌아간 일본오오사까의모모야마(桃山)학원대학의 한 학생이 돌아가기 직전에 한 말이다。

좋게 해석하면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실을 한국에 와 다시한번 깨달았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일본과 비슷한데가 너무나 많아 외국같은 느낌이 들지않았다는 뜻이다。 이 학생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는 알수없지만 후루사또(고향)란 일본말을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옛모습을 한국에서 찾아볼수 있었다는 뜻을 담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일제 35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나라를되찾은 36년동안에도 일본문화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사실이 이 학생의소감을 간접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하는 것인지 모른다。

1945년 일제의 압정에서 「정치적해방」을 얻은후 지난36년동안 「문화적해방」마저 구가했는지 우리는 8·15해방36주년을 맞은 오늘 곰곰 음미해봄직하다。

해방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아온것이 사실이다。 문화는 강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는것이 원칙이라면, 이런영향은 不可避의 것이었을까。

해방후 미국에서 돌아온 李대통령은 「反日」이란 높은 담을 쌓고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활용해야만 했던 중견간부들은 거의가 일제의 교육을 받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이라 묘한 이중구조의 틈바구니속에서 「일본의 영향」은 계속 힘을발휘해왔다。

이같은 「일본의 영향」은 65년 韓日국교정상화와 함께 봇물이 터진듯 맹위를 떨쳤다。 「문화교류」라는 이름을 빌기는 했지만 거의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조」였다。

우선 일본어라는 말에서 그 바탕을 찾을수 있다。 우리말속에 파고든 일본어가 약1천5백단어에 이른다는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영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범람하는 일본잡지나 전문도서는 말할것도 없고 일본유행가레코드, 일본영화에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日語入門書가 잘팔리고 일본웅식점·일어강습소가 급증하는 것도 어느의미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는점도있지만 기성세대의향수와 젊은세대의호기심이 작용한것이다。

이에비해 일본사람의 한국문화에대한 이해는 인색하기만 하다。 「한반도 남부에서 任那日本府경영」, 「百濟로부터의 조공」, 「神功황후의 신라정벌」등 학문적으로 허구성이 많은, 이른바 식민사관의 어둡잖은 우월감은 전혀 해소되지않았다。

일본자신의 모순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같은 植民史觀은 지금도 많은 일본학자들의 머리에 박혀있다。 앞에 든 예말고도 조선말기의 한국은 10세기의 일본 平安朝때의 수준과 비슷하다는 「停滯論」, 한국사는 대륙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벌인 파동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滿鮮一體」등도 다 植民史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35년간의 한국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망상이 아직도 사라지지않고 있는 것조차 皇國史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역사학자 하다다·다께시(旗田巍)는 그가 편찬한 「韓國의 歷史」란 책 첫머리에서 『古代 일본이 한국의 남부에 任那日本府를 두었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일본의 한국점령에 대한 예찬은 줄어들었지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낡은 史觀이 남아있다』고 시인하고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0년대후반부터 우리의문화상을 정립, 대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문화교류를 모색 해야 한다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극히 미미하게나마 일제35년의 찌꺼기인 植民史觀의 그늘은 사라져 가고 있는중이고 일본학자들 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 문화의 역조현상은 너무나도많다。 일본어, 일본도서, 왜색가요, 일본상품의 범람을 제쳐 놓더라도 우리안방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는 TV프로의 상당부분이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일본TV프로를 그대로 옮겨다놓은 것은 수없이 많다。 TV광고도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종교공세도만만치 않다。 創價學會, 천리교는 꾸준히 교세를 늘려 일본천리교본부에서는 한국의 교세가 60만명이나 된다고 터무니없는 숫자를 늘어놓을 정도다。

이에비해 우리문화의 일본진출은 미약하기만 하다。 [illegible] 고류는 우리가 일본보다 좋은 전벽을 쌓고 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그나마 우리문화의 일본진출은 60만재일동포를 디딤돌로 한것으로 일본국민에게 준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층이 두터워가기만 하는 문화교류의 역조를 해소하는 길은 우리문화의 좋은 뿌리를 찾아 단단히 무장,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교류를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되찾는것뿐이다。

【文化部 李炳日가자】

◇宗敎까지 파고든 日文化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본의 創價學會(日蓮正宗)와天理敎및교리서。

日방위청 81년도 防衛白書

해설 日安保에 韓半島중요성 認識

14일 발표한오오무라(大村) 방위청장관의 81년도방위백서는 북괴의 대폭적인 군사력증강과 함께 소련의 극동군사력의증강에 대처하기위해 일본방위력을 증강해야한다는 국민여론유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방위백서는 북괴가 70년대부터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하여 북괴단독으로 남침이 가능케됐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일본의 안정과 평화에직결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년의 방위백서는 예년과는 달리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따른 잠재적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자위력의증강은 물론 국가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을 강조한데 그특징이 있다。

소련의 군사증강이 이대로 계속되면 80년대중반에 가서는 미국을 능가하게되며 소련이 미국을 군사력면에서앞서게될때 서방진영국가의 안정과 평화는 흔들리게될것이라는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백서는 「방위라는 개념은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것 이외에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국민에게 그것을 실현하기위한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국가체제, 바꿔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하여 독립과평화를 지키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서는 군사력증강은물론 애국심의 발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위백서가 국가유지의 정신적인 지조인 애국심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때문에 보수우경화로 달리고 있는 스즈끼내각은 레이건 미 대통령과의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정지작업을 하는것으로 평가할수 있다。【東京=宋孝彬특파원】

召喚받은 波제1서기·首相 금명간 蘇방문

【바르샤바13日UPI=聯合】폴란드공산당제1서기 카니아와 수상 야루젤스키는 13일 소련으로부터 소환령을 받고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폴란드국내사태를 논의하기위해 금명간 소련을 방문할것으로알려졌다。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이들 2명의 최고위폴란드지도자들이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매우 가까운 시일안에 모스크바를방문할것』이라 전했으나 이들의 정확한 방소일자와 기간등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카니아와 야루젤스키에 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訪蘇초청은 소련이 소련군의 전투협력 개선을위해 오는9월4일부터 폴란드에 인접한 소련영토와 발트海에서 일주일간의 예정으로 대규모군사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것과 동시에 이루어진것인데 관측통들은 소련의 이같은 대규모 군사기동훈련과 카니아및 야루젤스키에 대한 『소환령』이 폴란드 국내사태의 급격한 악화와밀접한연관이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

蘇、波접경지역 3軍 합동훈련

【모스크바18日聯合=聯合】소련은 오는9월4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주변지역에서 陸·海·空3군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며 이훈련은 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원수의 직접지휘하에 이뤄질것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관용 타스통신은 약1주일간 벌어질 이번기동훈련에는 소련군만이 참가하며 훈련은 발트 海와 동쪽으로 폴란드와 접경하고있는 白러시아지역일대에 걸쳐 실시된다고보도했다。

우스티노프가 지난76년 국방상에 취임한 이래 이같은 기동훈련을 직접지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蘇、새宇宙조약提議

武器外界배치·他國우주선 공격禁止등

【유엔본부13日AP=聯合】소련은 13일 각종 무기의 외계배치및 타국우주선에 대한 공격행위를 일체 금지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9개항의 우주조약을 체결할것을 제의했다。

그로미코 소련외상은 이날 새로운 9개항의 우주조약초안과 함께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기권·우주·해저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키로한 1963년도의 조약및 지구궤도나 달을 포함한 天體에 파괴용무기를 배치하지않기로한 67년도의 조약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기가 우주왕복선에 의해 우주에 배치될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미코는 오는 9월15일 열리는 유엔총회를 앞두고제출한 새로운 9개항의 우주조약초안에서미우주왕복선을 간접지칭하면서 『최근개발된 유인우주왕복선』이 우주무기적재용으로 사용될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中性子彈 국내만配置

美國防省고위官吏 각국의 反核물결에

【워싱턴14日UPI=聯合】미국정부는 최근생산비축키로 결정한 중성자탄을 유럽에 배치하지않고 미국내기지에 영구배치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리처드·펄국방성국제안보문제담당차관보가 13일밝혔다。

펄차관보는 이날 한전화회견에서 아직 구체적인결정이 내려진것은 아니나 위기가발생하기까지는 중성자탄을 미국영토내에 배치하는것이 군사적 정치적 이유에서 볼때 유럽배치에 대한 효과적인대안이 될수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펄차관보는 『레이건행정부가 중성자탄을 실전배치키로 결정한후 자국내에 중성자탄기지를 두는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라는 생각이 대두됐다』고 말하고 미정부가 중성자탄배치기지를 일단 미국영토내에만 설치하기로 결정할경우 이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것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아리

『아무리 슬퍼도 살아남보다 더 슬픈것은 없다』고 중국의 「雜辭」에 적혀 있다。 杜子美는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 없다』고 한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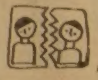
8·15는 이민족에게 광복을 안겨 주었고 38선과 휴전선은 우리에게 쓰라린 「이산의 고통」을 남겼다。 紅顔이 백발이 되는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도 단 한번의 만남은 커녕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과 친족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

한국일보는 60년대초부터 16년간에 걸쳐 가족찾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지금도 많은 애독자의마음속엔 「10만어린이 부모찾기」 「부모형제 친족을 찾자」 「1천만 이산가족·친지를 서로 찾자」는 캠페인구호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을것이다。

1974년 정초부터 시작, 2년2개월 계속된 세번째 캠페인에서만 1백64건의 가슴뭉클한 극적 상봉을 우리는 감동깊게 지켜 보았다。

생이별의 비극은 국내에만 있지 않다。 일제하에서 강제로 헤어져 아직까지 고국을 찾지 못하는 동포가 중공과 소련에 흩어져 산다。 간간이 들려오는 「사할린의 望鄕」도 결코 잊을수없다。 관혼상제도우리고유의 전통을 지켜가며 모국에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사모관대는 없지만 청실홍실을 엮어 폐백례모를 기념하는 혼례식 사진도 고국에 전해진다。 망자를 쏙 한 서린 이국의 장례식 모습도 볼수 있었다。

모국을 그리는 이들의 향수는 1976년 봄·가을엔 단식과 데모로 귀환요구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海外의「離散」

사할린뿐 아니라 중공과 소련 곳곳에서 우리동포들은 모국을 그리며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가족과의 상봉까지는 바라지도 못하면서 서로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려는 편지가 지금도 끊임없이 날아든다。 중·소 이산가족협회엔 지난4월초부터 지금까지 1백55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왔다고 한다。

「우리몸이 나뉘어 생각하며 사느니보다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별이 되자」고 시인 李相和는 이별을 통곡했다。 바라보는 별이라도 되고파 하는 해외 이산동포들의 눈망울을 광복절 아침에 다시 기억해 두자。

日 防衛정책 전면再檢討

蘇軍팽창대처…特委구성

【東京13日聯合=聯合】일본집권자민당(LDP)은 13일 현방위정책을 전면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민당간부들은 호소다(細田吉藏) 前방위청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소련의 군사력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시켜야한다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민당의 기존안보문제연구위원회의 산하기구로 발족할 이위원회가, 특별한목표를 설정하지않은채 소규모제한공격에 대한 저항능력보유를 규정한 1976년의 방위대강의 재검토에 초점을 둘것이며 방위비지출을 국민총생산(GNP)의 1%미만으로 유지한다는 1976년이후의 自民黨 방위정책문제도 재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오로2世 퇴원

【로마13日UPI=聯合】지난5월13일 성바오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 휴유증으로로마의 제멜리병원에 입원가료중이던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이제 완전히 회복돼 14일 퇴원할 것이라고 바티칸 교황청이 13일밝혔다。

◇가정·학교용 小型 컴퓨터 컴퓨터제조회사인 IBM이 선보인 가정및 학교용 소형컴퓨터。【뉴욕13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美, 警報機사용검토

★大西洋횡단航路인도위해

美국방성은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관제사들의 미국행여객기관제거부로 美-유럽간의 주요한 2개항로가 폐쇄될것에 대비, 대서양횡단항공편의 항로인도를위해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의 사용을 검토했었다고 국방성의 한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벤저민·웰버스 대변인은 AWACS의 사용이 美-유럽항공로폐쇄시 채택될 여러가지 대안중의 하나였으나 캐나다 관제사들이 관제거부를 중단함에따라 이대안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UPI】

오늘의 歷史 <15일>

- ▲파나마운하 개통 (1914)
- ▲日, 무조건항복 발표 (1945)
- ▲印度, 獨立 (1947)
- ▲大韓民國政府 수립 (1948)
- ▲政府, 서울로 환도 (1953)
- ▲政淨法 時限만료 (1968)
- ▲남산1號터널 개통 (1970)
- ▲서울지하철, 수도권전철 개통 (1974)
- ▲朴대통령 저격미수사건 발생 (1974)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포적 중국음식. 뱅킷.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씌어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4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陳氏眼鏡公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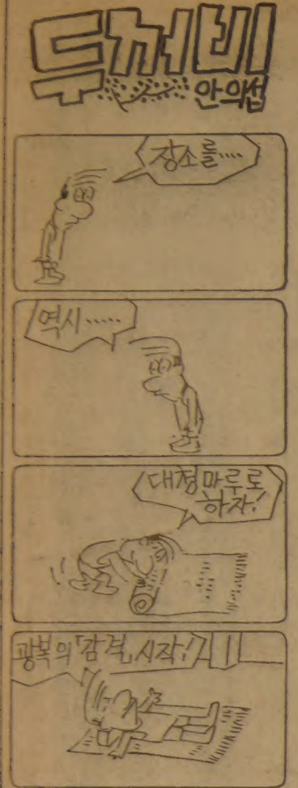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일~토 11AM~7PM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조카며느리 眞犯단정 증거수사

女申富피살 집서 패물10점발견…自白받아

서울龍山區元曉路1街10 여대 여갑부 尹景花씨 일가족 집단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龍山경찰서는 14일 범인으로 심증을 굳혔던 尹씨의 조카며느리 高淑鐘씨(46·서울城北區貞陵4洞290의41)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대로 사건전모를 발표키로했다. 경찰은 이날 高씨집에서 발견한 금팔찌·금반지·손목시계등 3백40만원 상당의 尹씨의 패물10점과 高씨의 지시로 장녀美環양(19)이 영동지역공터에버린 尹씨의 손지갑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나 高씨가 진술을 번복할것에 대비, 尹씨집대문의열쇠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고있다.

경찰은 사건발생직후부터 尹씨의 측근인 高씨를 유력한용의자로 지목, 신병을 계속확보한채 혐의사실을 계속 캐왔는데 그동안 범행을시인했다 번복하는등 횡설수설해 답보를 거듭하다 13일밤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는것이다.

高씨의 자백에의하면 지난달22일 高씨는 숨진 尹씨등과 忠武路진고개식당에서 식사를한뒤 하오4시께 貞陵집으로 돌아와 밤색원피스로옷을갈아입고 티셔츠등 간단한 옷가지를 미리준비해 외출했다.

이날 하오8시께 元曉路 尹씨집에 도착, 尹씨에게 아파트를 한채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망치로 尹씨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치고 이어 2층에서 내려오던 가정부 裵月延양(19)을 뒤쫓아 머리를 5번이나 쳐 쓰러뜨리고 2층에서 자고있던 양녀 수경양(6)의 머리도 망치로 쳐 숨지게 했다는것.

高씨는 尹씨가 피를 흘리며 굼틀대자 뒤뜰에 있던 나일론 빨래줄과 전기줄을 끊어 이들 3명의 목을 다시한번 조른뒤 대문열쇠를 채우고 나와 피묻은 스타킹 슬리퍼·열쇠등을 靑坡洞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오11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와같은 高씨의 자백에따라 경찰은 지난13일새벽1시 高씨집을 수색, 안방 이불장속에 있던 베개속에서 숨진 尹씨의 패물인 금팔찌1개, 금브로치2개, 금반지2개, 백금반지2개등 10점을 발견했다.

경찰에의하면 高씨는 이패물을 헌양말에넣어 베개속에 집어넣어 다시 꿰맸다는것.

高씨는 이패물이 사건현장 발견다음날인 5일상오8시께 남편 尹永培씨(48)와 남동생 高錫旭씨(37)와 같이 尹씨집에 들어갔다가 분실될까우려돼 보관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당일은 현장검증으로 출입이통제돼 이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찰은 高씨의 자백에 따라 美環양이 지난23일 낮 영동지역의 빈터에 버렸다는 尹씨의 가죽손지갑도 찾아냈다. 高씨는그동안▲22일하오8시부터11시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못하고 ▲尹씨의 참변현장이 발견되기 하루전인 지난3일낮 조계사앞다방에서 만난 金모스님(34)에게『尹보살이 일본으로여행가 1개월후에나 돌아올것』이라고말했고▲尹씨의 가출을 경찰서에 전화로신고할때 20일로 2일앞당겨신고했으며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원한을 갖고있었으며▲매월25일전후 생활보조비조로 7만5천원을 받아왔는데 7월에는 이를 받으러가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高씨는 계속범행을 부인해오다 알리바이등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지난10일께부터 부분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기시작, 13일에야 범행일체를 털어놨다는것.

그러나 경찰은 高씨의자백과 증거물로발견된 패물과지갑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판단, 사건해결의열쇠가 되는 대문열쇠와 피묻은스타킹, 슬리퍼등을 찾기위해 난지도일대를 수색하고 있는데 이같은 증거만보강되면 즉시 高씨를 강도살인혐의로, 高씨의장녀 美環양은 증거인멸혐의로 구속할방침이다.

◇高淑鐘씨

淑明女大 총장에 金玉烈 교수

淑明학원재단이사회(이사장 太完善)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淑明女大10대총장에 金玉烈교수(51·여·사진·정치학박사)를 선임,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충격의 稅務員살인 動機
下手人은 解決士조직

1차傷害, 2차犯行때 죽여
犯行뒤 유유히 海水浴즐겨

◇하수인 金明煥과 증거물로 압수된 범행당시 金이 입었던 베이지색티셔츠와바지.

◇金光源이 경영하는 廣藏시장의동우직물.

살인행위의 흉악성 보다도 범행동기에 더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던 세무서직원의 죽음은 예상대로「과세업무」와 관련이 있었다. 또 우리사회에 살인청부를 할수있을정도로「해결사」의 존재가 비대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사건수사에 나선 경찰은 처음부터 정확한 수사방향을 설정, 단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큰사건이 계속 미궁에 빠지곤하는 최근의 수사부진 이미지를 씻어주기도했다.

동기 포목도매상을하는동우직물 주인 金光源은 80년2기분(7월1일~12월31일)의 외형거래액을 北部세무서에 1억6천72만9천9백16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사찰결과 물품재고와 장부상 7백87만5천원의 차이가나 지난3월31일 94만5천원을 추징당했다. 金은 자신이 추징대상에들어간것이 담당세무원 裵씨에 의해서라는것을 확인, 서울中區忠武路에서고등학교2학년때부터 옆집에 살아알게된 해결사조직의 두목 李岩에게지난6월중순께 찾아가 억울하다고 호소『악질이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부탁했다. 金씨의 부탁을 받은 李岩은 살해할것을 부하들과 모의하여 실행에 옮겼다.

범행 청부를 받은 폭력배 李岩은 부하 金明煥, 崔春燮에게 裵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사건당일인 지난달 30일 하오6시께 金과 崔는 길이 25㎝의 단도를 각각 숨겨가지고 세무서앞에 도착, 金은 정문에, 崔는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해다방입구에서 기다렸다. 이 裵씨가 정문을 나서자 金이 裵씨를 미행하면서 崔에게 수신호를 해 정문에서 10여m 떨어진 우림주차장앞에서 앞뒤를 막아선 후 崔가 裵씨의 오른쪽 얼굴을 치고 金은 단도를 꺼내 裵씨의우측배부분을 2회찔렀다. 각각 반대방향으로 헤어져 金은 해다방옆 골목으로, 崔는 세무서옆 골목으로 달아났다.

이보다앞서 이들은 두목 李의 지시에따라 裵씨에게일차 린치를가한일이 있었으나 그당시 폭행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제2의 폭행을 가한것이 살인이 된것.

두목 李는 상인 金의 부탁을받고 裵씨에게 폭행을가할것을 지시, 金과 崔는 지난 7월9일 하오 7시께 세무서 정문부근에서 裵씨의 퇴근을 기다리다 미행했으며 中區 舟橋洞154의2 일식집 日峰에서 광장시장 나구B동 공평과세협의회 회장 崔永洙씨(47) 등 4명과 식사를하는것을 확인했다.

연락을받은 두목李는 일식집에 뛰어도착, 대주와생선회를 시켜먹으며 裵씨등을 감시하다가 식사가끝나려할때 먼저나가 부하들에게 손을흔들어 신호를보냈다. 崔가 裵씨의얼굴을 주먹으로때린후 다시발로허리를차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뒷날인 10일 두목李가 金에게연락,『폭행을했다』고알렸으나 12일가게 앞으로 아무런상처도없이 지나가는裵씨를 金이발견, 두목李에게『폭행을한것이아니잖는가』고 항의했다.

李와金은 그뒤7월20일 李의복덕방에서다시만나 제2차범행을약속, 살인극이 빚어졌다.

도주 범행후 金과 崔는 골목길을 빠져 梨花로터리와 鍾路6街에서 각각택시를 잡아타고 두목李의 진양복덕방에서 李又榮등과만나 피신했다.

金은 8월3일 열차로 公州、木浦、裡里에 내려갔다. 사건당일밤 열차로 裡里에 내려간 崔와 합류, 裡里근처에있는 동남저수지에서 텐트를치고 야영을하다 木浦를거쳐 15일 裡里로온 李又榮과 합세해 같이지내다 金과 崔는 남고 李又榮은 수사상황을 살피기위해 10일 상경했다.

한편 포목상金은 범행을하기전인 7월26일 고속버스편으로 大川해수욕장에 갔다가 지난2일 상경, 점포에서 일을 계속했고 두목李는 千戶洞자신의집에 숨어있다가 지난8월4일 설악산으로 피신한뒤 9일상경, 사무실에서일하다 13일 각각 검거됐다.

수사 이사건의 해결은 서울東大門경찰서 형사5반장 宋憲二경사(41)와 鄭洛鎔경장(46)羅泳鎬순경(39)、文太鳳순경(44)팀의 개가였다.

宋반장팀은 사건이 발생하자 숨진 裵씨의 세무업무를 둘러싼 원한또는 청부살인으로 단정, 裵씨가 서울北部세무서로 부임한 지난해9월8일이후 담당했던 4백여개업소를 대상으로 세금추징에불만을 품은 10여명을 집중수사끝에 金光源을 찾아냈다. 또 金씨의 친구 李岩이가 이름만 부동산업을 하고있으면서 실제로는 불량배로 조직된 해결사업을 중시, 7월9일 裵씨 1차폭행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차 폭행당시 현장을 목격한 元모여인(32)의 진술과 두목李의 부하 세사람이 평소 칼을잘쓴다는사실을확인했다.

범인들이 칼잡이인점을 감안, 카빈총과 전자봉등을 휴대, 범인들의 연고지에 잠복하던 경찰은 千戶洞집에숨어있던 李岩이가 평소 형 동생하며 지내는 宋모씨(32)를 전화로찾고 있다는 사실을확인, 먼저 宋씨를 검거했다.

宋씨가 경찰에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李岩이 東大門경찰서와 龍山경찰서에 문의전화를 하는것을 엮어 붙잡았고 李岩을 취조한결과 李又榮의 애인朱모양(23)이 서울鍾路區靈泉洞에 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사무소에서 9명의 동명이인을 추적, 朱양집에서 잠복하다 근처세운여관에서 李와같이있던 朱양이 옷을가지러 집에온것을미행, 李를 여관에서검거했다.

베일속의 請負金
"혼만내줄 생각이었다"

일문일답

◇金光源

—裵씨를 왜 죽이려했나.

▲부가세 신고때 외형거래액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裵씨는 그것을지적, 추징금을 내게한데 대해 원한을 품고 혼내주려 했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

—구체적 범행계획은 어떻게세웠나.

▲세금을 추징당한후 친구 李岩에게 새로온 세무원이골치아픈 친구인데 당했다고이야기하자 李가『혼내 주겠다』고말했다.

—1차폭행 했는데 왜 또 2차범행을 하려했나.

▲가게앞에 나타난 裵씨가 상처하나없어 李에게 따졌더니 다시 혼내주겠다고했다.

—裵씨가 살해된후의 심정은.

▲불안해 李岩등이 범행전부터 大川으로내려가 놀았다.

—현재의 심정은.

▲경찰이 집에 민닥쳤을 때 체념했다. 너무 큰죄를 저지른것같아 할말이 없다.

—왜 칼로 찔렀나.

▲돈도받고 형에게 잘보이고 싶었다. (金明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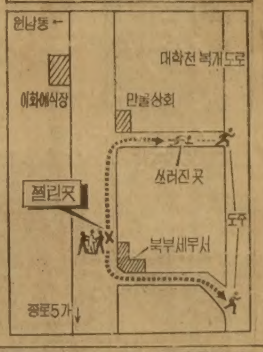
—청부살인의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했나.

▲형(李岩을 지칭)이 알아서 할것으로 생각했다. 돈을 기대하고한것은 아니었다. (金明煥)

청부살인 계보

진양개발 대표 李岩(36)	← 동대문시장동우직물 金光源(35)

무직 金明煥(23)	무직 崔春燮(31)	무직 李又榮(26)



돈만주면 뭐든지 척척

—稅務員 청부殺人한 暴力조직 解決士

3년前뿌리…惡性채무 해결

걸렸다하면 모두 벌벌, 申告도 못해

폭행·輪禍까지 닥치는대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해결사」라는 이름의 검은 손이 자리잡기시작한것을 알만한사람은 다알고 있었다. 그러나「살인청부」까지 맡을정도로 흉포、전문화돼있다는 점은 [illegible] 공갈、협박、폭력을 무기삼아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폭력조직자체가 생긴 것은 2~3년래의 일이지만 그뿌리를찾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깡패로 유명했던 李丁載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이후 이같은 해결사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던 80년이 피크를 이룬다.

이들 해결사들이 주로 맡는 일은 악성채무해결, 원한관계에 있는사람들 사이에서 대신 원한을 풀어주는일, 폭행사건, 교통사고등에 개입해 보상금을 받아주는 일뿐만아니라 심지어 가정불화에까지 개입해 돈을받고 소원을 풀어주기도 한다.

이처럼갖가지 복잡한 일에 개입하는 해결사들은 대부분이 폭력조직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illegible] 해결사조직이 검거된적도있다.

이들의 조직은 얄팍한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을 두목으로하여 폭력조직을두고 [illegible] 생리.

이번 사건의 경우 乙亥路2가 진양개발이란 복덕방간판을 걸고 부가가치세 추징관계로 세무공무원 裵씨와 감정이 있던 金光源(35)의부탁을 받은 李岩(36)이 두목이고 두목지시에 裵씨에게 폭행을가하고、백주에 살인까지한 金明煥(23)、崔春燮(26)、李又榮등이 그 하수인들。두목 李는 5~6명의 종업원까지둔 사무실에서 법망을 피하기위해 겉으로는 복덕방 간판을 걸고 지방의 미술품등을 사다 팔기도하고 사무실내에서 [illegible]을 해오면서 근본은 교묘히 감추었다.

이번 조직의 경우도 범인중의 李又榮은「삼례파」폭력단의일원으로 폭력전과자. 현재도 서울에는 세운상가、東大門시장、鷺梁津수산시장등지에서 해결사조직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물산간부등 3명이 해결사를고용、2억원의 빚을진 거래선을 호텔로 끌고 다니며 린치를 가하다 경찰에 검거되기도했고 延讚起씨(21)등 5명의 해결사조직은 신문에 민원사건대행、어려운일 해결등의 광고까지 내고 기관원을 사칭해 해결사노릇을하다 검거됐다.

일단 부탁만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해내는것으로 알려진 이들 해결사들은 보통 건당 일정률의 커미션을 받는데 李岩파도 경찰수사결과 裵씨살해사건 외에도 지난해 경기廣州郡에서 1억여원의 채권대신 땅을잡아주고 커미션을 받았으며、또 서울西大門區弘濟洞에있는 韓明리체육관도 채권자의 부탁을받아 폭력으로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珍洌기자】

旅券발급惡用말라 外務部

외무부는 14일 중앙청회의실에서 해외건설업체및 여권수속대행업체및 각市·道관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확대조치및 여권발급완화조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했다.

流星의 賦 <158>

李炳注 作
李友範 畫

山空花自紅 ⑬

[illegible]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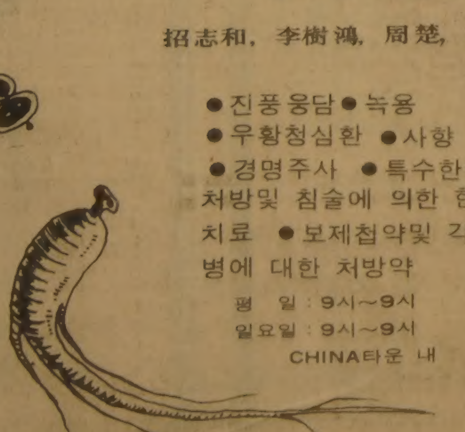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권 PETER CHAN 배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
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일요일 : 9시~9시
CHINA타운 내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 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世光、엎치락뒤치락 끝에 馬商격파 4—3

普成、春川高에 콜드게임勝 9—2

鳳凰大旗 고교야구

신생聖光高(대구)가 77년 대통령배를 차지했던 강호 公州高를 격파하고 봉황대기 16강에 도약했다. 1년생으로 구성된 聖光高는 14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9일째 2회전 경기서 12안타로 公州高를 맹공, 6—3으로 쾌승했다.

聖光高는 5회말 눈부신 기동력으로 더블스틸을 감행, 결승점을 올렸으며 선발투수 吳永錫은 8회동안 30타자를 7안타, 2희타, 1포볼, 5삼진, 3실점으로 선방하여 승리의 기틀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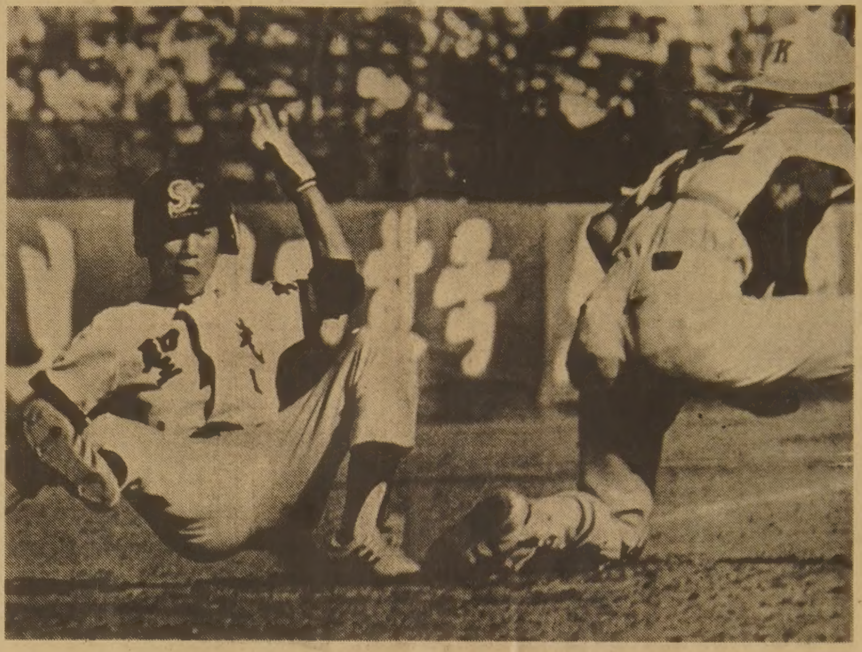
世光高는 역전을 거듭한 馬山商高와의 격전서 9회초 宋津宇의 동점타등 집중 3안타와 裵照爽의 결승타점 희생플라이로 4—3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普成高는 辛炳允의 역투와 13개의 안타로 春川高에 9—2,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한편 釜山商高는 전날 12회로 일시정지되어 이날 속행된 계속경기서 연장 15회말 연속안타와 培文高유격수 金鍾哲의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아 2—1로 신승했다.

무서운 新生팀 파워

大邱聖光、12安打로 公州 대파

吳永錫 好投、「全員1년생」16強돌입 6—3



◇더블스틸로 決勝點 결승점의 순간. 公州高—聖光高 대전 5회말 聖光의 4번 金永大가 스트라익 아웃되는 순간 1루주자 鄭炳卓과 3루주자 趙相憲이 더블스틸을 감행, 3루주자 趙가 홈을 밟아 결승점을 올리고있다.

聖光高—公州高

聖光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것 같았다. 고교1년생으로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매서운 방망이로 한때 고교정상에 올랐던 公州를 난타했다. 聖光은 1회말 1死후 2번 李鍾洙가 투수앞 내야안타를 때리고 3번 鄭炳卓의 땅볼을 公州투수 權榮福이 2루에 악송구 하는 사이 주자 1、2루의 찬스를 마련했다. 2死후에 나온 5번 崔一圭와 6번 吳永錫은 연달아 중전적시타를 날려 聖光은 1회말의 집중 3안타, 1적실로 2점의 선제타를 잡았다.

2회말에는 선두 8번 金盛洙의 우전안타, 2死후 李鍾洙와 鄭炳卓의 연속안타로 1점을 추가.

고교야구 초년병들에게 선제공격을 당한 公州는 3회초 1번 李揆英의 중월2루타, 4회초 6번 吳辰澤의 좌월 2루타, 5회초 李揆英의 우월3루타와 2번 河鎭植의 중전적시타로 1점씩을 만회, 착실한 반격으로 3—3의 동점을 만들었다.

3、4회를 조용히 보낸 聖光은 5회말 또다시 집중 3안타를 퍼부어 公州수비를 뒤흔들고 날쌘 기동력으로 연달아 홈을 밟아 6—3으로 승세를 굳혔다.

선두 1번 趙相憲이 포볼, 1死후 鄭炳卓이 우전안타로 나가 1、3루를 이루고 눈부신 더블스틸로 3루주자 趙相憲은 홈을 밟아 동점을 깨뜨리는 4점째를 기록했다.

2死후 5번 崔一圭가 公州 3루수 실책으로 살아 계속된 2死1、3루의 찬스에서 吳永錫과 7번 李律洛이 연속안타를 터뜨려 2점을 추가했다.

世光高—馬山商

世光은 馬山商을 만만히 보다가 혼이 날번했다. 주전포수이자 공격의 핵인 李想鐵을 벤치에 앉혀두고 1회초 3번 裵照爽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선제한 世光은 이후 일방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후속범타로 추가득점을 못해 애를 태우다가 7회말 馬山商의 반격에 몰리기 시작했다.

鄭福敏의 변화구에 눌리던 馬山商은 여러차례의 실점위기를 넘기고 7회말 적실로 역전찬스를 마련했다.

선두 5번 陳祥泰이 레프트플라이를 쳤으나 글러브 속에서 볼이 튀겨나와 진루했으며 보내기 번트로 2進, 7번 劉載寅이 포볼을 골라 1死1、2루를 이루자, 8번 崔洛基가 적시에 좌중월2타점 2루타를 날려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世光은 9번 金宰榮에게 장타를 맞았으나 중견수 鄭鋼燮이 펜스앞까지 쫓아가 타구를 잡아 2루로 연결, 병살로 위기를 막았다.

世光이 8회초 2死후 연속 포볼과 6번 李想鐵의 우전적시타로 2—2의 동점을 만들자 馬山商은 8회말 2번 田淇榮의 중전안타와 4번 白鎭承의 좌중월 2루타로 또다시 3—2로 앞섰다.

9회초 마지막 공격에 나선 世光은 선두 8번 郭英陳의 내야안타, 9번 鄭鋼燮의 보내기 번트, 1번 盧載龍의 좌전 적시타, 2번 宋津宇의 좌전적시타로 3—3 세번째 동점을 만들고 3번 裵照爽의 라이트 희비로 4—3의

鳳凰스타

攻守에공헌 찬스메이커

世光高 유격수 盧載龍

世光高 선봉장 盧載龍은 1회초에 선제점을 기록했고 9회초에는 또다시 결승점을 올렸다. 1회초 데드볼로 출루, 후속 땅볼, 스틸, 안타로 홈·베이스를 밟았으며 9회초에는 주자2루때 좌전적시타를 때려 2루주자를 3루로 보내는 찬스를 만든뒤 후속안타로 결승점을 올린것.

최근 슬럼프에 빠져 타격이 부진했으나 이날 馬山商과의 대전을 계기로 옛 배팅 실력을 되찾게 될 것 같다.

1m72, 65kg으로 1백m를 12초F로 주파하는 盧載龍은 빠른발을 바탕으로 유격수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있다. 이날도 9회말에서 馬山商3타자의 타구를 盧가 모두 여유있게 처리했다.

永同 이수국민학교때 야구를 시작, 永同中을 거쳐 世光에 진학한 盧는 3학년이 되는 내년에 공수의 핵으로 성장할것으로 기대된다. 농사를 짓는 盧錫씨(60세)의 3남3녀중 막내로 시간이 나면 무술영화를 즐긴다.

鳳凰관람석

日本서는 甲子園야구大會 한창

鳳凰大旗 처럼전국 49개팀 出戰

韓化 金昊中감독 兩國大會비교

서울운동장서 봉황대기 야구가 열기를 뿜고있는가운데 日本은 오사까(大阪)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는 고시엔(甲子園) 고교야구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해탄을 사이에두고 야구팬들을 열광시키고있는 봉황기와 고시엔 대회는 올해 참가팀수가 각각 49개로 우연의 일치를 보이고있다.

양국 대회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봉황기와 고시엔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日本프로야구선수로 7년간 활약했던 한국화장품 金昊中 총감독으로부터 들어본다.

고시엔 구장은 5만여 관중을 수용할수있어 봉황기가 열리는 서울운동장의 수용인원보다 2만명을 더받아들일수있는 규모다. 그러나 연일 관중석을 꽉메우는 열기와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 지방팬들이 몰려드는것은 두대회가 공통적이다.

대진방식도 똑같다. 매회 추첨으로 대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력외의 플러스 알파로 상위권까지 진출할수 있는 운이 작용하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봉황기에는 출전의사가 있는 팀이면 모두 서울운동장을 밟을수 있지만 고시엔대회의 경우 日本전역의 3천2백여 고교팀이 50개의 지역으로 갈라져 예선을 거친뒤에야 본선인 고시엔구장에 출전할수있다는 점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양국 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이다.

고시엔대회서는 결승타를 날리거나 수훈을 세운 선수들이 손을 높이 치켜들며 환호하는 모습은 거의 볼수 없다. 국내 선수들이 요란하게 양팔을 치켜드는것등은 日本 고교생보다 발랄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스탠드를 의식한 지나친 행동인것 같다는게 金감독의 의견. 또한 플라이성 타구를 날렸을때 우리 선수들은 아웃될것으로 앞질러 생각하고 1루쪽으로 천천히 뛰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타구를 잡은 야수들이 한껏 여유를 부려가며 1루수에게 송구하는 경향도 많다. 고시엔대회서는 이런 자세가 용납되지 않는다. 비록 아웃될 가능성이 많더라도 배팅을 한 타자는 최선을 다해 1루로 달린다.

이런 차이점은 국내고교선수들이 꼭 배우고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金감독은 강조했다.【[illegible]】

普成高—春川

봉황기 대회서는 春川이 普成에 9—7로 역전승. 그러나 홈그라운드서 벌어진 두번째 대결서는 普成이 9—2 7회 콜드게임으로 대승、설욕했다.

봉황기서의 앙갚음 이라도 하듯 普成은 1회말 선두 1번 申昇鉉의 우전안타、1死후 3번 鄭燦久의 좌전안타와 적실로 1점、4번 趙光文의 우중월 2루타로 또 1점을 뽑아 2—0으로 리드. 3회말에는 포볼과 趙光文、5번 崔欽植의 연속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普成의 기세에 눌려있던 春川은 4회초 선두 1번 鄭炳煥이 처음 내야안타로 진루해 유격수실책으로 2루까지 진출했으며 1死후 3번 [illegible]의 좌중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5회초에는 7번 張辰植의 내야안타와 2死후 鄭炳煥의 좌월 2루타로 3—2로 추격했다.

그러나 普成은 6회말 8번 辛炳允의 2타점 우전안타、3번 鄭燦久의 2타점 좌월2루타와 1적실, 2포볼、2도루로 4득점、승세를 굳히고 7회말 辛昇鉉의 좌중월 2타점 굿바이 2루타로 春川을 7회에 KO시켰다.

培文 15회말 自滅

釜山商 횡재로 3회전에

釜山商—培文高

1점의 승부를 위한 이틀에 걸친 연장 대결은 培文의 잇단 수비실책으로 싱겁게 끝났다. 연장 15회말 공격에 나선 釜商의 선두 9번 鄭志洋은 중전안타를 때리고 培文 중견수 金龍九가 나꾸하는 틈에 2進, 1번 姜秀原이 보내기번트친 볼을 14회말에 구원등판한 培文투수 金聖珍이 어물어물 하는 틈에 내야안타가 되어 釜商은 무사 1、3루의 찬스를 잡았다. 2번 宋沅倍가 풀·카운트의 씨름 끝에 내야 땅볼을 때렸으나 培文유격수 金鍾哲가 볼을 놓쳐 3루주자 鄭志洋이 무사히 홈인、결승점을 올렸다.

培文 역시 15회초 결정적인 득점찬스를 가졌으나 조급히 홈을 노리다 결승점을 놓쳤다. 1사후 4번 李次周가 데드 볼로 나가 5번 權五成의 보내기 번트를 잡은 釜商포수의 1루 악송구로 2、3루를 돌아 홈까지 달려들다 釜商 우익수 宋沅倍의 호송구에 걸려 태그아웃 당했다. 培文은 이경기서 고교야구서는 보기드문 트리플·플레이를 기록했으며 안타수에서도 13—10으로 앞섰으나 6개의 실책으로 자멸했다.

◇제9일 2회전

배문고 000 010 0……0 —1
부산상 001 000 0……1 —2 〈연장15회〉

▲배문투수=李明三 金聖珍(14회) 포수=高丁植 ▲부산상투수=李弦澤 포수=丁海德

춘천고 000 110 0 —2
보성고 201 004 2 —9 〈7회콜드게임〉

▲춘천투수=韓尙演 池泰永(6회) 포수=韓鳳圭 ▲보성투수=辛炳允 포수=韓萬征

세광고 100 000 012 —4
마산상 000 000 210 —3

공주고 001 110 000 —3
성광고 210 030 00× —6

▲공주투수=權榮福(1·5회) 崔鍾福(5회) 포수=吳辰澤 ▲성광투수=吳永錫 宋在渉(9회) 포수=金炳翼 ▲世光투수=鄭福敏(8회) 포수=郭英陳 ▲마산상투수=李承勳 金孝俊(1·8회) 劉載寅(6회) 포수=白鎭承

國際주니어陸上 오늘밤 開幕

亞洲서는 처음으로 12개국 2백34명 出戰

서울運서 2日間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주니어 육상대회인 81년도 서울국제 주니어 육상대회가 15일 하오5시 개막, 이틀간의 경기에 들어간다. 밤에 거행되는 이번대회에는 주최국 한국을비롯, 美國, 日本, 캐나다, 이라크, 홍콩, 케냐, 말레이지아, 泰國,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12개국의 2백34명 (임원39·선수1백95)이 출전한다.

한국、필드 投擲부문서 메달期待

남자 17개 종목, 여자13개 종목에 걸쳐 벌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필드, 남자 넓이뛰기, 부원반, 투해머등 투척과 필드 부문에서 메달 획득을 예상하고있다. 그리고 트랙 부문은 美國, 日本, 캐나다등이 각축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美國, 日本, 自由中國, 캐나다, 이라크, 케냐등은 수준급 선수들을 파견하고 있다.

대회 첫날인 15일에는 남녀 4백m, 남자 1백m, 남자 1천5백m, 여자8백m, 여자 1천6백m계주, 남자4백m 계주, 여자 높이뛰기, 포환, 남자 넓이뛰기, 여자투창 경기가 열린다.

優秀선수40명出戰 아마복싱대표선발

제10회 아시아아마복싱선수권대회 (82년3월·서울)와 월드컵 국제 아마복싱대회 (81년11월·캐나다) 출전 한국대표 최종선발전이 14일 장충체육관서 거행됐다.

◇준결승전적

▲라이트 플라이급 許永模 판정 金鍾沃 ▲플라이급 申昌石 판정 尹龍鎬 ▲밴텀급 張任鎬 판정 金龍鎬 ▲페더급 朴基哲 판정 金將範 池澤林 판정 陳幸範 ▲라이트급 曺圭男 판정 李泰來 ▲라이트웰터급 金東吉 2회기권 田鉉善 ▲웰터급 鄭鎔範 판정 宋仲鎬 梁殷錫 2회RSC 張潤鎬 ▲라이트미들급 崔宇鎭 판정 金秀永 尹永北 판정 朱恒宣 ▲미들급 李南儀 판정 金彰準 張漢坤 2회RSC 金峯哲

한국、쿠바와 再對決

大陸間컵야구 加쩌어準決勝올라

【에드먼턴(캐나다)14日 聯合】韓國야구대표팀은 15일상오6시(한국시간) 전대회우승팀인 쿠바와 제5회 대륙간컵야구대회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케됐다.

韓國대표팀은 14일 이곳에서 예선 리그 마지막 7차전서 崔東原의 강속구호투로 캐나다를 1대0으로 셧아웃시키고 5승2패를 기록, 3위를 차지하여 1위 쿠바와 준결승전을 갖게됐다.

美國—쿠바전서는 美國이 14대3의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둬 韓國·쿠바·美國이 5승2패의 동률을 이뤘으나 득실점차에 따라 쿠바1위, 美國2위, 韓國3위가 됐다.

◇예선리그최종일 전적

韓國(5승2패) 000 000 100 —1
캐나다(4승3패) 000 000 000 —0
쿠바(5승2패) 170 230 1 —14
美國(5승2패) 010 002 0 —3 (7회콜드게임)

花郞·불가리아 비겨

史上첫대결 趙廣來同點골

자카르타 蹴球예선

【자카르타=聯合】한국축구대표팀 花郞은 東歐공산국 불가리아대표팀과의 사상 첫대결에서 1—1무승부를 기록했다. 花郞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나얀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0회 자카르타 축구대회 B조 예선에서 후반전26분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37분에 HB 趙廣來의 통렬한 땅볼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 1—1로 비겼다. 이번대회에는 7개국 8개팀이 출전, A·B조 예선리그를 치러 각조 상위 2팀이 결승토너먼트로 패권을 다툰다.

한국은 불가리아, 프라타마(인도네시아) 泰國과함께 예선A조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선통과가 낙관적이다. 한국은 15일밤9시30분(한국시간)에 프라타마, 17일에 泰國과 예선2·3차전을 갖는다.

◇제1일전적 ▲A조 한국 1 (1—0)(0—1) 1 불가리아

후지필름 排球팀 日서 15일간轉訓

후지필름 배구단은 오는 16일부터 15일간 日本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 후지필름은 이기간중 日本 후지필름팀등과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사이클 伊轉訓 도로경기團體 1위

이탈리아에서 전지훈련중인 한국사이클 국가대표팀은 지난 11일 폴리스보트 티바시에서 열린 제2회 베르가모시장배 국제사이클 도로1백20㎞경기에서 단체1위를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사이클경기연맹에 알려왔다.

안수및 취임 예배

초대합니다

금번 런던한인장로교회에서는 캐나다장로교 런던노회 주관으로 새 교역자 신용규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과 취임예배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같은 경사를 맞아 런던주변의 모든 교민들을 초대하오니 부디오셔서 런던교민의 역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온 한인교회의 경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1년9월12일(토) 오후3시
장소 : 530 TOPPING LANE LON.
주관 : 캐나다장로교 런던노회

런던한인교회당회원드림

심령대부흥회

강사 :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1981년9월3일(목)~9월6일(주일)
장 소 : 런던제일장로교회
135 BRISCOE ST. E.
LONDON, ONT.
전 화 : (519) 439—6331(교 회)
(519) 686—6302(목사관)

시간안내 :
저 녁 : 목, 금, 주일(오후8시)
낮 : 주일 11시
영어설교 : 9월6일 오후3시

런던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장 희 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石炭·연탄값 引上

오늘零時…올들어 두번째

石炭6級기준 톤當 2萬9千8百80원

〈3.6kg 연탄한장 家庭渡〉

釜山	161원50전
大邱	156원
光州	156원
全州	156원

정부는 14일 零時를 기해 석탄가격을 15.81%, 연탄가격을 10.87%씩 각각 인상했다. 탄값은 지난4월19일 인상된후 올들어 두번째로 인상됐다. 석탄가격은 6급 1호탄 기준으로 톤당 현행 2만5천8백원에서 2만9천8백80원으로 15.81%인 4천80원을, 연탄가격을 3.6kg짜리 서울 家庭渡기준으로 개당 1백38원에서 1백53원으로 10.87%인 15원씩올렸다. 또한 4.5kg짜리(서울기준)는 개당 1백70원에서 1백89원으로 10.86%인 19원을, 4.8kg짜리(서울기준)는 1백81원에서 2백1원으로 11.04%인 20원을, 7.5kg짜리(전국기준)는 2백71원에서 3백2원으로 14.39%인 31원씩 각각 올랐다.

각도시 가정도가격은 공장도가격에 22원씩 일률적으로 가산, 배달해 주도록했다.

朴鳳煥 동자부장관은 지난 4월19일 에너지가격 전면재조정때 석탄가격의 인상요인이 30.4%이었으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만 현실화시켰고 나머지 인상요인과 그동안 발생한 인상요인을 이번에 현실화 시켰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당시 석탄가격과 함께 인상됐던 전기료·油類價를 반영치 않았으며 그동안 철도료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자재값의 인상으로 이번에 석탄값을 15.81%, 연탄값은 10.87%씩 인상시켰다고 덧붙였다.

朴장관은 석탄가격의 인상과 함께 炭質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가정용 高質炭에 대한 불리한 가격체제·발전용탄에 대한 불합리한 가격우대 정책을 개선, 연탄제조에 적합한 良質炭(6급2호, 7급1호)은 우대제를 폐지, 良質炭의 발전소 유입을 억제하고 연탄제조용 공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해서 炭質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번 탄가현실화를 계기로 정부는 기업이 맡아서 해야할 일과 정부가 지원해야할 일을 명백히 해서 석탄산업의 육성방향을 재정립 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정책을 통해 석탄산업에 대해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금까지의 복잡한 지원제도는 점진적으로 정비, 경상보조비는 줄여나가고 자본보조는 존치하되 생산기반의 확충과 시설현대화와 안전사고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석탄가의 하경기조정에서시로 석탄생산이 순조롭고 저탄이 늘고있어 금년도 越冬期중 석탄수급은 매우안정적이고 연탄값의 재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도시별 연탄 공장도 가격

도시별	현 행	조 정
서울	116.50	131.00
釜山	125.00	139.50
大邱	119.50	134.00
仁川	119.50	134.00
水原	119.50	134.00
議政府	120.00	134.50
春川	120.50	135.00
原州	120.00	134.50
江陵	121.00	135.50
淸州	120.00	134.50
忠州	120.50	135.00
大田	119.50	134.00
天安	120.50	135.00
金泉	121.00	135.50
浦項	125.00	139.50
龜尾	121.00	135.50
馬山	124.50	139.00
忠武	131.50	146.00
全州	119.50	134.00
群山	120.50	135.00
裡里	121.00	135.50
光州	119.50	134.00
木浦	126.50	141.00
麗水	125.50	140.00
濟州	132.50	147.00
西歸浦	132.50	147.00

동자부는 연탄의 도시별최고가격도 발표했는데 배달료를 포함한 3.6kg짜리 가정도기준으로 개당 釜山1백61원50전, 大邱·仁川·大田·光州·全州가 1백56원씩, 春川1백59원, 淸州 1백56원50전, 濟州 1백69원씩이다.

"利潤보장 石炭증산"力點

引上배경 12장쓰는집 月萬8百원 追加

이번炭價인상으로 석탄산업도 이제 최저한의 이윤이 보장돼 기업으로서 자율경영의 기반이 조성될수있는 계기가 됐다는점을 동자부는 강조하고있다.

누적적자가 2백67억원에 달해 국영기업체중 대표적인 不實企業이 되어 그동안 民營化를 위해 拂下說이 나돌던 石公도 올해부터 當期사업연도로 선赤字를 면케되었다는것이다.

탄가현실화의 기준인 石公의 재무구조가 이같이 전해진다면 대부분의 민영탄광들이 수지개선을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는것.

따라서 炭價의 현실화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채탄의 기계화, 안전사고방지, 原炭質의 향상등을위해 강력한 책임경영을 촉구해 나갈방침이다.

석탄산업의 육성과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가계의 부담을 고려, 이번 현실화조치가 기업과 가계에 다같이 이익을 가져오도록 행정지도를 펴겠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특정기업이 석탄으로 번돈을 流出시킨다는 혐의가 발견되면 앞으로 세무사찰의뢰도 不辭하겠다는 방침이다.

炭價의 분할인상으로 이번 인상이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624%(석탄 0.357%, 연탄 0.267%),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탄이 0.629%라고 한다.

그런데 3.6kg짜리 연탄을 하루 6개씩 사용하는 가정은 한달에 2천7백50원, 연탄보일러 사용가정으로 3.6kg짜리 12개를 사용하면 한달에 1만8백원씩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趙源永기자】

인상要因 反映일뿐

朴動資 商工委보고

국회商工委소속의원들은 13일 서울도큐호텔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朴鳳煥 動資部장관으로부터 炭價인상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朴장관은 『금년도 석탄가의 인상요인은 30.4%로 지난 4월 19.88%를 인상시켰기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인상하는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지난4월 한꺼번에 올릴경우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 비수요기를 택해 서민부담을 줄임으로써 완충효과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稅務공무원 계급停年制로

정부檢討 노른자위昇進기피(6級이상) 痼疾해소

정부는 稅務공무원에게 같은계급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고 승진하지 못하는경우 停年퇴직케하는 계급정년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공무원 계급정년제는 세무행정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하위직세무공무원의 승진기피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인사정체현상의 해소와 사기앙양책의 하나로 추진되고있다.

정부관계자는 13일 『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제 검토문제는 지난7월21일 全斗煥대통령이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대한 지시에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관계부처에서검토중인 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제는 대상을 6급(主事)이상으로 잡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세계에는 對民관계의 빈도가높은 主事급등 일선세무공무원들이 승진을 기피, 오랫동안 특정한직책을 유지하려는경향이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번에 검토중인 세무공무원 계급정년제는 이같은 『萬年主事』 현상해소에 초점을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무직공무원들에게는 일반직과같이 5급(사무관) 이상 61세, 6급이하55세라는 年齡정년제만 적용되고 있고 계급정년제가 적용되고 있는분야는 경찰, 소방직, 외무직공무원과 검사, 군인, 安企部직원등 6개직이다.

韓·日安保 같은次元

全대통령 軍事力증강위한 經協 희망

【東京13日=聯】 全斗煥대통령은 12일 하오 방한중인 가스가·잇포외장대행등 韓日의원연맹일본측대표 7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전보장면에서 韓日은 한국과 같은 차원에 속해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바란다』고 지적, 한국의 군사력강화를 위해 일본이 경제협력을 강화해줄것을 희망한 것으로 13일 일본신문들이 서울발로 보도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10분에걸쳐 청와대에서 한일관계및 동북아정세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는 가운데 특히 『38선을 사이에두고 남북의 수백만군대가 대치하고 있다고 지적, 이지역이 정부 공산주의 세력하에 들어간다고하면 일본에의 영향은 대단히클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군사비에 대해 소하고있지만 힘이 약해서는 그들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어렵게 해서든지 방위력강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理解에 큰도움"

日次官團離韓 經協증진요청 안받아

가와라·쓰토무(江力)내각관방副長官등 일본의 政務次官團일행 5명은 3일간의 訪韓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하오 離韓했다.

외무부 초청으로 내한한일본次官團 일행은 이날離韓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통해 『이번 訪韓이 韓日양국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두나라 관계를 더욱 密着시키기 위해 『양국국민간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次官團일행은 또 이날상오 全斗煥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全대통령은 80년대 東北아시아의 평화와안정을 위해 韓日양국간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이에대해 次官團들도 동감했다』고 말했다.

『5명의 日本측 정부차관들이 처음으로 韓日양국관계에 관해 한꺼번에 訪韓해 의견교환을 한데 대해 기쁘다』고 말했다고 차관단일행은 전했다.

이들 일행은 또 全대통령으로부터 韓日양국간의 우호친선을위해 차원높은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로부터 양국간 經協증진을위한 협조요청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대해 『그런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日本次官團 5명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3일상오 청와대에서 가와라·쓰토무(江力)내각관방副長官등 일본政務次官團일행5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 마에다(前田利一) 駐韓일본대사가 배석했다.

日亞洲局長 來韓 外相會談의견조정

기우찌·아끼타네(木內昭胤)일본외무성亞洲局長이오는20일부터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외상회담의 의견조정을 위해 13일하오1시 JAL편으로 내한했다.

GNP 上半期중 2.7%성장

韓銀추계 2/4分期들어 加速

輸出·鑛工業이 主導

農漁業·건설등 계속不振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온 우리나라경제는 지난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성장세가 확대됨으로써 상반기중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13일 韓銀이 발표한 2·4분기 國民總生産(GNP) 잠정추계에 따르면 분기중 우리경제는 전년동기에비해 4.0%가 성장, 1·4분기중의 1.2%에이어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GNP가 지난해의 마이너스성장에서 되돌아선 것은 소비및 투자등 국내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류를중심으로 상품수출이 호조를 보였기때문이다.

2·4분기중 산업별 동향을 보면 광공업이 수출수요확대로 전년동기에 비해 7.4%증가하여 전체성장을 주도하였으며 기타서비스부문에서도 도소매업활동의 성장세회복으로 2.6%나 성장했다.

그러나 농림어업과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일부 농작물의 작황이 떨어지고 건설업이계속 부진함에따라 각각 0.6%및 0.8%의 증가에 그쳤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대진 (14일)

▲2회전
▲培文高—釜山商(9시)
▲普成高—春川高(10시)
▲馬山商—世光高(12시반)
▲聖光高—公州高(3시)

어제의 成績 (13일)

▲2회전

培文高	0	0	0	0	1	0	0	0	…		1
釜山商	0	0	1	0	0	0	0	0	…		1

〈12회초 [illegible] 일시정지게임〉

北一高	0	4	0	3	1	2	0			10
江陵高	0	2	0	0	0	0	0			2

〈7회 콜드게임〉

群山商	1	0	0	0	0	1	0	0	0	2
大邱高	0	0	0	0	0	0	0	0	3	3

한독양말 협찬

社會漫評

두들겨패야만 되니…

地平線

베를린 13日AP=東獨의 공산당국은 13일 새벽2시 東·西베를린사이 40km에 걸친 경계선의 교통을 완전 차단했다. 철도역에는 10대의 소련제 M35탱크가 배치되었으며, 공산군 기술병들은 경계선 일대에 초소를 세우고, 철조망을 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통행을 막기위해 鋪道를 파내고 있다.▼꼭20년전인 61년 여름, AP의 조지·볼트우드 기자의 特報는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제2차 베를린危機의 새양상을 알리고 있다. 흐루시초프가 서방측의 베를린철수를 요구한데서 비롯된 危機가, 공산군의 베를린 포위, 미국의 예비군소집·국방비증액등으로 『大戰前夜』같은 국면을 보이던 무렵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철조망』이 西베를린을 감싸는 높이 4.5m, 길이 1백60k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성장할 줄은 몰랐다.▼나라와 나라사이, 또는 이념이 다른 정치단위사이의 경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인위적인 장벽임에 틀림없다. 기네스·북은 그와 같은 경계선중에 가장 폐쇄적인 예로 중소국경 7천2백40km를 들고있다. 반면 東西獨의 분단선은 『가장 침투하기 어려운』 경계선으로 꼽힌다. 1천3백80km의 경계를 따라, 2백50m 폭으로, 2백30만개의 지뢰와 8만km의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그쪽 우리 휴전선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구나 싶지만, 실제의 東·西獨간 장벽은 겉보기 높이보다 낮다. 「베를린 장벽」너머의 탈출이 뜸해진 대신, 東·西獨간에는 합법적인 왕래의 길이 트여 있다. 78년통계로는 西獨에서 東獨을 방문한 사람이 3백20만명에, 東獨에서 西獨을 다녀간 사람이 1백40만명. 지역번호만 돌리면 전화통화가 되고, 한해 1억통넘는 편지가 오간다. 흔히 말하듯, 「장벽의 분단」은 있으나 「민족의 분단」은 없다.▼그래도 「베를린 장벽」 자체는 헐릴기미가 없다. 장벽위에 쓰여진 「고트·이스트·토트」(神은 죽었다)의 의미다 落書는지금도 선명하다. 장벽이 생길 당시의 西베를린 시장이며, 兩獨和解의 주역이던 빌리·브란트 前수상은 생전에 장벽이 헐림을 볼수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었다. 그런 『분단의 비애』는 더 딱한 처지의 우리 심금을 울린다. 『베를린 장벽』 20주년이, 바로 南北간 「人道의 장벽」을 뚫어 넘자던 8·12제의 10주년과 겹쳐을 새삼 되씹게 된다.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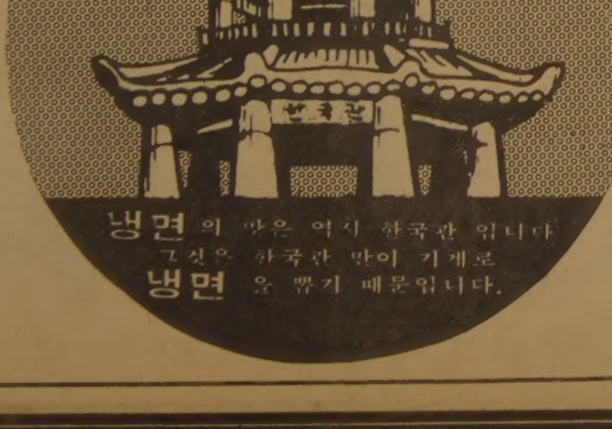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20
은 : 온스당 US 9.42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蘇와 中性子彈 흥정안해"

美、유럽配置 核무기제한協商때

"核미사일에 焦點둬야"

나토核現代化 계속推進도 밝혀

【워싱턴12日UPI=聯】 미국은 오는 연말께로 예정돼있는 유럽배치 核무기제한에 관한 對蘇협상을 약속대로 시작할 것이나 이협상에서 중성자탄 생산결정을 흥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을것이라고 미국무성 관리들이 12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소련과의 핵무기제한협상이 중성자탄과 같은 전역무기가 아닌 중장거리 핵미사일의 제한문제에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들은 미국이 오는 11월말이나 12월께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제한에 관한 對蘇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맹방국들에게 다짐하고 있으나 이 협상에서 중성자탄생산 결정 문제는 흥정대상으로 삼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軍縮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나토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기로 한 지난76년의 결정을 계속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大使館앞의 中性子彈 반대示威 일단의 모데들이 11일 헤이그주재美國대사관앞에서 中性子彈반대연좌시위를 벌이고있다. 이같은 시위는 이날 소련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및 西獨대사관앞에서도 개최되었다. 【헤이그11日AP聯=聯合】

"未來의 核戰 유럽에 局限"

美·盟邦간에 마찰

【워싱턴·본12日AP·AFP=聯】 레이건 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서독을 포함한 서방맹방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유럽국들은 중성자탄 생산결정이 미래의 핵전쟁을 유럽대륙에 국한시키려는 미정책의 일부로 해석하고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와 서독정치관측통들이 12일 말했다.

본의 정치관측통들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西方맹방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중성자탄 생산결정을 내림에따라 앞으로 미·서독 관계에 심각한 마찰이 생길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특히 슈미트수상의 서독社民黨은 對蘇·유럽·미사일 감축협상에 대한 미국의 자세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터·글로츠사민당서기장은 이날 슈피겔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중성자탄생산결정으로 서독은 양대초강대국의 핵무기경쟁의 틈바구니속에서 더욱 더 핵의 최우선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中性子彈 제能力 못갖추면 民間人 피해만 增大시킬듯

CIA前官吏 경고

【워싱턴12日UPI=聯】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 생산 비축하기로 결정한 중성자탄이 유럽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소련의 우세한 소련탱크부대의 공격을 저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경우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인명피해만 증대시킬것이라고 정년퇴임한 美중앙정보국(CIA)의 전직고위관리가 12일 주장했다.

波自由勞組、罷業중지

對政府 정면대결피해 宥和조치

【바르샤바13日UPI·聯=聯合】 폴란드 정부의 관영 언론을 둘러싼 反政府노조운동에 항의, 전국적인 언론파업을 벌인 폴란드 자유노조는 12일 식량부족사태를 둘러싼 파업과 가두시위들을 중지하고 금년말까지 토요휴무일중 8일간을 자발적으로 일해주도록 촉구했다.

이로써 폴란드 자유노조의 對정부 정면대결은 일단 해소되었다.

자유노조는 이날 발트해연안 그다니스크에서 3일간의 전국조정위원회(KKP)긴급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을통해 정부측의 反자유노조운동에 항의, 오는 19·20양일간 소련권사상최초의 전국적인 언론파업을 벌이도록 촉구, 對정부 정면 대결태세를 보였으나 이를 철회, 1천만노조회원들에게 국가경제위기를 완화시키기위해 오는 연말까지 8일간의 토요휴무일에 자발적으로 근무해주도록 호소하고 모든 파업과 시위는 중지하도록 촉구,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유노조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지도자들이 경제위기 상태와 관련, 당분간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전념해야할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월러트管制士會長 美聯邦地法서석방

【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州)12日AP=聯】 美연방지방법원은 12일 국가모독죄로 수감된 버지니아州 노퍼크주재 직업항공관제사기구 회장으로부터 직장복귀령에 응하겠다는 다짐을 얻어낸후 그를 석방했다.

스티븐·L·월러트회장은 관제사들의 파업이 시작된지이틀후인 지난5일 국가모독죄로 기소돼 60일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었다.

오늘의 小史 <14일>

▲英 勞動黨 결성 (1903)
▲中國, 獨·墺에 宣戰 (1917)
▲美, 英, 大西洋憲章 발표 (1941)
▲日, 포츠담선언 수락통고 (1941)
▲美, 軍政폐지를 선언 (1948)
▲알제리, 佛의 사하라사막 원폭실험 거부 (1962)
▲韓日협정비준동의안, 야당불참리에 국회 통과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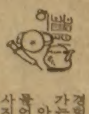
메아리

어느 분야에서나 동서양의 만남은 갈등과 상호보완이 따른다. 미·중공이 접근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은것이 침술이었다.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침술마취를 활용한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흥분했다.

동·서의학의 결합 가능성이 어렴풋이나마 비친것이다. 미국에서 침술이 처음 공인된것은 네바다주였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병원에선 침술연구소가 생겨 신경외과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소엔 한·미·중국의사 10여명이 진료를 하며 침술의 원리를 연구한다.

구미에서 침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자 국내한의학계에선 침술이 한의학의 모두인것처럼 소개될까봐 걱정하는소리도 들린다. 우리 의학계의 오랜 과제는 양의와 한의의 조화라고 하겠다. 똑같이 질병퇴치의 목적을 가진 의술이지만 그 생성의 뿌리가 전혀 달라 상호보완이 절실하다.

흔히 동·서의학의 특징을 경험과 실험,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또는 망원경적 요법과 현미경적 요법의 대조로 비유된다. 이런 이질적인 성격이 때론 대립을 보여 지난 75년께 한의학박사 학위를 신설할때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洋醫와 漢醫

당국은 요즘 양의와 한의로 2원화된 의료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시키기 위한 의료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뜨거운 논쟁이 예상대로 또 벌어졌다.

찬성측의 의견은 침체된 한의학을 회생시키고 의료혜택을 늘리려면 일원화 해야 한다는것이고, 반대의견은 전통과 독자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는것 같다.

찬반을 제쳐두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할일은 서양의 과학성과 동양의 오랜 경험을 살려 주고 조화시켜 나가는것이다.

아직은 두의술이 한울타리에 묶어않기엔 시기가 빠르다. 의사지망생들이 예과과정 2년을 함께 배우고 전공이 갈라질때 과연 그 지망이 예상대로 나뉘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난다.

醫方類聚, 鄕藥集成方, 東醫寶鑑등의 전통을 자랑하기에 앞서 이런 과거의 업적을 우리의 독자적인 현대의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자기정립」이 없는 상호보완은 기대하기 어렵다.

버트런드·러셀이 말한 철학의 직관과 과학적 실증의 상호의존성을 우리 의학계가 참고삼았으면 한다.

"西方세계서의 방위寄與度 日本이 美맹방중에 最下位"

美국방성秘密보고서서 밝혀

【워싱턴12日聯合】 서방세계의 방위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는 미국의 맹방들중 가장 낮은것으로 11일 공개된 미국방성의 한 비밀보고서가 밝혔다.

서방국들의 방위비지출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한 이보고서는 일본이 경제력면에서 서방세계의 방위에 더많은기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 방위력강화를 위한 노력을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4개회원국들의 서방세계 방위에 대한 기여능력을 도표로 분석하면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서방세계의 방위를 위해 투입할 수있는 능력을 보유, 이면에서 미국의 38%에 이어 2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나 GDP의 실질적인 방위비지출비율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경제적번영도에서 일본의 방위기여능력은 4번째이나 실질적인방위노력은 끝에서 2번째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미국방성이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것은 일본의 방위노력부족에 대한 레이건행정부의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측통들은 美의회가 하기휴회를 끝낸후 다시소집되면 이보고서가 對일본정책들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北大西洋항로 再開

캐나다관제사들 管制거부 철회로

【워싱턴12日UPI·聯=聯合】 캐나다항공관제사들은 12일 2일간에걸친 미국항공기에 대한 관제거부를 철회, 이날밤 7시30분(한국시간)을 기해 美·유럽간 북대서양항로가 완전재개됨으로써 1만2천 파업관제사들에대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있는 레이건 미행정부에 중대한승리를 안겨주었다.

북대서양항로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한 캐나다관제사들의 관제거부철회로 1만2천파업관제사들은 프랑스 스페인 관제사들의 미약한 지지만을 계속받고있을뿐 대정부대결에서 입장이 더욱 약화된반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있는 레이건행정부는 이에 더욱 고무돼 파업관제사들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중인 美항공관제사들에 대한 지지표시로 지난이틀간 미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들의 관제를 거부, 북대서양항로를 사실상 마비시켰던 캐나다 관제사들은 캐나다정부의 벌금과 해고위협에 굴복, 북대서양항로의 대부분을 관장하고있는 뉴펀들랜드 갠더 관제탑을 포함, 모든캐나다공항들에서 미국행항공기들에 대한 관제업무를 재개키로했다.

◇등반狂의 빌딩登攀 美등반광인 존·보인스(27)가 12일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유나이티드·아메리칸은행 27층 건물외벽 유리로된 미끄러운 벽을 집에서 만든 까치발로 기어오르고 있다. 이 소동으로 경찰과 소방대가 동원됐고 2시간이나 교통이 두절됐는데 이사나이는 불법침입및 사유재산 훼손죄로 기소됐다. 【녹스빌12日AP聯=聯】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년에 보는 「逆調」의 實相 <7>

社會

日本式 殘滓못벗던 時代서 主體意識속 새出發 몸부림

70년대 우리보다는 일본쪽에서 더 큰 논쟁거리가됐던 「韓日癒着시비」는 두나라관계의 한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용어다. 그때 우리사회의 주역들은 제각기 자기 분야에서 일본인 학교동창, 선배, 군대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함께 일을도모하느라 무척이나 바빴다.

바로 이런 한시절이 갔거나 가고있다는 사실은 두나라의 변화를 가장 잘 상징해준다.

80년대의 시작을 고비로해 일본으로해서 바빴던 세대, 다시말해서 일본과의 유착이 손쉬웠던 세대는 우리사회의 전면에서 빠른속도로 물러나고있다. 정치인은 도태되고 기업가는 2세에게 물려주고 일본책만을 주로 읽고 강의하던 교수들은 강단에서 점차 물러나가고있다. 일본말을 잘알고 일본하면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는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대신 그자리에 일본말을 거의 잊었거나 아예 생소한세대가 들어서고 있는것이다.

우리사회의 이같은 세대교체는 韓日두나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한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제3의 시기」라고 하는게 적당할지 모른다.

해방36년은 두나라가 우여곡절속에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을 기준으로 그이전 20년과 그이후16년으로 확연하게 금이 그어진다. 먼저 20년은 항일투사들이 집권한 「증오의시기」였고 나중16년은 한마디로 「유착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그「유착의 시대」가 점차 끝나면서 새로운 한시대, 제3의시기가 문을 열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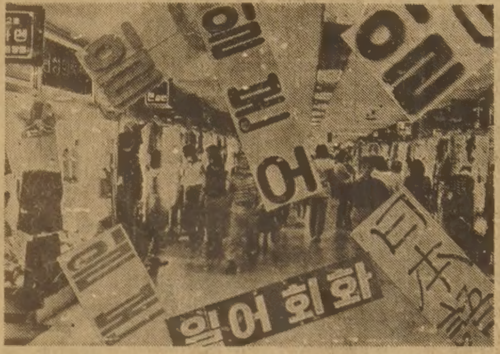
우리역사에서 가장 바빴다는 지난 16년동안 우리사회는 일본사회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발전너있는 일본사회는 항상 모범답안지같은 것이어서 너나없이 맹렬하게 베껴댔다.

얼마나 빠르고 솜씨있게 베꼈는가하면 지금 우리사회에 널려있는게 모두,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과 잡동사니까지를 포함해, 일본에서건너오지 않은게 드물정도가 돼버렸다. 한우(韓牛)를 증산한다고 수입쇠고기를 들여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국내축산업자들에게 돌리겠다는 농수산부의 아이디어는 4년전의 일본소증산책을 그대로 베낀것이고 평당1백80만원이나 한다는 아파트분양가도 일본의 아파트 값과 부동산정책을 쏙빼놓은것이다. 그 정도에 그치는게 아니다. TV의 프로그램, 국산화장품의 포장과 종류, 라면, 야쿠르트, 지하상가, 위장약正露丸, 바퀴벌레와 그것을 잡는 바퀴오라오라, 호텔과 사우나湯, 물을 흐르게 하거나 파도를 일게해만든 流水풀과 파도풀, 고교생들의 폭력, 신문의 편집과 칼럼들….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이 돼 있거나 이제 막 눈에 익기시작한 온갖것들이 일본것이거나 일본을 매개체로 해서 들어온 것이다. 새로 나온 상품의 이름과 모양이 하필이면 왜그럴까고 골똘히 생각하는건 어리석은 일이 되기쉽다. 수많은 법령집의 문장과 전문용어에 애썼다고 감탄할 필요도 없고 제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노래하는 가수가 몇달만에 다시 나타나 요란스레 흔들어댄다고 놀랄 필요도 없다. 대답은 간단하다. 일본에서 베낀것들이다.

유착의 범위는 사람끼리만이 아니고 사회전체에, 보이는것과 안보이는 것을 가릴것없이 하나의 시대풍조처럼 만연됐다. 그결과 해방36년만에 우리가 소유한 사회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모방사회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게 돼버린것이다. 그리고 그짧은기간동안에 우리사회가 이룩해 놓은 이같은 변모의 폭과넓이는 상당 부분 지금 50, 60대가 갖고있는 일본에 대한 감각과 언어능력의 덕택인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30대로부터 40대초반에 이르는 이른바 「한글세대」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수없다. 항일투사들의 세대처럼 일본을 무조건 증오하지도 않고 그다음 세대처럼 일본을 무턱대고 베껴대지도 않는 제3의세대가 등장한것이다.



◇이제는 「模倣社會」서 脫皮를… 해방36년만에 보는 우리의 자화상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모방사회바로그것이다. 일본에대한 증오와 선망의 두극단적인 시기를 보낸 이싯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일본을『차갑게』보는 새로운안목이어야한다.

제나라를 잃은후 일본국적을 갖고 출생하고 인격형성기의 중요한 부분을 일제하에서 보낸 50대이상에게 일본은 극단적인 증오의 대상이거나 터무니없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쉽지만 30대에겐 그같은 감정의 찌꺼기가 없다. 50·60대는 증오와 애정의 二律背反的인 인식에서 쉬 자유롭지 못할수 있으나 30대는 애당초부터 이런 심리적 부담없이 『차갑게』 일본을 볼수있다.

이들의 시각으로는 한일간의 모든 것을 한답시고 제손가락 자르는 친구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식민지시절 일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라고 윽박지르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일본은 그저많은 선진국중의 하나일뿐이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30대, 그리고 그이하로 내려갈수록 더두드러지는 이같은 일본관(觀)은 전혀새로운 시각이라고 할수있다. 한동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50대 혹은 60대의 일본관과 서로대립하면서 공존하겠지만 점차 30대의 일본관이 지배적이게 될것이다.

일본을 보는 이같은 새감각과 인식이야말로 전환기에 들어선 韓日관계를 밝게해주는 근거라고 할수있다. 제3의시기에서는 일본은 더이상 증오의대상도 선망의대상도 아니다. 다만 극복하고 앞질러야할 존재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을 극복하고 앞지르는 노력들이 이들에 의해 활발히 주도돼야한다. 일본을 무턱대고 닮아만가던시대는 해방36년을 맞은 이시점에서 정지돼야 하는것이다.

【社會部 金時福기자】

"操縱士에비해 俸給적다"에 "警察官보다 많다"로 맞서

美관제사들의 不滿

항공관제사직업이란 그렇게도 힘든 것인가. PATCO(美항공관제사기구)는 『공포 때문에 버릴 못한 긴장 속에서 일하는 관제사들은 신경과 고혈압,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병마의 희생물이 되고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보수와 근무시간단축으로 보상받는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관제사들의 파업에 강경책으로 맞선 레이건행정부의 입장은 PATCO의 주장과는 너무 다르다.

드루·루이스 운수성장관은 『관제사들은 결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보다 더 힘든 스트레스와 직면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경찰관 소방관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PATCO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부분의 미국 관제사들은 일주일에 고작 25시간 근무하고 연간 3만3천달러(2천3백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7년경력이면 5만달러(3천5백만원)가 된다.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것인가. 『관제사직업이란 본디 고독하고 스트레스가 쌓일수 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무겁고 보수는 조종사보다 적다. 도대체 관제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있지않다』는게 대부분 관제사들의 불평이다.

『컴퓨터의 완벽한 지시대로 겨우 1백50여명정도의 승객을 운반하는 조종사들은 우리보다 덜 힘들고 근무시간도 짧으면서 봉급은 최고 11만5천달러(8천50만원)에 달한다』면서 PATCO의 통계를 제시한다.

PATCO의 조사는 관제사 89%가 직업에서 얻는 심신장애로 도중에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정년퇴직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을 보여주고있다. PATCO는 또 관제사의 대부분이 한두가지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음도 밝혀냈다. 그들이 보여주고있는 정신장애로는 일이 터지면 깜짝깜짝 놀래는 소방관증상을 우선들수있다.

그렇지만 미항공국은 『순번대로 근무하는 관제사들이 한번에 레이더스코프에 매달려있는 시간은 겨우 2시간이며 더구나 바쁜시간이 아니면 잡담이나 피우고 코피를 마시는 일이 고작이므로 3천명은 감원해도 괜찮다』고 쏘아붙였다.

한때 국제적인호응도있어 관제사들의 파업은 레이건의 강경자세를 꺾을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항공기운항중단에 불편해진 미국민의 %가 레이건편을 들었다. 그것보다 17주내지 20주의 훈련을통해 척척히 관제사로 길러진 그들을 해고통지를 받고나서 당장 발디딜 뾰족한 직장이 없다. 이에는 AFL-CIO(미국산업별노조)의 준비도 엉성했다. 파업의 협조를 시초에 구해놓지 못했던것이다. 【崔相鎬기자】

◇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의 노퍼크(버지니아州)노조지부장인 스티븐·윌러트가 12일 부인과함께 항의데모를 하고있다. 【워싱턴12日AP聯=聯合】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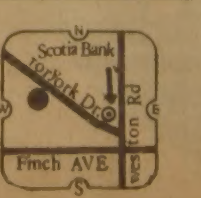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초대합니다

74년 2월에 부임하셔서 교회와 교우를 위하여 영육으로 수고하시던 임인완 목사님께서 8월 마지막 주일예배로 본 교회를 이임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드리며 1981년 8월30일(일요일)주일은 성례주일을 겸한 송별예배를 드리며 예배후 송별파티를 갖겠읍니다.

바쁘신 중에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모두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1년8월30일(일)
오후1시30분

장 소: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54 QUEEN ST. N. KITCHNER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輸入쇠고기料理 韓牛와 별差異없다

불고기·장조림·완자탕등 7가지 소개
肉質연하고 냄새안나
불고기는 전날 재어야

主婦敎室 중앙회 試食평가회

○……쇠고기 가격 자유화 이후 쇠고기 값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
○……우쇠고기는 절대량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이 한우만 찾는바람……○
○……에 가격인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 주부교……○
○……실 중앙회는 한우 쇠고기의 소비를 억제해서 쇠고기가격을 안정……○
○……시키기위해, 12일 수입쇠고기 시식평가회를 열었다.……○

◇수입쇠고기요리시식회가 12일 주부교실중앙회 주최로 열렸다. 시식회에 참석한 주부들은 「수입쇠고기는 값이 싸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다」고 평가했다.

시식평가회에는 수입쇠고기로 조리한 불고기, 완자탕, 육개장, 장조림, 삽산적, 떡산적, 고추전등 일곱가지 요리가 소개됐다. 주부교실중앙회는 수입쇠고기요리를 시식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시식결과를 조사, 『한우 쇠고기와 같은 「감칠」맛이 약간덜하지만 오히려 한우고기보다연하고 부드러우며, 고기 색깔도 선홍색이어서 한우쇠고기와 큰차이가 나지않는다』는 평가를 들었다.

수입쇠고기 값은 1근에 3천1백원으로 4천2백원 정도는 한우 쇠고기보다 1천1백원이 싸다. 비싼 한우쇠고기를 자주 사 먹기 어려운 일반 가정에서는 수입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등을 적당하게 섞어 먹으면 경제적이다. 수입 쇠고기로 요리할 경우, 요리과정에서 약간 신경을 쓰면 수입 쇠고기 특유의 맛을 더할수있다.

불고기는 한우와 요리방법이 똑같으니 요리하기 전날미리 양념에 재어 두었다가 이튿날 요리하면 더욱 맛있게 먹을수 있다. 수입쇠고기 불고기는 숯불에 구울경우 한우쇠고기보다 더욱 고소하고 맛있다.

육개장은 곰이는동안 생강 3~4쪽을 다져서 넣으면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난다. 육개장의 양념으로 파를 넣을때는 파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넣으면 국물맛을 북돋울수있다. 완자탕도 보통 한우쇠고기를 재료로 하는것과 같은방법으로 요리하며, 다만 양파 호박 풋고추 당근등의 채소를 간장 소금 참기름등으로 볶다가 물과 녹말가루를 부어 다시 볶고 완자에 쑨다.

장조림을 할 경우, 장조림 속에 달걀을삶아넣어도 좋으나 풋고추, 통마늘, 생강등을 넣으면 독특한 맛을 간직한 장조림이 된다. 풋고추, 생강등을넣을때는 장조림을 끓이다가 국물이 졸아지기 시작할때 넣어야 신선한 맛을 보존할수있다. 삽산적은 미리 고기를잘았다가 만든다. 일반적으로 산적은 꼬챙이에 고기, 굵은파, 버섯, 풋고추등을 꿰어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고 재료가 많이들어 보통 밥반찬으로 쉽게만들어먹지못한다. 주부교실중앙회가 소개한 삽 산적은 평상시 간편하게 만들어 밥반찬, 도시락반찬, 또는 술안주나 간식으로 두루 먹을수 있도록 새롭게 조리했다.

곱게 간 고기를 달걀 참기름 후추 소금 마늘등으로 양념해서 작은 빈대떡처럼 만든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과 뒤로 구워서 사방 3㎝의 네모조각이나 타원형으로 예쁘게 잘라낸다.

고추전은 고추속의 씨를털어낸 다음 그 속에 밀가루를 바르고 고기를 다져 넣어 부쳐낸다. 맑은 장국은 고기, 우거지, 호박등 갖싸고 구수한 채소를 썰어 함께 끓여낸다.

시식회에 참석한 주부 吳昌姬씨(48·江南區盤浦洞山16의15)는 『수입 쇠고기는 질기고 냄새가 난다는 주부들이 많으나 여기서 먹어보니 냄새도 나지 않고 肉質이 한우 쇠고기에 비해 차이가 없는것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히려 수입쇠고기는 한우쇠고기보다 肉質의 마블링(힘줄부분)이 부드러워 먹기가 좋다』고 평한다. 이날 시식회에서 소개된 수입쇠고기 요리는 한우쇠고기를 전혀 섞지않고 요리했으며, 조리에 든 비용은 한우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약3분의1이 절약되었다.

수입쇠고기는 축협 직매장(전국에 4백3개소), 농협종합판매장(전국에 3백40개소), 일반정육점중 수입육취급업소등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⑳

나와 基督敎

어릴적부터 家族들과 貞洞敎會다녀
聖經공부·合唱團활동등 많은 꿈키워

나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에관해 얘기를 좀 돌릴까 한다.

나의 집안은 기독교(改新敎)가 들어온 초창기적부터 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집안 어른들과 형님들이 일찍부터 교회에다녔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아 유년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다.

나의 伯父(尹雄烈)는 이땅에 교회가 들어서기 전 淸國에 사신으로 가 歐美文明을 보고오면서 기독교에 눈을 떴다.

또 나의 從兄(尹致昊)은 甲申政變뒤 上海로 피신, 中西書院에 다닐때 기독교를 믿고 1887년에 세례를 받았다.

從兄은 그뒤 미국 밴더빌트大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에모리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다시 上海로갔을때 에모리대학의 캔들러학장에게 한국선교를 신신당부했다.

從兄은 당시 캔들러학장에게 2백달러를 보내면서 한국선교의 기금으로 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從兄의 노력으로 1896년 北京교구에 리드목사가 선교사로부임하면서 南監理敎의 종교에배당이 세워졌다. 從兄이 內部協辦으로 있을때였다.

내가 어릴적부터 다닌 교회는 서울貞洞교회였다. 貞洞교회엔 일찍부터 그교회신자인 어머니의 인도로 나갔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성경공부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독교를 배웠다. 주일학교에선 예쁜 그림카드를 우리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오래도록 품에 넣고 다녔다.

당시 주일학교동창생으로는 바이얼리니스트가 된 홍영후와 의사가 된 洪錫厚형제가 있었다. 난 그들과 자주어울려 찬송가를 한창했다. 좀 자란뒤 난 교회에서 합창대원이 되었다.

貞洞교회는 미국 북감리교선교사인 아펜젤러목사가 세운 한국최초의 감리교회다. 아펜젤러목사는 1885년 貞洞에서 배재학당을 세우고는 이듬해 9월, 인근에 집채를 구해 벧엘채플이라 이름하고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貞洞교회의 시작이었다.

◇한국최초의 감리교회이자 초창기 한국宣敎의 요람인 貞洞교회.

貞洞교회는 1897년 미국감리회청년운동단체인 엡윗청년회를 만들어 전국에 파급시키기도 했고 1922년엔 한국교회 최초로 하기아동성경학교를 개설하는등 한국선교의 저변확대에 큰 공헌을 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 청장년층을 선교의 주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종교의 유년기교육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유년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1905년엔 선교연합공의회가 조직돼 主日학교개설의 토대를 만들었고 1912년엔 주일학교사업연합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貞洞교회에 다니던중 海寶의부친이자 나의 둘째형인 致昭형님이 집근처에 교회를 세워 난 그리로 옮겼다. 致昭형님은 兪吉濬선생의 동생인 兪星濬장로, 朴勝鳳장로와 같이 安國洞장로교회를 세웠다. 致昭

형님은 1885년 선교차 들어온 미국 북장로교선교사 언더우드목사는 貞洞자택에서 처음 사랑방교회를 열고 차차 신도가늘자 1887년 2명의 장로를 선정했다. 그뒤 교회를 신문내로 옮겼는데 그것이 지금의 새문안교회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땅에 최초로 교회를 일으킨 개척선교사로 학교를 세워 舊韓末의 開化에 큰공헌을 했다.

어린 시절 貞洞교회는 나에겐 어머니의 품같은 존재였다. 나에게 많은 안식을 주었고 꿈을 키워주었다.

지금도 貞洞교회를 보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안에서 들려나오는 것만 같다.

어린시절 난 교회에서 행하는 신식결혼을 보고 세상에 저런 결혼도 있구나 싶었다.

내가 校洞학교 다닐적에 伯兄(尹致旿)이 再婚을하면서 貞洞교회에서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존 시갈리사가 敎會를 보면 시기였던 것같다. 식장엔 외국인공사등 코큰사람들도 많이 오고 축하객들로 가득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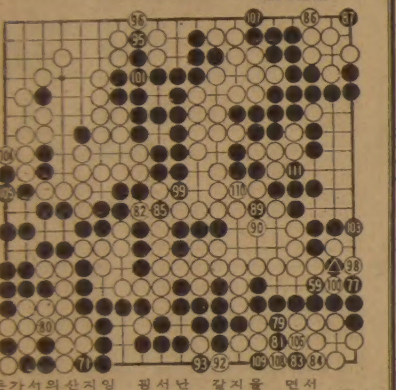
伯兄은 결혼식장인 貞洞교회로갈때 흑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갔다. 그것이 장안에서 처음탄 자동차였다고한다.

당시 난 형님의 신식결혼을 보고 마냥 신기하게만 생각했다.

그런 나도 再婚때 貞洞교회에서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다시 세월이 흘러뒤 내 외아들(仁善)이도 貞洞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貞洞교회는 우리父子 모두에게 새로운 生의 産室인 셈이다.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14譜 279~312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드디어 마지막譜, 즉 말해 名人이 극적인 반집승을 하는 장면일세.

지금은 먼저 前譜에서 黑79의 패를 둔지않고 白80으로 패를해소한 수가 있을것 같네. 지정산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

좌하귀는 원래 白집이었는데 패가 났을때 黑79, 81로 3점을 떼어주면서 白80으로 산것은 아무래도 白의 굉장한 손해라고 보아질세. 그러나 실상 패를 하는동안 白은 중앙의 黑4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白이 1집손해라는 것이 정확한계산일세. 따라서 白은 아직도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할수없는데 여기서 선수를 잡고 白82에 집어넣는 수가 바로 최후의 승부처로 된 셈이거든.

『자, 또 패다. 어찌되려나』 손에

黑, 痛恨의 半집敗

땀을쥐면서 지켜보는 동안 名人은 나머지 1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50초내지 55초에서 틀림없이 돌을 판에다 찍어놓았네. 말할것도없이 기록계가 『…50초, 하나, 둘, 셋』하고 울려간끝에 열까지센 그순간 카운트아웃! 시간초과로 패하고마는 절세.

이런식으로 한동안 계속되던 패는 白102로 ▲표자리를 잇는데서 해소. 黑은 애석하게도 더이상 패감을 내지못하고 103으로 내려설밖에없었네.

白82의 패로 얻은 이득이 5집. 결국은 좌하귀패로 밀진 1집을 빼고서 4집득을 봄으로써 반집승을 기어이 성공했던것일세.

때는 하오8시20분. 장장 10시간가까운 사투를 끝낸 名人과 도전자는 한동안 허탈상태로 판만 우두커니 내려다보았네.

102…▲, 112…83, 88, 94…82, 91, 97…85 【二元】

美容 햇볕에탄 피부손질

얼굴식힌후 레몬로션듬뿍
오이얇게썰어 덮었다떼내
빨리고치려 藥物쓰면 더욱惡化

바다에서山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면 햇볕에 탄 피부손질에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中年이후의 부인들은 햇볕에탄 피부를 그대로 뒀다가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老化를 촉진하는 경우가많으므로 정성들여 손질하도록 한다.

피부가 빨갛게익어 화끈거리면 우선 냉수로 여러번 씻어 피부를 식혀야한다. 얼음냉수면 더욱 효과적이고, 타월을 담가 자게했다가찜질을하도록한다.

화장수, 로션등도 냉장고에 넣어 차게식혀서 쓰면좋다. 물로 식힌 얼굴에 레몬·로션을 여러번 발라 가제에 유연화장수를적셔 얼굴을덮고 10분쯤 두었다가 떼낸다. 하루에 두세번 세수할때마다 이런식으로 손질하면 피부가탐이 진정이 된다.

◇햇볕에 탄 피부는 레몬·로션을 평소의 3·4배정도 듬뿍발라 부드럽게 문질러준다.

햇볕에 그을린피부를 단시간에 희게하려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 별에 타서 약해진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자연스럽게 희어지도록 기초손질만으로 끝낸다.

오이는 손쉽게 구할수있고 미용법도 간단하므로 여름동안 부지런히 사용하도록한다. 얇게 썬 오이로 얼굴전체를 덮고 10분~15분정도 누워있다가 떼내면 얼굴이 놀랄만큼 매끄러워진다. 또 오이에는 비타민C와 산화효소가 들어있어 피부를 희게하는데도 도움이된다. 오이나 수박을 강판에갈아 즙을만들고 요구르트를 잘섞어서 화끈거리는얼굴에 골고루 발랐다가 씻어내도 효과가있다.

한달에 두번정도 팩을해주면 피부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신진대사도 촉진되는데 되도록 야채를 이용한 천연팩을 사용하는것이 피부건강에좋다.

햇볕에 심하게 그을린피부는 일종의 화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것저것 화장품을 발라 자극하지 말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면서 피부를 진정시키도록한다. 레몬·로션, 화장수, 오이즙등을 발라두면 얼굴을 덮고 10분정도 가만히 누워있다가 빼내는것이 가장 좋은 미용법이다.

女의 마음

외손자·친손자

둘째며느리가 예정일보다 보름정도 빨리 첫 딸을 낳았다. 친정 어머님이 오셔서 돌봐주고 계시니까 천천히 올라오셔도 괜찮다는 며느리의 장거리 전화를받은 나는 그날로 올라갈 준비를 했으나 비가하도 쏟아지는 바람에 집 안팎을 빙빙 돌고 조바심치며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날엔 꼭 올라간다고 자그마한 보따리를들고 집을 나서려고하는데, 이곳에서 그리 멀지않는시골로 시집간 딸이 세번째 아들을 어제 낳았다는 기별이 왔다.

딸은 出嫁外人이요, 며느리는 入家內人이라지만 이 비속에 멀리 서울까지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우선 먼저 가까운 김서방집(딸네집)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길로 시외 버스터미널로 갔다. 그러나 친손녀 얼굴을 보자니 외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지고 외손자 먼저보자니, 친손녀가딱 야단치며 『으앙으앙』울것만같아 버스터미널에서 한참 [illegible].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누가 그리로 가자 했는지 나의 발길은 저절로 고속버스 대합실쪽으로 가고있었고, 눈 딱감고, 서울행 차표를 끊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김서방아, 나 서울 먼저 간다. 내려오는 길에 아기옷 사들고 찾아갈께…』

창밖 하늘에서 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봉녀·강원도원주시단구동724—38번지6통2반】

헌 양말을 신는 마음

방학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말씨름만 하다가 개학이 가까와오니 마음이 홀가분해진것같다. 그러나 또 걱정거리가 되는것은 도시락 찬이다. 요즘엔 무슨찬거리가 나오나 한번 살펴보려고 부지런히 집안을치우고 큰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버스를 타고 시장앞에 내려 조금 길을 걷다보니 발목이 허전한 느낌이든다. 내려다 보니 양말목이 흘러 내려 땅에 끌리고있었다. 나는 얼른 누가 볼세라 치켜신고 주위를휘둘러보았다. 누가 보았다면 여자가자기몸하나 단정하게 못하고 다닌다고 흉을 보았을 것이다.

요즘양말은 잘 헤어지지를않아 오래신을수가 있지만 양말목의 고무줄이 얼마정도 신으면 늘어나버려 신을수 없게된다. 고무줄이 늘어난 양말을 아빠는 안신으시니 아까와 버릴수는 없고 결국 내차지가된다. 그래서 집을나설때 고무줄을 만들어 끼우고 나왔건만 도중에 끊어져 버렸나보다. 나는 잠자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절약하며살아야하는가 하고 슬그머니 약이 올랐다. 아빠와 세아이의 뒷바라지만 하다보니 나는 마땅한 양말 한켤레 없이 오늘과 같은일이 생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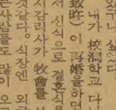
아빠가 퇴근하면 화풀이를 하리라 마음먹고 온신경을 양말에만쓰고 걷자니 제대로 걸을수가 없다. 몇발짝 걸으면 양말이 또 흘러 내려온다. 나는 값수없이 길옆 상점에 들어가 양말을 벗어버렸고 상점아줌마와 한바탕웃은후 장을 봐가지고집으로돌아왔다. 【채지현·강남구 반포동 한신3차29동1204호】

現代人의 健康百科

胃癌과 食生活

우유·綠黃채소등 洋食하면 덜걸린다

朴炅南〈醫博·漢陽大의대소화기내과장〉



세계에서 위암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웃 日本이라는것은 누구나가 잘알고 있다.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위암의 발생빈도가 높은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에 폐암이나 유방암이 많은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수있다.

①생활수준이 낮은사람일수록 위암에걸리기쉬운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직업별로 보아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②미국에 이주한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이주후 시일이 경과할수록 위암에 걸리는 율이 적어진다. 이런 사실로 보아도 위암이 인종적 체질의 차이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③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사람이든 국내에 있는 한국사람이든 식생활면에서 서양식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위암에 걸리는 율이 낮다. 위암환자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또 짠 김치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많은경향을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 한국고유의 음식은 위암을 유발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서양식 식생활에서 무엇이 위암발생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

우유, 녹황색채소류, 육류, 달걀, 빵과 과일중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우유로 판명되었다. 즉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위암에 걸리는 율이 낮다. 또 우유소비량이 늘어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가 뚜렷하다는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illegible] 위암에 걸리는 율이 낮아진다.

④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illegible] 식생활을 개선하여 [illegible]

[illegible]

모눈종이 위의 生

灰色 노우트 ⑥

趙善作 作
禹慶熙 畫
〈174〉

설마 그렇지야않겠지만 그가 만약 정종의 일에관해 입을 열었다면… 나는 눈물곳을 흘리며 절절매서 자신히 대답했다.

『네, 가끔』

그때 아버지가 내려오신것이다.

나는 구원을받은 느낌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며 그에게 헤어짐의 목례를 보냈다. 그도 고개를 까딱해 보이며 일행을 따라갔고, 그것으로 J씨와 나의 우연한 첫번째 대면은 끝났다.

비프커츠가 전문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명동 뒷골목의 자그마한 양식집에서 나는 아버지께 J씨의 이름을 말하며 여쭈어 보았다.

『그분이 아빠 은행에 있어요?』

『어떻게 아니?』

『시인이잖아요? 유명한…』

『그렇다더라. 그런데 유명한 시인을 넌 모두 알고 지내니?』

아버지의 말씀속에는 내 부정확한 보답에 대한 꼬집음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J씨와 헤어지며 인사하는 장면을 보신 것이다.

『그냥 어떻게 알게됐어요』

나는 좀 꿀리는 느낌으로 대답했고, 아버지께서는 더이상 캐묻지 않으셨다. 대신 J씨를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전산실(電算室)촉탁이야」 하고 한마디 하셨다.

그날 아버지와 나는 J씨에 관해서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나눈 몇마디 되지않는 말로도 당신의 흉중을헤아릴수 있었다. 첫째는 시니 소설이니하는 하잘것없는 것들에 밥벌여있는 인간들에대한 경멸감이었다. 게다가 당신께서 이세상에 태어나게한 첫번째딸이 소설나부랑이나 쓰겠다는 청년에게 망쳐진 것이다. 두번째로 말할수있는 혹시 내가 전산실의 촉탁에 불과한 J씨와 무슨일을 벌이고있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심이었다. 도무지 그런 무력한 인간들, 긁적거리는 재주하나로 이름이나얻는 친구들이 당신께서는 마땅치 않은 것이다.

내가 그와 결혼을 서두를 무렵에도 (아버지께는 민회가 다니며 말을 전했었다) 당신은 비슷한 태도를보이셨다. 『뭐하는사람이라니?』 라고 당신이 물으셨고, 민회가 「소설쓴대요」라고 대답하니까 눈물곳을뭉라 허둥지둥하시다가는 「아니, 뭔가직업이 있을게 아니야?」하고 화를 돋우시더라는것이었다. 아버지께서 「그럼 부모님은?」하고 뭔가 가업(家業)이라도 든든한게 있는가 물으셨는데 민회가 부모님도없다고 말씀드리자 어안이벙벙하셔서 「그런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하시더라고했다. 민회에게 그런말을 전해들은 어머니께서 「아, 죽으면 없지」하고 말씀하셔서 식구들이 모두 방바닥에 뒹굴며 웃었던일을 나는 기억한다.

아버지께있어서 문학자란 머리나 길게 기르고, 대낮에도 술집이나 기웃거리고, 게으르고, 손톱 속에는 때나 새까맣게 끼우고, 가난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곤 하는 전세기적(前世紀的)인 문학자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못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상대로 나는 그를이해시키고자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역시 끝내는 내 결혼식에 참석조차 않으신 것이다.

그런 아버지께 내가 시인 J씨에 관해 입에 올린것은 잘못이었다. J씨가 나를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께서는 J씨를 기분나빠 하실 것 같았으며 은행에서 어떤 불이익이 그에게 돌아갈지 모를 일이었다. 아뭏든 J씨와 만난 일은 이래저래 나에게 상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새해가 되었으며 명동의 어떤 골목에서 그와 또 만난 것이다.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학 생 모 집

1981년도 제2학기 본학원의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성서과(신·구약성경연구과정)
   신 과(신·구약성경과 신학의 기초적연구과정)
   목회과(목사양성을 위한과정)
2. 자 격
   ①성서과·신과 : 고졸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비 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 함)
   ②목회과 : 대학졸업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3. 학 제
   성서과(2년제로써 연24주의 수업을 함)
   신 과(3년제로써 연24주의 수업을 함)
   목회과(3년제로써 연48주의 수업을 함)
4. 수 업 료
   성서과, 신과 : $50
   목회과 : $100(과목당 수강료는 $20임)
5. 수업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6. 수업장소 : 252 Bloor St.W. Room #301, #362
   (지하철 이용하실분은 St.George에서 내리시면 됨)
7. 개강일시 : 1981년 9월14일(월) 오후6시
8. 원서교부및 교부처
   ①1981년 8월15일~9월14일
   ②원서교부처 : Lee's Printing(2157 A Weston Rd. 244—2301)
9. 특 전
   ①최우수 성적자 2명에게는 해당학기의 수업료를 면제함.
   ②대학졸업이상으로 신과와 목회과의 졸업자가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원할때는 자매학교 Christian Center College에서 1년간(30학점이상) 공부하면 B.A.in Biblical Study, 또는 M.A. in Biblical Study 를 받을수 있으며 본 학원만 졸업할 시에는 양교합동 명의의 Diploma가 수여됨.
10. 주의사항
   ①재학생은 개강전에 등록만 하시면 됨.
   ②편입을 원하시는 분은 일단 문의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라며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교무처에 의논하시기 바람.
   ③본교의 수업료는 세금에 면제 됨.
   ④목회과는 5명이상이 되지 않을때는 일단 보류됨(목회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원할때는 LA의 총회 직영 신학교나 CCC에서 일년간 이수하면 안수 받을 수 있음)
11. 문 의 처 : 977—5202 · 423—9324 · 244—2301

성서과는 장로집사훈련을 목적하고
신과는 목사 훈련을 목적함.

1981년8월1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카나다노회 칼빈신학원 원장 계 화 삼

尹보살被殺사건 수사10일째

「心證범인」놓고 進退兩難

「90%확실」하다는 측근女人 犯行 뒷받침할 證據 못찾아

10억원의 상속재산이 걸린 서울龍山區元曉路 여갑부 尹長花씨(72·불교신도)의 피살사건 수사를 놓고 경찰은 지금 숨이 가쁘다. 「심증」으로 범인이 「분명하다」고 보는 용의자를 확보해 놓았으나 그 「심증」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尹씨사건 수사본부는 물론 시경과 치안본부 수사간부들까지 「90%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 「심증의 범인」은 과연 「진범」일 것인가. 진범이라면 왜 과학수사가 증거의 벽을 뚫고 진범임을 확인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정확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는 정황증거에 의해 「심증의 범인」으로 지목됐다는 용의자는 다른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알리바이를 얘기할수없는 「무고한 시민」은 아닐까. 당초부터 시민들까지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건이었으므로 재산상속과 관련이 있다. 이 용의자가 손쉽게 경찰수사망을 벗어 나갈수가 없는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용의자가 무고하다면 심층수사에 외곬로 매달렸던 경찰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사건은 언제해결될것인가.

알리바이 못대는 情況증거뿐 외곬捜査허탕치면 미궁빠져

경찰이 확보하고있는 용의자는 尹씨의측근인 K씨(46·女). 이여인을 중심으로 수사10일째인 13일까지 두차례에걸친 정밀현장검증도 했고 주변수사도 여러차례반복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고 심증만 굳혀져간다는게 수사본부측의 얘기다.

경찰이 그를 「심증의 범인」으로보는 이유는 상당한 근거가있다. 현장검증결과 면식범이 틀림없고 피통은여자장갑을 발견했으며 尹씨의측근중 가장 가깝고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불만이 많은사람이 K씨이기 때문이다.

K씨는 매월 25일을전후해서 尹씨로부터 쌀1가마, 연탄1백장분의 생활보조비 6만5천원을 받아왔는데 7월에는 받아가지않았고 2~3일에 한번씩은 꼭 만나왔는데 10일동안 한번도 尹씨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 尹씨의 참사현장이 발견되기 하루전인 지난 3일 金慶寺앞 다방에서 만난 金모승려(34)에게 「尹보살이 일본으로 여행가 1개월후에나 돌아올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尹씨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으며 평소 재산을 불교재단등에 회사하려한 尹씨의 계획에 불만을 품고있는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

특히 사건당일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않고있다. K씨는 범행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22일 尹씨의 차로 貞陵집에 도착했다 하오4시 외출한후 밤11시 집에 돌아올때까지의 행적을 증명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K씨는 이날 하오4시 딸(19)과함께 보험료를 받으러 鍾村洞과 黑石洞에 들른뒤 하오8시 못미쳐 쇼핑센터앞에서 딸과 헤어져 밤11시에 집에돌아왔다고 진술하고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딸과헤어진 하오8시부터 밤11시까지의 알리바이진술을 「南大門지하상가에서 딸의 T셔츠를 샀다」는등 6차례나 번복했으나 상점을대지 못함은 물론 샀다는 T셔츠도없다. 이밖에 「대한교육보험 南大門영업국 鍾路지부 사무실이 있는 센터빌딩에들러 친구 金모씨와 함께 차를 마셨다」 「계모임에 갔다」 「보험료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했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경찰이 더욱 심증을 굳히는것은 K씨가 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는가에있다. 말못할 사정이 있다해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것보단 백번 낫지 않는가 하는의문이다.

가게 할머니 被殺 흉기에 목찔려 40代숙박손님 手配

◇숨진 李必蘭씨

13일상오 7시20분께 서울鍾路區敦義洞103의90 李必蘭씨(58·여) 구멍가게 안방에서 李씨가 흉기에 목을 찔려숨져있는것을 이웃에 사는 安泰永씨(47·상인)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安씨에 의하면 이날아침 부가 李씨가게에 석유를사러 갔다가 문이닫혀있어 문을열고 들어가보니 李씨가 안방에 반듯이 누워숨져있는채로 불에덮혀 있었다는것.

李씨는 동광시장으로불리는 鍾路3街뒷골목에서 10여년전부터 6평크기의 가게를 세내 석유소매상과 장난감가게를 하면서 3개의 방에 무허가로 손님을 받아 숙박시키면서 차남 周宣源씨(26)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周씨는 사고가 나던날밤 집에없었다.

경찰은 李씨가 숨진시간을 13일 상오1시부터 상오7시 사이로 추정하고 11일 밤과 12일 2일동안 李씨집옆방에서 자고 13일 새벽 몰래 집을 빠져나간 1백74㎝가량의 키에 진한회색양복상의와 검정바지를 입고 붉은색 구두를 신은 40대 남자가 강도살인을 한것이 아닌가 보고 이 남자를 찾고있다.

주부白日場 장원 馬善淑씨

시집갈때도 책을 혼수로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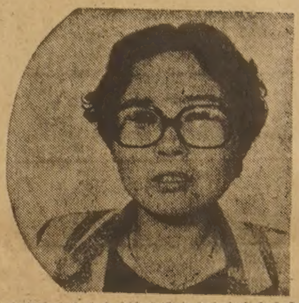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 속이고 참가 9식구 맏며느리…'글쓸때 가장행복'

「가족들에겐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몫들의 「장원」이 글쓰는 나를 가족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10일 한국여류문학인회가 주최한 15회주부백일장에서 영예의 장원을 차지한 馬善淑씨(34·서울城北區 鍾岩洞 655의26)는 2백50명의 응시자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눈물을 흘렸다. 당선된 글은 「앞치마」라는 산문. 가난한 대가족의 맏며느리로서 아직도 9식구의 살림을 꾸려가는 馬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앞치마를 입고 종종 걸음치는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국민학교때부터 독서에 심취한 문학소녀 馬씨는 信女高를 졸업후 잡지사에 잠깐 근무하며 문학수업을 시작한후에 방송드라마에 지금까지 12회 응모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 시집갈때도 책이 혼수의 대부분이었는데 틈틈이 적을일은 수첩을 했다. 5년전인 10회 백일장때 3등한것이 입상경력의 전부.

앞으로 단단한 가정 주부로 족한 결혼으로의 길을 제로 쓰고 싶다고. 레코드 상을 하는 林모씨(37)와의 사이에 1남1녀. 상금은 얼마안 주의 치료비에 쓰겠단다. [李]



◇부상으로 받은 금목걸이를 걸고 외로왔던 습작시절을 회상하는 馬善淑씨.

散文부문 壯元 당선작

앞치마

——馬善淑

김치국물에 얼룩진 10년 고달픈 생활속 나를 지켜

내 몸에선 늘 앞치마 냄새가 난다. [illegible]

韓·日基本자세가 더重要

아이찌·가즈오 日外務省 政務次官

對韓인식 幅넓혀 外相會談에 플러스 互惠의 經協은 「숫자」아닌 「善隣관계」

[illegible] 【金勝鎬기자】

學·藝術院 회원명단

人文科學1分科 ◇現會員 [illegible]

코리아 하우스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특 별 메 뉴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차를 도매가격으로 살수 있읍니다"

무슨차든지 주문을 주시면 DEALER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읍니다.

ADDISON(G·M) DEALER

ELGIN(FORD) DEALER

ONTARIO크라이슬러 에서

차를 보시고 PICK UP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 : 362-3592로 연락 바랍니다.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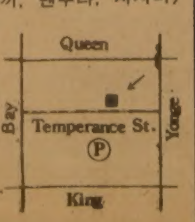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된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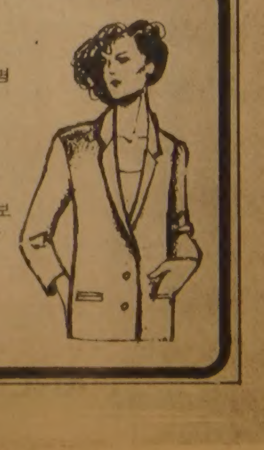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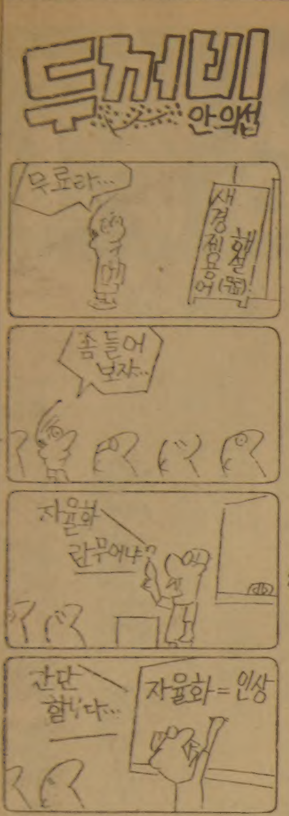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수상한사람 申告한 男妹에 大統領표창

◇周국방장관으로부터 대통령표창장을 전달받는 세남매。앞쪽부터 李貴夏씨,貴嬅군,英仁양。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지난 1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자 인근부대에 신고하는 한편 격투끝에 검거한 강원도 高城郡 縣內面 竹亭1里 李貴炯씨(68·농업)의 세자녀인 貴夏씨(23)、貴嬅군(17·東光농고2년)、英仁양(15·거진여중3년)에게 대통령표창장과 금일봉을 周永福장관을통해 전달했다.

周장관은 이날 하오2시30분 장관접견실에서 이들3남매에게 대통령표창장을 전하고 『全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신속한 신고와 격투로 「거동수상자」를 잡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것은 투철한 시민정신의 결과라고 치하했다』고 전했다.

20年암약 男妹간첩검거

南派간첩에 포섭돼 軍事시설등 情報제공

◇羅 晨

◇羅水淵

치안본부는 13일 서울과木浦동지를 거점으로 20여년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羅晨(48·서울江南區大峙洞633 청실아파트7棟907號)과 羅의 누이 羅水淵(53·서울西大門區弘濟洞8의532 에망의상실경영)등 2명을 구속, 검찰에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62년 남파간첩 金錤相(48·일명 金松武·통혁당사건의배후인물)에게 포섭된후 서울·金浦、濟州、木浦、原州、春川동지의 경비상황、군사시설, 함만경계 시설등에 관한 정보를 金에게 보고, 간첩활동을 해왔다는것.

羅晨은 60년2월 상경, 지금까지 대본서점상、양품점、부동산소개업、어음할인및채권매매업등을 해오면서 공작금 27만5천원을받아썼고 67년에는 9차례에걸쳐 북진이나서류、자금등을 보관했다가 하부조직에 전달했다.

羅는 또 63년1월에는 金과함께 월북, 각종 간첩교육을받고 仁川으로 잠입, 누이와함께 간첩활동을 해왔다.

羅는 65년당시 木浦문태중학교사였던 金勝男(35)과 李모(당시20세)를 포섭, 이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金에게 보고했고 작년1월에는 서울의 학생데모진압 병력배치상황등을 보고하기도했다.

英語會話·토플 好況

海外붐…需要부채질

작년보다 30%늘어

書店街

해외유학및 해외여행의 문호가 넓어짐에따라 이에따른 출판이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여행가이드나 유학안내서등 단행본이나 회화교재및 토플교재들은 불황으로 찌든 서점가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있으며 많은 출판사들이 새로운 교재들의 출판을 서두르고있다.

외국생활이나 유학안내서로서 특히 각광을 받고있는것은 재작년 美洲生活研究院이내놓은「美洲生活大百科」(金奎㶲著)를 비롯하여 文音社가 지난3월 내놓은「81년도개정판해외유학안내요람」(金東奎外6인공저)과 新韓出版社의「해외유학가이드」(趙宣濟)등.

이중「美洲生活大百科」는 미국생활의 이모저모와 유학안내까지 곁한 백과사전형태여서 정가 3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해외유학가이드」는 저자가 문교부 유학생과장으로서 유학규정을 차분히 정리한 단행본이어서 대학생들에게 인기를끌고있다.

이것은「81년도개정판해외유학안내요람」도 마찬가지여서 출판사측은 최근의 유학규정변경에따른 개정판의 출판을 서두르고있다.

회화책의 경우 기존의회화교재출판사들은 기간본의 판매에 주력하고있는데 비해 다른 출판사들이 이시장에 뛰어들고있다.

회화교재의 선두주자격인 時事英語社는 이미 여러가지의 대형기획물을 내놓아 별도로 교재를개발하지않고있는데 이 출판사의 간판격인「잉글리시900」을축소해내놓은「뉴·잉글리시900」이 서점판매로 인기를 끌고있다.

平和出版社의 경우 기간본인「五分 英語會話」가 코오롱、동아건설등 큰 재벌회사에서 사내 방송용으로 쓰이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KBS·TV에 출강했던 朴垣교수(上商大)의「실용영어회화」(책 2권+카세트10개)를 내놓을예정이다.

美洲 生活研究院의 경우도「영어회화 가정교사」(책6권·카세트 44개·17만5천원) 같은 대형물이 잘나가고있어 별다른 새 기획물을 낼예정은없으나 유학문호가 넓어지기 직전에 출간한「백만인의 해외여행」과 미주에서 전화거는요령을 설명한「텔리폰·잉글리시」가 크게 활기를띠어 이의확대판을 모색하고있다. 이중「백만인의 해외여행」은 김포공항을 떠나 미국여행을 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것들이어서 유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시카고영어연구원의경우 기간본인「생활영어」(책 3권·카세트18개)가 잘나가고있으나 당장 외국에나 가는 사람들을 위해「하루한마디 생활영어」(60분짜리 카세트1개)를 금주말에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회화교재를 외면했던 三省出版社도 이달초「Communicative English Program」이라는 방대한 교재(책6권·카세트24개·9만원)를내놓아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출판사측은 이것이 미국VOA社와 라이선스계약까지 치른것으로 오래전부터 제작을 서둘렀는데 우연히 시기가 들어맞았다며 반응이 좋으면 초·중·고생용도 낼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밖에도 어린이용 영어교재가 나오리라는 소문은 파다하나 구체화된것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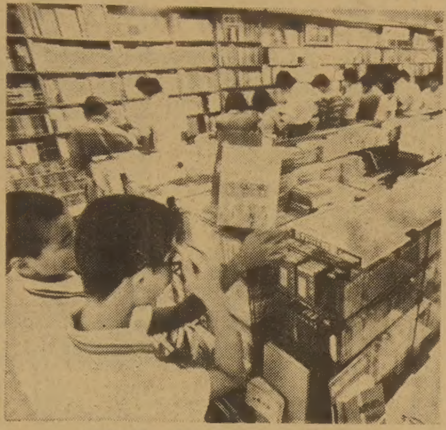
지금까지 알려진것은 教學社의「영어첫걸음」과 桂林出版社의「어린이 그림영어」정도.

「어린이 그림영어」는 우리주위에서 흔히쓰이는 영어인 카메라·버스·트럭·아이스크림등이 원래 영어였다는것을 그림과함께 설명해주기위한것으로 월말쯤 시판될 예정이다.

平和出版社도 국교생이 자습할수 있도록 해설을붙인「쉬운 어린이영어 카세트」를 12일 시판했다.

토플교재의 경우 韓國外國語會話社의「액추얼·토플」(책4권·카세트20개)、英照明社의「李在天토플」、英語研究社의「토플유학영어」(책1권·카세트4개)등이 각축을 벌이고있다.

이밖에 방송영어를 대상으로한「AFKN은 이렇게 들는다」(三志社刊·책1권·카세트5개)와 CBS의 방송강좌를 수록한「토플강좌」(大韓出版公社)등이 호황을 누리고있다.


◇해외여행과 유학의 문호가 넓어지자 회화책을 외면하던 중·고생 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있다。

視聽覺교재도 재미…"무모한量産"우려도

회화붐은 단순한 도서나 청각교재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청각교재의 개발이 나아가 유학 강좌로도 발전할 움직임이다.

시카고영어연구원의 경우 미국을 여행하며 겪게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비디오(60분)로 담아 시판중인데 해외여행 문호개방 이후 부쩍 주문이 늘고있다.

한편 美洲生活研究院의 경우 9월중 미국여행안내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총4시간30분짜리의 이 영화는 KAL을 타고 미국에서 내린 여객이 부딪치는 문제를 담고있다. 동연구원은 이 영화와 함께 영어소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平和出版社도 9월초부터 연수원을 만들어 영어지망생에대한 회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영어교재의 판매상황은 출판사에따라구구각각이나 서점가에서는 작년동기보다 30%가량 늘어난것같다고 말하고있다. 종로서적의 張德燕판매과장은『전같으면 회화교재앞에서 얼씬도않던 중·고생들이 요즘은 적잖게 몰려든다』고 말하고있다.

서적주안 金英琛씨(종로2가 삼일서적)는『요즘의 서점불황에서 그래도 명맥을유지하는것은 영어교재덕분인것같다』고 말하면서도『영어붐이 지속성을 띨는지는 의심스럽다』며 무모한 회화교재의 개발을 경고했다.【梁平기자】

海外話題

「武器여 잘있거라」등 名作 美學校서 열람금지

性묘사등 음란하다 學父母들 압력으로

셰익스피어古典등 2백종受難

세익스피어의「베니스의 商人」·마크·트웨인의「허클베리·핀」어니스트·헤밍웨이의「무기여 잘 있거라」등 수많은 古典과 名作들이 美國의 각급 公立학교도서관에서 추방되거나 열람이 금지되고 있다.

이유는 이런 책들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읽히기에 부적당하다는 학부모및 지역주민들의 항의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美國出版協會·美國圖書館協會·教科課程開發및監督協會공동으로 실시한 각급학교도서관 실태조사에서밝혀졌다.

1천8백91명의 도서관장과 학교장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가운데 20%이상이 학부모들의 압력에 시달리고있으며 지난 한해에만도 2백여종의 책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거나 열람금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점점 증가일로에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책들은 美國작속의 사정을 비롯한 세익스피어의「베니스의商人」·월트·휘트먼의 자서전, E·B·화이트의「꼬마 스튜어트」, 마크·트웨인의「허클베리·핀」, 어니스트·헤밍웨이의「무기여 잘 있거라」, 올더스·헉슬리의「용감한 신세계」, 너대니얼·호돈의「朱紅글씨」, 샐린저의「호밀밭의 파수꾼」, 조지·오웰의「1984년」, 알렉산더·솔제니친의「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등이며 이밖에「존·스타인벡」「모리스·센다크」「헤르만·헤세」등의 작품이들어있다.

학부모나 주민들이 이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음란한데다가 사용하는 언어가 적당치 않고 주로 性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책은 역사상 美國의 역할을 왜곡했거나 進化論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난을받고있으며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다루었기때문에 좇겨날위기에 처한책도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약30%는 교사들 자신이 이런 책들이 교육상 좋지않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작업」의 저자인 스터드·터켈은 이같은 비난을 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술생각이 돈다고 반발했다.【AP=聯合】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洪景來亂다룬 歷史소설

79년本報현상當選「西北風」

1979년 한국일보社가 파격적인 1천만원의 고료를 내건 현상모집에서 당선한 장편소설.

洪景來亂의 발생과 종말을 다룬이 역사소설은 농민들이 주류를 이룬 晉州民亂과는 대조적으로 상인들이 주류를 이룬 洪景來亂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즉 봉건적인 틀을 깨지못한 嶺湖南과 달리 西北道는 변경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선진사상의 빠른도입, 국경무역을 통한 상업자본의 축적등으로 빨리 시민의식이 싹터 이것이 부패한 봉건체제와 맞붙은것이 洪景來亂임을 명쾌하게 그려보이고있다.【행림출판사刊·4천2백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藥效겸한「漢方요리」

漢藥材 1백여종 活用가능

白木茸는 補養、蓮根은 胃에 이로와

日本·中國등서 활발한 研究

異色연구가 朴鳳阿씨에 듣는다

◇漢藥材를 요리에 이용하는漢方요리를 소개한 요리연구가 朴鳳阿씨。

漢藥材를 요리에섞어 약효를 겸하는 음식을 만드는 漢方요리법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돼 흥미를 일으키고있다. 漢方요리는 漢藥연구가 활발한 中國과 日本등지에서 漢藥利用의 한방법으로 개발해서 널리 보급된 새로운 요리종류。

漢方요리를 처음소개한 朴鳳阿씨(53·恩平區葛峴洞5의31의29)는 日本 나고야(名古屋) 韓國學校에서 요리강습 교사로 일하고있는 요리연구가로,日本에서 한창 퍼지고있는 漢方요리법을 우리나라 요리계에 알리고있다.

『漢藥材는 5백가지가 있는데, 그중 1백가지가 요리에 이용될수 있다고 해요。日本에서는 쑥잎매실、川椒(천초)와 버섯의 한종류인 白木茸(흰목이)를 음식에 많이 이용해요。천초와 백목이는 日本서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지요』

천초는 산초과에 속하는 풀로서 잣은 열매를 말려 가루를내서 후추가루나 고추가루를뿌리듯 요리에뿌려 먹는다. 천초열매를 말린재료는 서울경동시장이나 시골 장에서 아주싼 값으로 많은 분량을 살수 있다. 漢方에서 천연향、구충의 효과, 세균제거등의 약효가진열매로평가되는 천초는김치、나물무침、비빔밥등의 요리에 뿌려먹으면 보통 야채튀김을 웃기는 고소하고 향기로운 요리가 된다.

백목이는 버섯의 모양과 색깔이 깨끗해서 銀茸로도 불려진다. 예로부터 고급요리에만 사용됐으나 요즘은 생산량이 크게 늘어 나 시금치등과같은 보통채소처럼 흔하게볼수있다.

백목이는 美容食으로 꼽혀 여성의 살결을 곱고 윤택하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漢方에서는 중요한 補養식품으로꼽아 결핵환자에게 생선의 부대(浮袋)를 말린것과 함께 섞어 약으로 처방하기도한다. 요리로 銀茸죽과 銀茸화채등 부드럽고 신선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蓮根(연뿌리)、蓮實(연열매)등도 얼마든지 맛있는 요리로 만들수있어요. 흔히 연뿌리는 쪄서 먹는데 재래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지만、연근죽등으로 요리하면 대단히 맛있고 신선해요。蓮은 연 잎까지 요리에 이용할 수 있고,특히 연열매와 연뿌리는 수축작용과 止血효과가 있어 産後산모에게、위궤양환자에게 자주 권해지는 漢藥材로꼽혀요。美食家들은 연뿌리를 생즙을 갈아 마시기도 하는데、그맛과 시원함이 주스에비할바가아니랍니다』

치자열매와 꽃도 해열과 소염작용이 있어、열매를 풀어서 튀김요리에 물을들이는데쓰거나 치자 꽃은부침에넣어부쳐먹을수있다.

朴鳳阿씨는 梨大가정과를 나와, 한국요리、日本요리、中國요리등 동양요리를 연구해왔다。그의 연락처는 [illegible]5919。

대표적 漢方요리 조리법

蓮根탕 양지머리와 함께끓인 營養食

銀茸화채 美容食·디저트로 즐길수있어

蓮實백숙 영계·蓮열매섞어 90분가량쪄

蓮根탕 ▲재료=연뿌리、양지머리약간、다시마、진간장、마늘、굵은 말린것、파、생강 ▲만들기=①연뿌리는 껍질을 벗겨 1㎝크기로 동그랗게 자른다。양지머리도 1㎝크기로 먹기좋게 자른다②다시마는 물에 담갔다가 길이 4.5㎝、폭 3㎝의크기로 자른다③위의 재료를 남비에 담아 양념을 하고、재료의 분량과 같은 분량의 물을 부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약한 불에서 익혀낸다。연근탕은 만들기 간편한 영양식으로 특히 구미가 돋지 않을때 국물의 맛이 아주 좋아 대표적인 한방요리로 꼽힌다。

蓮實백숙 ▲재료=연열매 1백50g、영계1마리、새우20g、햄40g、쌀1백10g ▲만들기=영계는 머리와 발을 자르고 깨끗이 씻어 소금、후추、정종으로 밑간을 해 둔다。②연열매는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해서 껍질을 벗겨 놓는다。③나머지 재료는 조미료로 간을 맞추고、영계의 배에 넣어 꿰맨다④끓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한 다음 닭을 큰 연 잎을 펴고 야무지게 매어 1시간30분가량 찐다。연실에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율무(밥)보다 영양가는 높고 값은 싸다。연실은 한약방이나 가락시장에서 살수있다。

銀茸화채 ▲재료=은이 12g、설탕물 10컵 ▲만들기=①은이를 6시간 불린다음、물을 넣어 쓰며、은이는 냉수에 6시간 담가서 불린다。그후 온수에 2시간 담가놓는다②남비에 은이、설탕을 담아 끓이며 거품을 걷어낸다。다끓으면 차게식힌 다음 복숭아조각과 앵두알등을 띄워낸다。은이 화채에는 은행을 띄워도 좋다。은이와 설탕을 섞어 30분가량 끓여낸다。은이죽은 기호에 따라 먹을때 중탕을해서 넉거나、차게 식혀 먹거나한다。젤리나 파인애플등을 띄워먹는다。

토란·옥수수염탕 ▲재료=토란、옥수수수염、돼지뼈장、돼지고기、정종、셀러리、소금 ▲만들기=①돼지장과 돼지고기는 얇게 썬다。토란은 껍질을 벗겨서 물로 잘라둔다。②오지남비에 돼지뼈、고기、토란、옥수수수염등을 넣어 1시간가량 끓인다。③간을하는 데는 나물 무침、정종、셀러리등을 취향에 따라 넣어 먹을수있다。옥수수수염은 이뇨제와 신장병에 효과를 지니고 있어 당뇨병과 신장병에 치료효과가 있다。

"韓國청년警戒태세갖도록"

싱글러브將軍 嶺南大서 名博學位

방한중인 존·K·싱글러브(60)전 주한 미8군참모장이 13일낮 嶺南大 慶山캠퍼스에서 동교 趙敬熙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52년 대대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싱글러브장군은 72년부터 77년 퇴역할때까지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수석대표와 미8군참모장등을 역임、우리나라의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뿐 아니라 카터 전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안에 반대하는 한국내의 여론을 본국에 환기시켜 이안을 철회하게 하는등 한국의 평화유지에 이바지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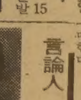
싱글러브장군은 이날 답사를 통해『한국의 젊은이들은 北韓공산집단의 존재가 한반도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항상 경계태세를 갖춰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8·15紀念우표발행

체신부

체신부는 오는15일 8·15광복절기념우표(사진)를발행한다. 일제 식민통치 36년에서 벗어난지 36주년을맞는 뜻깊은 광복절을 축하하기위해 발행하는 이번기념우표는「광복36주년과 발전상」을 도안했고 40원짜리 4백만장을발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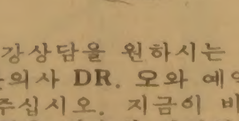
言論人 李承輔씨



전言論人 李承輔씨가 13일 상오2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5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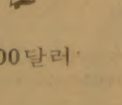
故李承輔씨는 서울商大를 나와 27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는동안 大韓通信종군기자、東洋通信경제부장、편집부국장으로 언론창달에 헌신했으며 東洋通信專務理事를 마지막으로 言論界를 떠나 78년 雙龍그룹으로 옮겨 雙龍洋灰감사와 雙龍海運社長을 역임했다。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철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 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ICE CREAM FRANCHISE
아이스크림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절호의 기회.
METRO TORONTO, LONDON, KITCHENER, HAMILTON지역.
MAJOR MALL위치에 DEALER를 모집합니다.
자기자본 3만달러 요하며 차액은 은행융자를 알선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 : 741-2701 MR. KIM
SCOOPS ICE CREAM PARLORS INC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나의 이력서

윤치영 ㉑

〈題字·尹致暎〉

野球와의 인연

『天地精氣무궁은 槿林남아들 異域에서 갈가지 몇몇해인가、우리수에 뽑내는 文武의 같은 동포들의 혈관에 새롭을 준다…』

東京유학시절、피를 끓게하던 이 野球歌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야구와 더불어 학창시절을 보냈다. 야구는 나를 강건하게 키워준 心身의 활력소였다.

東京유학때 나는 3차례 유학생 야구팀으로 본국을 방문、친선경기를 벌였는데 두번은 내가 주장을 맡았다.

1920년인가 그 다음해 내가 유학생학우회팀 주장을 맡았을 땐 徐相國、朴錫胤(東京帝大)朴勝紀(京都三高)형제、鄭文基(東京帝大)등이 멤버였다.

그때 선수중에 [illegible] 安[illegible]가 있었는데 처음엔 실력이 뒤져 내가 [illegible] 하고 혼을 내주며 [illegible] 도 했다. 安[illegible]는 [illegible] 작곡한 安[illegible]씨의 형이다.

그보다 앞서 [illegible] 이듬오 [illegible] 나의 팀 [illegible] 동지였다. 내가 東京에 유학가기 전에는 [illegible]이란 유학생야구팀이 본국을 방문했는데 당시의 선수로는 [illegible]、柳[illegible]이 명성을 날렸다.

우리는 본국을 방문 서울、釜山、大邱등 전국각지에서 시합을 벌이며 야구열을 높였고 滿洲지역에도 원정、일본인팀과 시합을 벌여 그들의 기를 꺾어놓기도 했다. 시합전엔 늘 野球歌를 드높게 불러 사기를 높였다.

유학생야구팀의 선배인 [illegible]씨는 기교가 뛰어난 야구의천재로 불렸다. 그는 뒤에 東亞日報운동부기자로 들어갔다. 또 다른 천재적 야구선수로는 早稻田동창인 徐相國씨가 있었다. 그는 대한야구협회창설멤버로 2대의원을 지냈다.

어려서 익혀 捕手·1루수·外野手두루 유학생팀 故國訪問경기 主將맡기도

◇1920년 日本 東京조선기독청년회야구단으로 본국을 방문, 李商在선생과 기념촬영을 했다。뒷줄 左로부터 5번째가 李商在선생, 앞줄 左로부터 3번째가 감독 金度演, 4번째가 주장인 筆者。

나는 [illegible] 운동을 [illegible] 야구선 [illegible] 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야구[illegible] YMCA에서 선수생활을 [illegible] CA선수중에선 [illegible] 마다의 직업선수단을 지낸 [illegible]씨가 유명했다. 10년전 내가 조지·워싱턴大에 하위수여관계로 갔을때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다

[illegible] 그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나라에 야구가 소개된 것은 1905년 [illegible] 미국선교사 질레트가 YMCA회원들에게 처음 보급을 시켰다고 한다.

처음 야구가 [illegible] 야구를 [illegible] 했는데、京城[illegible] (지금 메디컬센터자리)에서 바지저고리에 고무신 신고 장작개비로 고무공을 치기도 해 장안의 진풍경이 되기도 했다.

내가 야구를 처음 [illegible] 아주 [illegible] 때이다. 芳山의 [illegible]에 [illegible] YMCA의 브라운 [illegible] 에 야구공、글러브、배트 [illegible] 와 치고 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커다란 글러브가 꼭 [illegible] 아 징그럽기 [illegible] 없었다.

그것이 인연이 돼 [illegible] 학교에서 난 야구를 열심히 했다. 야구선수들 중에서는 상당히 일찍 야구를 터득한 셈이다.

1913년 中央학교에 들어가선 야구팀을 만들었다. 난 포수、1루수、외야수를 두루 맡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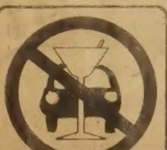
야구팀을 제일 먼저 만든곳은 YMCA였다. 그다음 京城에서 만들었고 이어 徽新과 普成、徽文, 그리고 1년뒤 中央과 普成、2년뒤 오성에서 잇달아 야구팀을 만들었다. 처음엔 京城、徽文、普成、徽新、中央등 5개학교가 중학리그전을 벌였다. 장안의 인기는 갈수록 높았다.

中央엔 명투수 金成鳳가 있어 나와 콤비를 이뤘다. 金成鳳는 그후 早稻田大에서도 나와같이 운동하며 옥상에서도 최초의 명성을 날렸다. 京城엔 洪鎭鐵、徽新엔 朴德常이 있었고 徽文엔 명투수 邊在德이 유명했다. 한번은 徽文과 시합을하다 내가 3진을 당했다. 약이 오른김에 徽文투수 邊在德에게『에끼、전방진 놈아』하고 욕을 했더니 그가 정색을 하고『스포츠맨이 욕하기냐』고 따졌다. 그만 내가 [illegible] 사과를 했다.

그뒤로 나는 운동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놈이 승리하는 [illegible] 스포츠정신을 생활신조로 삼게되었다. 나의 야구선수생활은 미국유학을 가면서 사실상 끝났다.

나는 [illegible] 야구이외에도 축구、정구、검도、[illegible] 운동을 배웠다. 운동은 나의 [illegible] 下에서의 울분을 달래주는 [illegible] 실을했다.

젊은시절 운동을 좀 많이했다는 연분때문에 해방후엔 스포츠계에도 관여、활동을하게됐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化粧品가게 女主人피살

예리한 凶器에… 치정殺人 추정

13일밤 10시께 서울中區仁峴洞1街87의5 애펀양화명보체인스토어에서 여주인 李淸子씨(40·서울中區仁峴洞1街131의13)가 목과 명치등 2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것을 손님 洪來善양(22·서울鍾路區宮井洞38)등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李씨는 목에 길이 13㎝ 깊이 3㎝、명치에 길이 3㎝의 치명상을 입고 가게안의 온돌방 벽에 기댄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진열장위의 남성용 로션병등 20여곳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3개를 채취, 감식을 의뢰했다.

보신탕집 가스爆發 10명 慘死

安養서 고친 연결호스서 漏出…22명은 重輕傷

百10坪 鐵筋건물 形體없어

爆音에 百m밖 집유리창 박살

【安養=鄭柒鎬기자】13일 하오9시45분께 경기도安養市安養2洞857의5 대교보신탕집(주인 張永祚·57) 지하실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 보신탕을 먹던 손님 김정식씨(31·육군대위·서울東大門區 張安洞275의4) 등 10명이 숨지고 주인 張씨의 부인 朱明子씨(47) 등 22명이 중경상을 입고 安養시내 대양정형외과등 6개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에 연행돼 사고원인조사를받고있는 무면허가스취급상주인 金吉元씨(左)와 보신탕집주인 張永祚씨。

발굴끝나면 人命피해 더늘듯

또 이 폭발로 지상60평 지하50평크기의 대교보신탕을 라브콘크리트건물이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무너져 내려앉았으며 보신탕집 부근 반경1백m내 가옥들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알루미늄새시가 휘어지는등 피해를 냈다.

또 폭발사고때생긴 폭음과 위력으로 인해 보신탕집부근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날아가거나 기울어졌다.

金씨등 사상자들의 대부분은 폭발로 건물지붕이 내려앉아 깔려 숨졌거나 폭발과 동시에 일어난 불에 타 숨져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사고현장에서 50m 떨어진 安養2洞852 韓澤洙씨(29)는『갑자기 광하는 폭발소리가 2차례들려 뛰쳐나가보니 보신탕집주위가 불바다가 돼있었고 가슴에 콘크리트파편을 맞은 부상자들이 피투성이가 된채「살려달라」고 신음하고있었다」고 아비규환의 현장을 회상했다.

사고가나자 安養경찰서 소속 경찰50명、소방관 30명과 소방차 7대등이동원돼 진화 및 구조작업에나섰으며 포크레인과 레이카등이 동원돼시체발굴작업끝에 14일 상오현재 10구의시체를 찾아냈으나 발굴작업이끝나면사망자는더 있을것으로 보인다.

폭발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주인 張씨로 부터『12일부터 프로판 가스가 새는것을 알고 가스공급상인 제일가스상사(安養2洞857의5)주인 金吉元씨(32)를 불러 수리를 시켰다』는 진술을 듣고 가스파이프에서 누출된 프로판가스가 지하실에 차있다가 인화, 폭발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張씨와 金씨、제일가스 종업원 韓奎秀씨(33)、金道賢씨(23)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정확한 원인을 캐고있다.

張씨에의하면 평소 6~7일에 한번 50㎏짜리 2개와 20㎏짜리 1개등 모두 1백20㎏의 가스를 사용해왔는데 지난11일밤 가스가떨어져 金씨에게 가스를 주문, 통을바꿔넣었는데 12일낮부터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는것.

張씨는 하룻만에 가스가 떨어진것을 이상히여겨 金씨를불러 새는곳을 막아줄것을 요구, 金씨와 종업원 2명이 같은날밤에 옥상에있는 가스저장실부근배관과 지하실쪽 배관등 두곳이 새는것을알고 12일밤에는 저장소쪽 배관을 콘트로막고 13일상오에는 지하실쪽 배관을폐쇄시켜 가스가 누출되지않도록했으나 이미 지하실에 유출되어 축적돼있던 가스가 인화, 폭발한것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張씨가 지난 6월초 가스배관업자 朴모씨(36)에게 40만원을주고 배관시설을 개수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때朴씨가 공사를잘못해 가스가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보고 朴씨도 불러 조사키로했다.

사고가난 지하실50평은 지난해 12월까지 다방으로 사용됐으나 영업이 안돼 다방문을 닫은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며 출구2개가 항상 닫혀있어 환기가 잘되지않았다는것.

제일가스상사는 주인 金씨외 종업원 5명이 하루 4백㎏의 가스를 安養시내 요식업소와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 가스취급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 1명뿐이며 주인 金씨는 지난1월 고압가스 보안교육만 받았을뿐 무면허가스업자임이 밝혀졌다.

金씨는 지난 6월25일 朴모씨(36)로부터 6백만원에 제일가스상사를 인수、朴씨의 면허로 영업을해왔다.

사고가난 대교보신탕은 한꺼번에 1백20명이 식사를할 수있는 대규모 보신탕집으로 매일 평균3백명가량의 손님이 서울등지에서 찾아올정도로 이름난 보신탕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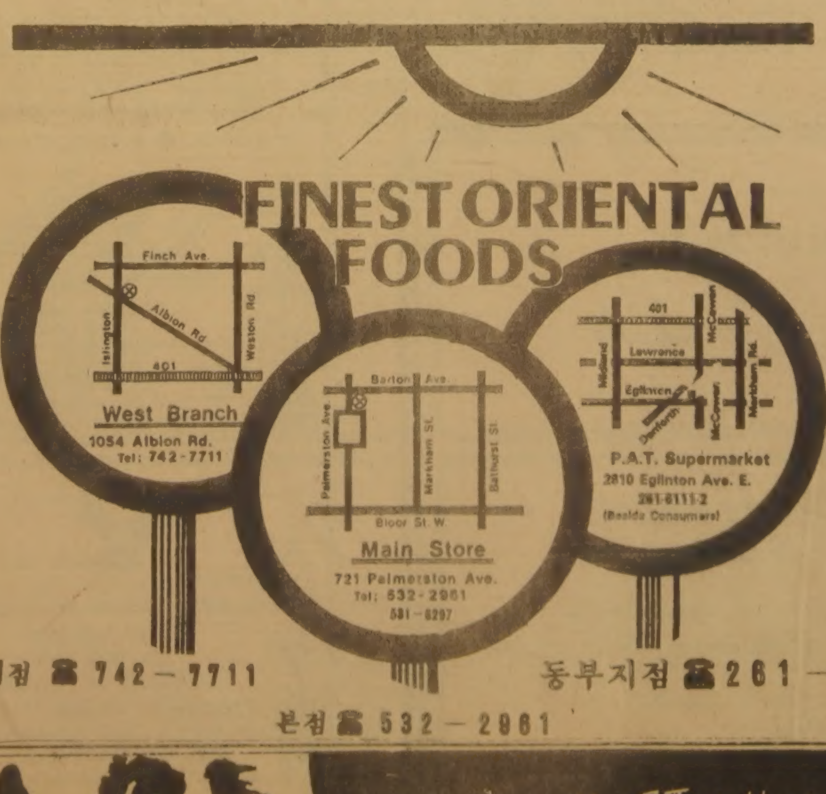
◇지하실에 차있던 프로판가스가 폭발, 지상60평규모의 철근슬라브단층의 보신탕집이 폭탄을 맞은것처럼 부서져버렸다。이사고로 10명이 깔려 목숨을 잃었고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를 빚었다。【李基龍기자찍음】

閑山大捷 기념식 李海參總長 參席

【鎭海=聯】忠武公 李舜臣장군의 승전을 기리는 제389주년 閑山大捷기념식이 14일하오 李銀秀해군참모총장、崔鍾鎬慶南지사、군고위장성등 내외귀빈과 해군사관생도및 해군장병 그리고 많은 일반참배객이 참석한 가운데 閑山島 제승당 경내에서 엄수됐다。

직원모집 : 근무처 동부지점 모집인원 : 오전반 약간명
문의처 오후반

한국식품



서부지점 ☎ 742-7711 동부지점 ☎ 261-6111
본점 ☎ 532-2961

친절하고 신속한 써비스는 한국식품의 자랑입니다.
저렴한 가격, 신선한 품질, 다양한 품목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스페시얼을 하고 있읍니다.

○7 월에 생산된 미국산 삿뽀로라면		$9.95
○6 월에 생산된 일본산 삿뽀로라면		$11.75
※ 라면에는 항상 생산일자를 체크하세요		
○일본산 점보 다꽝		$1.99
○보온밥솥 10인용 산요 1개		$129.00+TAX
○코카콜라 24×10온스(2 Box 제한)		$4.99+TAX
○CALROSE 쌀 20kg(1 Bag 제한)		$19.99
○물미역줄기	파운드당	79¢
○물미역줄기	33파운드 BOX당	$25.95

개점시간 : 동부-월, 화, 수 오전 9 시-오후10시
목, 금, 토 오전 9 시-자정까지
<일요일 휴업>
본점-오전 9 시30분-오후10시
<화요일 휴업>
서부-오전10시-오후10시
<화요일 휴업>
<알림> 9월 7 일 노동절은 온타리오 노동법규상 동부지점에 한하여 close 합니다.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大邱、逆轉의명수 群商에 逆轉勝

9회末2-0서 3得點
北一、타선폭발 江陵에 콜드게임

鳳凰大旗 고교야구

大邱高가 9회말 마지막 반격에서 터진 李滿雨의 적시 2루타와 群山商高 유격수, 투수의 잇단 실책으로 역전의 명수라던 群山商高를 3-2로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13일 3만팬들의 열광속에 벌어진 제11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4일째 2회전경기서 大邱高는 2-0으로 뒤지던 9회말 무사만루의 찬스를 잡아 5번 裵孝旭의 중전적시타와 群山商구원투수 趙啓顯의 2루견제악송구로 3득점, 기사회생했다. 대회2연패를 노리는 天安北一高는 2회초 1사후 단타, 2루타, 3루타에 이어 8번 金賢澤의 대회9호 2점호머등 연속4안타로 4득점, 승기를 잡고 13안타를 터뜨려 江陵高를 10-2, 7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16강에 합류했다. 釜山商高와 培文高는 고교야구에서는 보기드문 트리플플레이(三重殺)와 併殺3개를 기록하며 연장12회까지 1-1로 비겨 14일상오9시부터 계속경기를 갖게되었다. 培文高는 2회말수비서 투수-1루수로 연결되는 3중살을 기록했다.

群山商-邱高

대통령배의 주인공 群山商이 이기느냐, 대봉기의 주인공 大邱高가 이기느냐。게다가 두팀은 대봉기결승에서 맞서싸웠던 앙숙。3만의 시선이 집중된가운데 선공에나선 群山商은 1회초 팀리더인 1년생趙啓顯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1사후 2번高長亮이 데드볼로 나가고 3번 白仁浩의 보내기번트를 따라간 大邱투수와 3루수가 파울이되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내야안타로 처리되어 주자는 1、2루에 세이프되었다。

4번林東求가 3진으로 물러났으나 5번 趙啓顯은 선제 타점 우전적시타를 날렸다。이때부터 5회까지 群山商의 살얼음같은 리드가 지속되었다。안타수에서 7-3으로 크게 앞섰으나 群山商은 후속타 불발로 추가득점을 얻지 못해 초조했으며 大邱는 3회에 교체 기용된 群山商 구원투수 趙啓顯의구위에 눌려 애를 태웠다。群山商은 6회초 또한차례의 찬스를 잡아 1점을 추가했다。1사후 9번 吳錫煥이 포볼로 나가자 1번 金平鎬가 우전적시타를 때렸으며 2번 高長亮의 유격수앞 땅볼를 타、3루주자 吳가 전력질주、2점째를 올렸다。

北高-江陵高

선전분투했지만 江陵에게는 北一이 너무 벅찬 상대였다。1회초 땅볼과플라이로 3자범퇴 당한北一은 2회초 무시무시한 방망이의 위력을 드러냈다。1사후 5번 尹洪植이 좌전안타、6번 崔在明이 좌월3루타、7번 趙龍鎬가 우월2루타를 날려 江陵선발 權泰喆을 다운시키고 8번 金賢澤이 1m90의 육중한 체구로 江陵구원투수 徐萬植의 제4구를 우측담장으로 넘겨 대회9호홈런을 기록、연속된 4안타로 4점을 거둬 들였다。江陵高도 만만치 않게 대적、2회말 선두 6번 金鍾根의 내야안타、2사후 9번 全商會의 우월2루타、1번 申鉉萬의 좌전적시타로 2점을 만회했다。의외의 반격에 놀란北一은 마운드를 河仁秀에서 安聖洙로 교체하고 4회부터 다시맹타를 터뜨려 7회 콜드 게임승을 거두었다。

4회초 선두 6번 崔在明、7번 趙龍鎬가 포볼로 나가 차례로 2、3루에서 아웃되었으나 8번 金賢澤은 데드볼로 나가 후속 땅볼과 1번 吉良根의 좌전적시타로 홈인했으며 9번 安聖洙는 2번 康相和의 3루 내야안타로、吉良根은 3번 金相國의 좌월2루타로 줄지어 홈인、7-2로 점차를 벌렸다。5회초에는 金賢澤의 우중월2루타로 1점、6회초에는 康相和의 좌중월2루타를 비롯한 연속 4안타로 2점을 모아 10-2로 승리를 결정했다。北一은 9명의타자중 9번을 제외한 8명이 고루 안타를 날렸으며 8번 金賢澤은 2점 호머를 포함、3타수、2안타、3타점、2득점의수훈을 세웠다。

◇제8일 2회전

배문고 000 010 ……0
부산상 000 000 ……0
〈12회 회수제한 일시정지 게임〉
▲배문투수=李明三 포수=高丁植 ▲부산상투수=李弦澤 포수=丁海德

북일고 040 312 0 — 10
강릉고 020 000 0 — 2
〈7회콜드게임〉
▲북일투수=河仁秀 安聖洙(2회) 포수=金相國 金光充(7회) ▲강릉투수=權東喆 徐萬植(2회) 權五吉(7회) 포수=辛良善 ▲홈런=金賢澤(2회초2점)

군산상 100 001 000 — 2
대구고 000 000 003 — 3
▲군상투수=李東錫(1、5회) 趙啓顯(3、5회) 포수=張虎翼 ▲대구투수=李滿雨 李成根(2회) 全鍾和(2회) 포수=李成根

光州市廳、日팀제압 / 韓日 여자핸드볼

【光州=聯】日本關東지방여자대학선발초청 韓·日친선여자핸드볼경기대회가 12일 光州체육관에서 열려 光州市廳이 關東팀을28-12로 눌렀다。

◇1차전
光州市廳 28 (13-6, 15-6) 12 關東대선발

釜商、무사 1·3壘서 痛恨의 3重殺

12회까지 1-1 오늘 競技 續行
培文도 두차례 併殺打 당해

◇2점홈런 金賢澤 北一高와 江陵高의 대전。2회초 2점홈런을날린 北一의 金賢澤이 동료들의 환호에 경례로답하고있다。

培文高-釜山商

釜山商은 3회말 선두7번車正柱가 우전안타로 나가 8번洪龍鉉의 보내기、9번鄭志洋의 스퀴즈·번트로 홈을 밟았으며 培文은 5회초 선두 4번李次周가 좌전안타로 나가 5번 權五成의 보내기번트、6번高丁植의 좌전적시타、그리고 釜商포수 丁海德의 3루견제 악송구로 홈인、1-1의 동점을 이루었다。

이두번의 홈인외에는 양팀 점수안내기경쟁이라도 벌이듯 갖가지 진기록을 남기며 12회를보냈다。培文은 2회초 선두 4번 李次周가 짜증간 안타로 나가 보내기번트로 2進했으나 6번高丁植의 3루앞 병살타로 객사했으며 9회초 무사 만루의 황금찬스를 승리를 굳힐수있었던 찬스를 다시 高丁植의 병살타로 놓쳤다。

선두 3번 金聖珍이 포볼, 4번 李次周가 중전안타、5번 權五成이 보내기 번트를 시도하자 釜商투수 李弦澤이 무리하게 3루에 송구하는 바람에 무사 만루가되었다。

한방으로 승부를 결정할수있었던 이 찬스서 高丁植은 두번째 병살타를 때렸으며 2사후 추자를 2、3루에 두고 7번 金桂植은 포수 파울플라이로 아웃되었다。

釜山商도 이에 뒤질세라 2회말 선두 4번 鄭翊立이 내야안타와 적실、5번 李弦澤이 야수선택으로 만든 무사1、3루의 찬스를 놓치는 등 林相根이 3重殺을 당하는 등 사이에 잃어버렸다。7회말에는 1사후 5번 李弦澤、6번 林相根의 연속 안타로 맞은 1、2루의 호기를 7번 車正柱의 3루수 라이너 병살타로 날려버렸다。

트리플플레이(三重殺)

培文-釜山商전에서 나온 트리플플레이(三重殺)는 고교야구에서는 좀처럼 보기드문 진기록。

2회초 培文의공격을 병살로 막은 釜山商은 2회말 내야안타, 적실, 야수선택으로 無死1、3루의 황금찬스를 맞았다。선두 4번鄭翊立의 내야안타와 포수견제 악송구로 2進、5번李弦澤의 보내기번트를 培文투수의 무모한 3루송구로 주자는 1、3루서 모두 세이프됐다。

득점타를 노리며 때린 6번 주장 林相根의 타구는 뜻밖에 투수 라이너로 잡히고 배문투수 李明三은 3루에、3루수 金聖珍은 1루에 송구、1루수 李次周의 베이스터치로 투수-3루-1루를 연결하는 3重殺을 기록했다。

釜山商은 林相根의 2루타로한꺼번에드리아웃당해 無死 1、3루의 찬스를 놓쳤다。

3重殺은 내야수비진의 좋은 콤비네이션플롯타구의 불운이 따르지않으면 좀처럼 보기어려운 장면이다。

내야守備 콤비네이션과 打球의不運따른 珍記錄

◇三重殺의 주역들。右로부터 培文투수李明三 3루수金聖珍 1루수 李次周

永登浦工、올 2冠王차지

中高축구 延長서 골러시…安養工에 逆轉 2-1

永登浦工이 연장 격전끝에 중고축구 연맹전서 감격의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춘계 연맹전 우승팀인 永登浦工은 13일 效昌운동장서 벌어진 고등부결승에서 연장11분 HB柳東官이 골을 성공시켜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인 安養工에 2-1로 역전승、올시즌 2관왕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永工은 전후반 80분경기에서 安養工과 0-0무승부를 기록、연장전에 들어가 安養工에 먼저 골을 허용하여 패색이 짙었으나 FW朴文이 동점골을 넣고 柳東官이 극적으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중등부 결승전서는 高平東中이 群山第一中을 1-0으로 돌려치고 우승했다。

◇결승전적
▲고등부
영등포공 2 (0-0, 2-1 연장) 1 안양공
▲중등부
평동중 1 (1-0, 0-0) 0 군산제일

U대회參加 體育人등 全대통령이 훈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3일 하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월드게임및 국제 體育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참가、국위를 떨친 선수、임원등 21명에게 체육훈장、체육포장、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이들수상자들과 참가선수등 1백18명에게 만찬을 베풀었다。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金容植체육부장관과 李禧浩원호처장、曺相鎬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다。서훈선수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체육훈장巨象章=金基動(유니버시아드 테니스선수) ▲〃白馬章=孫甲道(척추장애자탁구선수) ▲〃=張春培(〃)朴鍾勳(월드게임 레슬링선수) 柳寅卓(유니버시아드 레슬링선수) 朴勝征(〃) ▲〃=崔富吉(유니버시아드 태권도선수) 韓基文(월드게임 태권도선수) 鄭範秀(〃) 李東鎬(〃) ▲〃=崔在權(〃) 崔熙龍(수영) 崔台岩(〃탁구) 宋信男(〃) 高明坤(〃) 金昭天(〃) 吳龍浩(〃) 李雲[illegible] ▲체육포장=[illegible]

30일 金泰式과대전 / 챔피언 아벨라來韓

【멕시코시티11日聯合】세계권투평의회(WBC)플라이급 챔피언인 멕시코의 안토니오·아벨라는 오는30일 서울에서 한국의 도전자 金泰式과 타이틀방어전을 갖기위해 11일 서울로 향했다。

아벨라는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기앞서 金泰式을 10회안에 KO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그는 이어 다음번에 타이틀방어하면 도전자는 멕시코의 미겔·칸토나 英國의 찰리·마그리 또는 아르헨티나의 산토스·루치아르가운데서 선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4強진출確定

슈퍼월드컵野球 濠洲에 7회 콜드게임

【에드먼턴(캐나다)=聯】韓國야구대표팀은 13일 상오(한국시간) 에드먼턴에서 열린 제5회슈퍼월드컵야구대회 6차전에서 濠洲에 14-2로 7회 콜드게임승을 얻어 4승2패를 기록、4강진출이 확정됐다。그러나 韓國은 이날 하오에 열린 日本-도미니카전에서 日本이 예상을 뒤엎고 11-17의 콜드게임으로 대패、승패에 관계없이 美國에 이어 4강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韓國은 5승1패의 美國에 이어 쿠바、캐나다와 함께 동률2위를 기록하고있다。

◇6차전
호주 011 000 0 — 2
한국 406 400 × — 14
〈7회콜드게임〉
▲홈런=張孝祚(1회 3점) 金用熙(3회솔로) 金在博(4회 2점)

日本 11-17 도미니카 〈7회콜드게임〉
캐나다 9-7 美國

◇중간순위(13일상오현재) ①美國 5승1패 ②韓國、쿠바、캐나다 4승2패 ⑤도미니카 4승3패 ⑥日本 2승4패 ⑦파나마 1승5패 ⑧濠洲 1승6패

서울J·아시아陸上 한국代表團 결단

오는15·16일 이틀동안 서울운동장서 열리는 81년도 서울국제주니어 오픈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주니어대표선수단83명(임원·8선수75)은 13일 상오 泰陵선수촌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서 張寬植대회조직위원장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회인만큼 성공적인대회로 이끌도록 임원·선수여러분이 함께 노력、한국육상중흥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고 『최선을다해 좋은 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해 줄것』을 당부했다。

韓國男女모두 優勝 / 아랍5國 친선卓球

바레인에서 열리고있는 아랍 5개국친선탁구대회에 출전중인 第一合纖남자팀과 一毛織여자팀은 대회최종일 경기서 남녀가 모두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각각 5-0、3-0으로 완파하고 전승기록으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外國팀 취급해 섭섭해요”

在日동포야구팀 選手일행 陸士방문

◇13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재일동포학생 야구선수들이 육사에관한 설명을 듣고있다。

관람석

『1、2회까지는 우리들 응원해주다가도 결선에 가까워질수록 성원해주는 관중이 별로 없읍니다。외국인팀이 되는 것 같아요。』

在日동포학생 야구팀을 이끌고 9번째 조국을 찾은 韓在愚감독(45)은 모두 따뜻하게 대해 주기는 하지만 경기중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선수들이 섭섭해 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韓在愚감독

【楽】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PT
ADDRESS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1년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 (본점)
(동부)
〃 (서부)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1)출퇴근 하시면서 애기봐 주실 할머니
(2)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 2414755

주방헬퍼구함(남자1명, 여자1명)
628 BLOOR ST.W 한국관
☎ : 536-0290

웨이트레스 구함 (Choi's 레스트랑)
☎ : 759-8512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펀치-프레스 기술자
시간당 $4·50 헬퍼 시간당 $4·00
B & S ELECTRICAL MANUFACTORY
37 DRUMMOND ST. ☎:259-7691

가게헬퍼 구함 유경험자 (풀, 파타임)
DON MILLS & SHEPPARD 지역
☎:491-9701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쥬스바에서 파트타임 여자 헬퍼구함 :
☎ : 368-9206(2시이후)
미세스 유

청소하실분 구함
주중 아침9시~저녁6시
☎ : 782-0316

〈사람찾음〉
성명 : 강명식(COOK) : 칼가리 서울식당에서
상기 본인을 찾읍니다. ☎ : (403) 255-4778

매매및 양도

좋은위치에 자리잡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60) LAWRENCE AVE. E SCARB.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쥐 있음.
문의전화 : 422-0816

현 전면허증을 가진 레스트랑과 라운지 매매
120개좌석, 긴 리스, 한국, 중국레스트랑 하기에 적합한 위치. 캐쉬 $295,000 또는
$165,000 다운페이먼트와 나머지는 월게지로 가능.
연락 : 피터 ☎ : 368-9557

벡커매매
년매상 $8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킨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UPRIGHT 피아노 세일
TUNE 되어있는 우수한 상태
$600 ☎ : 451-6751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OPENWINDOW BAKERY & GROCERY
1550 Bloor St. W.

DELI레스트랑 & 타번 매매
다운페이먼트 $50,000, 이상적 가족 비즈네스
SHEPPARD AVE. W.
☎ : 224-2800 MEL POLON
MR. REALESTATE INC.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MILTON에 있음
HWY25+HWY401, 주매상 : 5000, 아스킹 : 39,000
+인벤토리, ☎ : (416) 878-3610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넬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옹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화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883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5-66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에빙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8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9-1976 (R) 248-6032 김용환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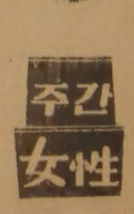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카뮈의 모든것

「讀者사랑 끄는 天性타고나」

21周忌맞아「現代文學」특집



알베르·카뮈는 현대 작가들이 이루고있는 빛나는 星群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별로 꼽히는 작가다. 독자들이 카뮈를 사랑하지않을수 없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月刊 文藝誌「現代文學」은 카뮈의 世界 21주기를 기해 9월호부터 12월호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카뮈의 모든것」을 집중 소개한다. 이 연재의 9월호 첫회는 비평가 레크레르크가 분석한「카뮈와의 만남」을 번역(金烋鳳 譯) 전재. 「카뮈가 독자들에게서 사랑받을수 있었던 天性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있어 흥미를 일으킨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카뮈의 幼年·靑年시절의 精神的인 상황을 心理的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카뮈는 13년 알제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이듬해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며 카뮈를 키웠다. 카뮈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바닥을 놀이터로 삼아서 놀곤했다. 레크레르크는 『그의대표작「異邦人」에 나오는 뜨거운 햇볕과「裏面과 表面」에 나오는 빈민구역 묘사는 바로 그의 幼年시절에 겪은 체험의 복사판』이라고 평한다. 그는 공립국민학교에서 특출한재능을 보여 교사 제르멩의 시선을 끈다.

일자무식인 어머니는 카뮈가 공립학교를 졸업한후 工具를 들고 일터에나가 빵을 벌어오도록 주장했으나, 교사 제르맹은 그녀와 싸우며 거의 강제적으로 카뮈를 중학에 입학시킨다. 레크레르크는『만일 카뮈가 훌륭한 교사였던 제르맹을 만나지못하고 평범한 교사를 만났더라면 그는 이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것』이라고 설명한다.

카뮈는 중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역시「희귀한재능」을 보인다. 급우들의 대부분이 부잣집 아이들이어서 그와 급우들과의 사이에는 숙명적인 간격이 생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知的 호기심에 놀라, 그를 둘러싼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무의식적인 반항심리를 키우거나, 가난한 자기를 원망해 본일이 전혀 없었다. 다만 가난한자와 부자의 두 세계의 접경지대에서 살며 두 세계의 커다란 차이를 놀라와하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근심어린눈빛으로 바라보는「특이한 체질의학생」이었다. 카뮈는 중·고생시절의 이같은 상황을 한 책에서 『나는 심하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 그 것은 나 자신속에서 느끼는 무한한 힘에서 오는것이었다. 그 힘에 방해가 된 것은 심한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편견과 어리석음뿐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역시 장학생으로알제이대학에 입학하고, 知的세계에대해 몰두하고 드높은꿈을 꾸는 젊은 시절을 보낸다.

카뮈는 자신이 가진 文學觀을 압축하는 말로『빵의 부족을 그리는것도 좋지만 꽃의 아름다움을그리는것은그이상으로좋은것』이라고 표현한적이있다. 레크레르크는『대개의 작가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아 빵과꽃 중 어느 한가지만을 주장하곤하지만, 카뮈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존재의 위희와 人間愛의 원천을 찾아 줄처럼 우리의 삶에 대어주는 천성적인 휴머니스트이며 천성적인 精神主義者였다』고 평한다. 그리고『카뮈가 전세계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같은 天性의 특질』이라고 평가한다. 【桂】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海外토픽

恐龍알30여개발견

★美몬태나州 산기슭서

미몬태나주 초토 지방의 『알산』이라고 알려진 산기슭에서 금번여름에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의 알30여개와다량의 뼈가 두 고고학자에의해 발견됐다고.

고고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공룡의 뼈를 재조립, 본래의 모습으로 재생시킬 계획인데, 어미공룡의 신장은 8~10m, 새끼공룡은 2~3·5m에 달한다고 소개.

그런데 지난4년동안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의 알은 모두1백50여개에달한다는것. 【초토(몬태이나州)AP=聯合】

超滿員이룬 영안실

★항상 冷凍트럭 대기중

급증하는 범죄율과함께『살인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영안실은 각종사고로 비명횡사하거나 피살된 사람들의 시체들로 초만원을 이뤄 항상 냉동트럭을 대기시켜 미처수용하지못한 시체들을 안치하고 있다고.

마이애미市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총2천3백5구의 시체들이 시영안실을 거쳐 나갔는데 살인율이 급증함에따라 경찰이 희생자들의 시체확인을 마치기전에또다른 시체들이 밀려 결국시영안실은 이들을 다 수용하지못하고 냉동트럭을 동원, 임시영안소로 삼고있다는것. 【마이애미聯】

非暴力革命에 의한 印度獨立의 지도자。MAHATMA (偉大한魂)라 불렸다。不服從운동으로 여러번 投獄됐으나 斷食투쟁을 계속。2차大戰후 凶彈에 의해 파란의 생애를 끝냄。

文豪의 名言

禁慾 맹세한후 내人生은 自由로와졌다

1906년 나는 禁慾을 맹세했다. 그것이 내 祖國에 보다더 奉仕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날 후 내人生은 전보다 훨씬 해방적이며 자유로와졌다. 상상할수조차 없던 풍족함과 안정감에 가득차게 됐다.

使命을 완수하기 위해 내가 필요로 했던 自主獨立을 갖다준것도 이 禁慾때문이었다. 禁慾의 경의가 틀린 일이었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번도 없다.

× × ×

간디 (Mohandas Karamchand Gandhi)는 인도 카시와르州서 났다. 부친과 祖父는 모두 카시와르 藩主國의 宰相이었고, 13세때 같은 나이의 여성과 결혼, 4인의 아들을 낳았다.

고등학교졸업후 런던에가 辯護士 자격을땄다.

본베이등지에서 2년간 변호사로 생활했으나 1893년 南아프리카로가, 여기서 人種差別의 現實에 부딪쳐, 적극적非暴力抵抗운동을 벌였다. 1915년 귀국, 동지들과함께 아메다바드에「非暴力道場」을 창설, 眞理·非暴力·獨立生活·不可觸賤民의 廢絶등을 호소했다.

내가 禁慾을 맹세한후 상황은 일변했다. 그때부터 나는 女性을 人類의 어머니로의식, 거기끌리게됐다. 모든 女性은 나에게있어선 누이이며 딸이었다.

禁慾을 실천하는데, 障壁가 돼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邪氣의 有無에불구, 女性과의 모든 접촉을 꺼리게시리 바라는 금욕은 실질적 가치를 갖지않은 不自然한 抑制다.

이런 觀點에서 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女性과의 접촉을 피하려하지 않았다. 나와 女性과의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의 섹스는 없다.

禁慾의 맹세는 전여성에 봉사하는 適性을 내게 가져다 줬다. 모든여성이 마음을터놓고 화려한 內面을 보였으며 抵抗運動에의 참가를 호소했을때 모든 여성이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참여했다. 내가 禁慾者가아니었으면 아마不可能했을것이다.

나와 信條를 달리하는 사람은 많다. 非暴力의 理想을 달갑잖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의 影響下에 든 사람가운데는 단 한사람의 卑怯者도없다. 이것만은 斷言할수있다.

인용은 나의「섹스 라이프」(1940년)에서.

주간 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韓國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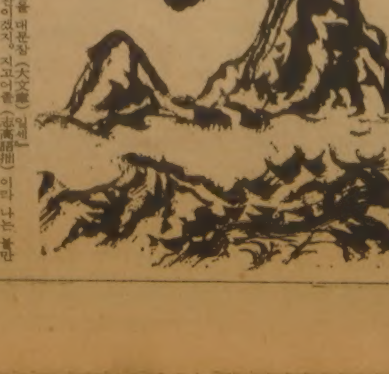
"여보, 팬케이크 다됐어요" "늦었어!" "면도하면서 먹어야겠는데" "누군가가 단풍당밀로 만든비누거품을 발명해야겠군"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957
(R) 252-6602
유 원 덕

流星의 賦 <157>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⑦



『자네의 병에 지장만 없다면』

홍성민의 답이었다.

『오래자만에 시가와 더불고 얘기를 하게되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

이이는 이렇게 말해놓고 물었다.

『지금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면 자넨 무엇이 가장 한스럽겠는가』

『한스러운게 어디 한가지 두가지겠는가. 그러나 다한(多恨)은 무한(無恨)과 통하는 모양 아닌가. 사자무유언(死者無有言)이니 사시하소언(死時何所言)이란 심정이다. 자넨 각별히 마음에 걸리는게 있는가』

『있지』

『그게 무언가』

『송원에 가서 성인(聖人)의 묘(廟)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단다』

『숙헌을 닮은 말을 하고 있군』

홍성민이 쓰게 웃었다.

『농담이 아니라네. 성인의 묘에라도 다녀왔더라면 좋다는 경지(境地)에 이를수 있지 않았던가. 견묘(犬猫)의 유를 상대로 하여 평생을 찡그리고 산 것은 오욕을 면할 순 있지 않았던가 해서 하는말이다』

『그것도 숙헌에 태어나 우리의 분제(分際)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숙헌은 걱정할 것 없어. 문(文)이 만대(萬代)의 생명을 가졌지 숙헌의 진정한 진가(眞價)가 밝혀질 날이 있을것일세』

『궁구한 상소를 올렸을 뿐인데 찍가 만대에 남을것인가』

『아니야, 자네의 만언봉사(萬言封事)는 천추에 길이 남을 대문장(大文章)일세』

『무슨 말인고. 나는 지금도 그 문장의 대강을 외우고 있을 정도이네. 왕약할(王若曰), 천자이기이이(天者理氣而已), 이무현미지간(理無顯微之間), 기유류통지도(氣有流通之道), 인사유득실(人事有得失)…. 유창하지 않는가. 고매하지 않는가. 숙헌은 이미 큰 일을 해냈어』

『그런데 그 모두가 소용 없는 일이다 싶으니 슬프지 않는가. 유언불행(有言不行)이면 불여무유언(不如無有言)이라 허망하지 않는가』

『숙헌은 그래서 탈이다. 성현의 말도 불행(不行)이어늘…자네는 성현과 겨루어 이를 능가할 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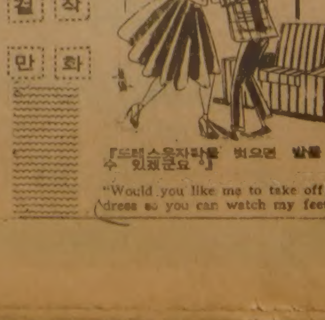
『그런 외람된 생각을 내가 어찌 하겠는가만 나의 깍한가지 한은 관로(官路)에 들어섰다는 그 사실이다. 왜 소의무관(素衣無官)으로 일생을 마쳐 심청(身淸心淨)으로 일생을 관철하지 못했을까. 두고두고 그것이 한스러워』

홍성민은 그 언젠가의 일을 회상했다. 낙향하려는 그때 퇴계선생을 붙들고 이이는 몹시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퇴계선생은 딱하게 하며 하셨다.

『각인(各人)은 유(有) 각생(各生)이니라.』

사람에겐 자기 생각이 있으니 외인이 함부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다루지 말라는 따끔한 말씀(一喝)이었다. 이이는 세상에서 비로소 이퇴계의 심정을 이해할지 모른다. 홍성민은 퇴계와 이이를 심중에서 비교해 보는 마음으로 되었다. 학문의 정밀엔 차도가 없을지 모르나 그릇의 대소(大小)는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이었다. 홍성민은 이이가 퇴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보았다.

걸작만화



『드레스를자락을 벗으면 발을 볼수 있겠군요』
"Would you like me to take off my dress so you can watch my feet?"